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 구독신청 02)2004-8211~2 | buddhanews.com |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11월 7일(음력 9월 28일) 수요일 (주간) 제652호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혼란 속 東大 발전 견인 코드는?

'효율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해답

동국대가 '신정아 사건'의 후폭풍에 휩싸인 가운데 활로 모색 요구가 거세다.

예술대 등 6개 단과대학 모임인 '좋은동국만들기 운동본부'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31일 본관 앞에서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정아 사건'은 초기 임용과정에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지만 재단 이사회와 종교적 파벌 대립, 정치권력의 외압으로 이런 비판이 무시됐다"며 "이사장의 퇴진을 비롯해 현 이사회의 인적쇄신안과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대학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학교 내에서는 오영교 총장의 밀어붙이기식 학사 행정에 대한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으며 의사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11월 2일 정오 현재까지 이사회가 별다른 '결론'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학내의 불협화음은 높아만 가고 있다. 동국대의 '불협화음'은 어디서 왜 일고 있는지 진단해 본다.

성과평가제도 시행 반발 예상

동국대는 올해 하반기부터 웹(Web)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Real Time) 성과평가제도 및 차등보상제도를 시행한다고 11월 1일 밝혔다.

고객과 성과중심의 신 경영시스템 창출을 위한 '108 프로젝트'의 일환인 성과평가제도 및 차등보상제도는 유비쿼터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평가 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단과대학 및 개인에 대한 보상을 차등화 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동국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재형 교수(연극영상학)는 "오영교 총장의 정책은 경영마인드를 변용해 학교에 끼워 맞추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서열화된 결과에 따라 모든 보상을 차등 분배한다는 것이 원칙인 현 평가시스템은 생산현장에나 맞는 방법이지 대학에는 맞지 않는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범대의 또다른 한 교수는 "교수들이 평가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른 시행을 원하는데 총장은 대학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관료적 태도로 학내 구성원 위에 군림하며 구성원들과의 합의 없이 정책들을 시행하고 이에 반대하면 학교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10월 31일 '좋은 동국 만들기 운동본부' 소속 학생들이 학교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교직원도 "성과평가제도 및 차등보상제도 시행은 언론을 통해서 알았으며, 학교측이 교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한 바 없다"며 "일방적인 행정 시행은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변성 과장(전략홍보실)은 "반대 · 반발이 강한 동국대 구성원의 성향을 감안해야 한다. 실시간 성과평가제도는 오영교 총장이 평소 전달했던 내용으로 학내 네트워크에 이미 공개된 것"이라며 학내 반발을 일축했다.

교직원 파격 배치 되레 역효과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고 한다는 이유로 10년차 이상의 과장급들을 일선 창구에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굳이 직원사기를 떨어뜨려 직원 개개인의 능력발휘를 저해하는 것이 과연 조직운영에 도움이 되겠는가"하는 게 직원들의 의견이다. 일선 창구 업무는 과거 조교나 사환도 가능하던 업무다. 굳이 계장 과장 들을 일선배치 한 형태는 구조조정과 관련 지속적인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외부로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교직원들의 시각이다.

고객중심 성과제 학생에 편중

고객중심 성과제는 시행초기 명칭에 따른 거부감이 있었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 여러 창구로 분산돼 있던 학생들의 민원을 체계적으로 수용,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상시 만족도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피드백을 받고 있다. 평가항목은 신속도, 정확도, 이해노력정도, 체감만족도를 체크하고 있는데 민원자들의 응답은 "이런 것이 있어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까지 전체 민원건수 159건 중 114건이 응답했고 만족하다는 응답율은 85.17%다. 이 서비스는 현재 타대학들도 벤치마킹 중이다.

또 11월 중순이후부터는 학생 교수 직원들에게 맞춤별 정보를 제공하는 CRM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일반기업체에나 있었던 서비스 메뉴얼도 12월초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대고객중심 성과제에 대해 다수의 학생들은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시스템을 갖춘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일부 교직원들은 이제도는 고객을 학생만으로 생각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교수와 교직원 등 내부고객에 대해서는 원칙만 있을 뿐 이들을 위한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류변성 과장은 "이는 인식의 차이로 CS는 새로운 변화다. 불만이 있지만 지금은 설득해 가는 과정"이라 말했다.

"구성원 한자리 모여 대화를"

교수들은 총장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 열린 광장에서 학내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10월과 11월 두 차례 보냈지만 총장은 몇몇 대의원만 만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과대의 한 교수는 "원만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은 중강당에서 교수는 총장실에서만 만나려 하지 말고 학내 전 구성원이 함께 하는 대토론의 자리에 나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정책의 중요성을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강화만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국대가 조계종 종립대학으로서의 권위와 100년 사학의 전통을 새로운 100년의 희망으로 가꿔가기 위해서는 보다 열린 행정 시스템 속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화합을 우선하는 마인드 제고를 해야 한다는 게 불교계의 주문이다.

김주일·조동섭 기자

신임이사 선출 등 무산

동국대 재단이사회는 12월 2일 제233회 회의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 후임을 선출하려 했으나 오전으로 예정됐던 2명의 개방형이사 선출이 무산됨에 따라 차기로 안건을 이월했다. 김주일 기자

동국사 400년전 복장유물 공개

사리·후령통·경전 등 300여점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주지 종상)에서 360년 전 조성된 부처님 제자상(가섭존자, 아난존자)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이 공개됐다.

10월 30일 열린 유물공개 법회에는 재훈 스님(동국사 회주), 법만 스님(선운사 주지), 박순호 교수(원광대)와 신도 등 내외빈 500여명이 참석했다.

전라북도 문화재지정을 위한 심의과정 중 발견된 유물은 사리와 후령통을 비롯해 1586년 흥복사본 <묘법연화경> 등 경전류 49권, <보협인다라니경>과 보협진언 216장, 1650년 작성된 발원문 등 300여점이다.

후령통에서는 무지개빛을 발하는 붉은색 사리 1과와 오색 비단천, 오색 명주실, 각종 씨앗, 꽃씨, 칠보, 사용하지 않은 닥종이 전지 등이 나왔다. 발원문에는 '순치7년 9월 2일 금산사 봉안'라는 조성연대를 알리는 글이 적혀 있다.

학계에서는 이번 유물 공개가 17세기 중반의 불교사, 직물사 및 목판본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전라북도는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높은 이 유물들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군산 동국사에서 발견 된 유물 모습.

Tip 후령통은?

후령통(候鈴筒)은 복장을 넣는 통으로 보통 불상에는 원통의 형태가, 불화에는 사각형의 형태가 사용된다. 복장은 불상이나 불화 등을 조성할 때 함께 넣는 금 · 은 · 칠보 등의 보물과 오곡(五穀) · 오향(五香) · 오약(五藥) 등을 이른다.

40년 만에 베일 벗은 '묵서지편'

세계 최고(最古) 목판인쇄물로 알려진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함께 발견됐으나 40년간 베일에 가려졌던 '묵서지편(먹글씨로 쓴 종이조각)'의 비밀이 공개됐다.

중수기(重修記)로 알려진 '묵서지편'은 1966년 10월 13일 석가탑 탑신부 2층 사리함에서 발견됐으나 '묵서지편'이라는 이름만으로 존재한 채 40년 가까이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돼 있던 국보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은 10월 27일 박물관 소강당에서 110장에 이르는 묵서지편에 대한 판독과 역주 작업을 마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관련기사 6면>

조동섭 기자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묵서지편 일부.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 · 형사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 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100%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옻이 오르지 않고 참 옻의 약성을 섭취하는
❖산사 참 옻 조청
1.2Kg - 현 시세
❖산사 약도라지 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님들을 위한 정성 산사조청원
주문처 054-372-3166
입금계좌 : 농협 727077-52-056761(예금주:현순희)

▶지면안내
선지식을 찾아서 (11면)
-도영 스님 (완주 송광사 주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92-106 TEL 02)918-0034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는 절
기원사 산사음악회
2007 우리동네 어울음악회 - 기원사와 함께 하는 노래가 있는 저녁

기원사의 30년 역사는 우리 동네의 아름다운 주민들이 함께 일궈 온 따뜻하고 보람찬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노고와 다가올 시간의 희망을 함께 가꾸어 보는 노래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이 멋들어진 시간에 정태춘 박은옥 부부의 화음과 유진박의 화려한 전자바이올린 선율이 함께 할 것이니 우리 동네는 하루저녁 극락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이 기쁜 자리의 주인공으로 초대합니다.

원장 지연 합장

2007 우리동네 어울음악회
일 시 | 2007년 11월 17일(토) 오후 5시 기원사 경내
식 순 | 1. 개회-사회 : 김병조 2. 주지스님 인사말씀
3. 큰스님 축사 4. 공연
출연진소개 | • 사회 : 김병조
• 정태춘 박은옥
• 조석호(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이수자)
• 안희진(경기소리 중요무형문화재 제31호 이수자)
• 크레이션 • 파파스(40대 동방신기) • 기원사 합창단



조계종 '조선일보 구독거부' 철회

조선일보 사장·주필 등 지관 스님 사과 방문

조계종 "왜곡·편향보도 지속적 대응할 것"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한 달여 가량 펼쳐 온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을 철회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11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양해를 구해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기로 했다"며 "11월 5일 전국 본말사 및 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철회 입장을 밝히고 동참해준 데 대한 감사 인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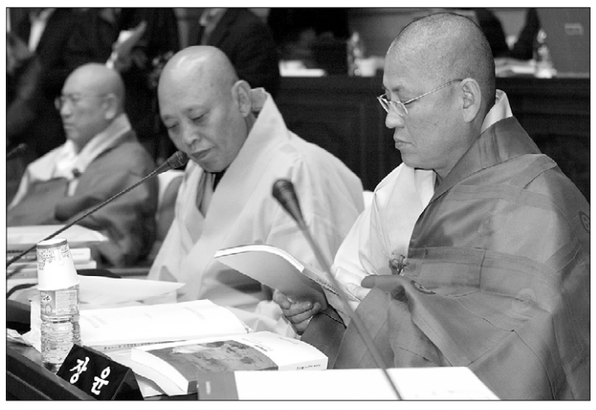
조계종은 신정아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추측성 음해와 왜곡 보도를 함으로써 불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5일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을 결의했다. 조계종은 구독거부 운동을 펼친 한 달여 간 현수막 게시, 스티커 80만장 · 홍보물 40만장 배포, 서명운동 3만여 명 동참이라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실제 구독중단이 몇 건이나 이루어졌는지는 공식 집계되지 않았다.

구독거부 철회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전격적인 사과방문으로 이뤄졌다. 방상훈 사장과 강천석 주필, 김창기 편집국장은 10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사과 방문하고 "이번 사건을 스스로 점검하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 널리 양해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조선일보 강천석 주필은 "불교가 어려울 때 더 도와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스님과 불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어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원학 스님은 "이번 구독거부 운동은 한국 종교 · 언론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로 조계종의 교권수호의 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언론의 왜곡보도나 종단의 주권을 침해하는 편향보도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독거부'라는 대응 방식이 불교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단 입장에서 교권을 돈독히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왜곡보도에 대한 각성을 위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앞으로 사단법인 보리(이사장 김재일)와 정기적인 언론 모니터를 실시하는 한편 법무법인 바른(대표 김동건)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법적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언론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수령 기자



11월 1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에는 신정아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장윤스님(사진 오른쪽)이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사진=박재완 기자

보성 스님 등 원로의원 추대

제175회 조계종 중앙종회

제175회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가 11월 1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회했다. 이번 종회는 2008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과 종헌 · 종법 개정안, 각 위원회 위원 선출 등을 주요 안건으로 15일간의 회기로 열렸다.

1일 개회한 중앙종회는 보성 종산 선진 성수 스님을 원로회의 의원으로 추천하고 종립학교관리위원에 종호 스님, 초심호계위원에 정념 스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원오 · 세정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호법부장 서리 정만 스님에 대해 만장일치로 임명 동의했다. 정만 스님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공부하고 수행하는 자세로 종단과 종도들에게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도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선출직 임원에는 일면 영조 현응 정우 스님이, 교육분과위원회장에는 원담 스님, 종정감사특별위원장은 광조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종비생수행관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는 장적 스님이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종회는 종정감사가 끝난 후인 11월 5일 속개한다. 여수령 기자

불교방송 홍승기 사장 사표

임기 8개월 정도를 남겨둔 홍승기 불교방송 사장이 11월 2일자로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해 9월 제7대 사장으로 임명된 홍 사장은 2008년 7월 5일까지 前 이성언 사장의 잔여기간동안 사장직을 맡을 예정이었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불교방송 정관상 차기 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현 이사장 영담 스님이 사장 직무대행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방송 사장은 대한불교진흥원의 추천으로 불교방송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한편 불교방송은 11월 1일 보도국장에 선상신 해설위원을, 총무국 총무팀장에 신범식 사업부 사원을 인사 발령했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천태종-중화종교문화교류協

불교 교류 '손잡았다'

'천태종 성전' 출판 기증식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천태종 성전> 중국어판 5000권을 출판해 중국에 기증하고, 관문사-북경 영광사간 자매결연을 맺는 등 한중 불교 교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태종과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는 10월 30일 중국 북경 영광사(靈光寺) 불아사리탑 앞에서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종의회의장 도정 스님 등 천태종 스님 20여명과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 장견영 부국장, 박영대 주중한국대사관 문화원장 등 4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천태종 성전> 출판 기증식'을 봉행했다.

정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와 뜻을 모아 도서 출판 등에 관한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불교도서의 기증과 보급에 착수하게 됐다"며 "한-중 장기 교류사업의 첫 번째 결실인 중국어판 <천태종 성전> 기증을 계기로 중-한 양국 불교가 날로 발전하고 세계 사상계를 선도해 이 세상을 맑고 향기로운 청정세계로 가꾸어 나가게 되기를 서원한다"고 발원했다.

이어 장견영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 부회장도 "<천태종 성전> 중문판 출간을 통해 우리는 한국 천태종의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삼대지표를 이해했으며, 한국 천태종의 사상교의 및 수행실천에서 이룩한 업적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사진 왼쪽)이 중국불교협회 회장 일성 스님에게 <천태종 성전>을 전달했다. 사진제공=천태종

출판 증정식에 앞서 천태종 서울 관문사와 북경 영광사는 두 사찰간 불교 교류 우호를 증진한다는 의미로 자매결연을 맺었다. 중국불교협회장 일성 스님과 중국 국가종교국 장견영 부국장을 증명 법사로 관문사 주지 정산 스님과 영광사 방장 상장(常藏) 스님이 자매결연서에 서명했으며, 1년에 두 번 서로 왕래하며 교류하기로 했다.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에 전달된 <천태종 성전>은 천태종 3대 지표인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와 <법화경>, 한국천태종사 등이 담긴 천태종 소개책자. 한국 천태종과 중국 불교계의 지속적인 교류의 첫 결과물로 중국 내 주요 사찰, 도서관, 관공서 등에 배포된다. 김주일 기자

중앙승가대 후원회 발족

5천원 구좌갖기 운동 전개

2009년 개교 30주년을 맞는 중앙승가대가 명실상부한 수행 · 교육 · 연구 도량으로 거듭하기 위해 후원회를 결성한다.

중앙승가대학교후원회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정념)는 10월 31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승려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가 불교 인재양성이라는 교육 불사를 위해 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족식은 11월 20일 오후 1시 경기도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자비관 4층 대강당에서 봉행된다.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월우 스님은 "후원회 출범과 함께 10만 대중의 풀뿌리 모금 참여를 목표로 '5000원 1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회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중앙승가대학교 중장기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학인 스님들의 등록금 지원 및 연구 수행풍토 조성 △교원확보 및 연구활동 보조 △국내외 학술교류 확대 △교직원 재교육 △필요시설 건축 등에 쓴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정의 투명화를 위해 후원회를 학교법인 산하에 두어 예결산 보고 및 감사를 통해 후원금의 사용처를 명백히 밝힌다는 방침이다. 또한 후원자들을 위해 1년에 두 차례 정도 음악회 등을 개최해 후원자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교육불사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031)980-7892

여수령 기자

공주 마곡사 주지후보

법용 스님 선출



후보들의 '청정선거 선언'으로 관심을 모았던 조계종 제6교구본사 공주 마곡사 주지후보에 법용 스님(보령 선림사 주지 · 사진)이 선출됐다.

6교구본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혜원)는 10월 31일 마곡사 연화당에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선거인단 145명중 122명이 참가해 64표를 얻은 법용 스님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원혜 스님은 55표를 획득했으며 무일 스님은 1표, 무효 2표로 집계됐다.

법용 스님은 "책임감이 무겁다"며 "마곡사를 승가의 본분인 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청정도량으로 가꾸어가겠다. 마곡사 문중의 마음을 모아 열심히 일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이번 선거는 후보들이 자발적으로 공정선거를 결의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른 선례를 남겼다"며 "투명선거는 제도가 아닌 출가자의 본분을 바로 아는 사고의 전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주지후보로 선출된 법용 스님은 조계사 총무국장, 마곡사 총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보령경찰서 경승실장, 보령불교사암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낙산사 복원불사에 도움을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낙산사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불자여러분 모두에게 感謝의 안사를 올립니다.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시간이라고 했건만 지나도 새겨지는 것이 있기에 저희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는가 봅니다.

낙산사 복원의 결실을 이 가을에 아뢰게 되어 至難한 시간의 의미가 감사와 고마움의 벅찬 감동으로 바뀐 이 마음이 곧 저희들의 바람인 것을 낙산사 복원불사에 도움을 주신 대덕스님과 사부대중에 감사드립니다.

한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그 마음으로 국민 모두의 도량이 되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온누리에 회향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낙산사 주지 정념** 합장

낙산사 원통보전 낙성식 · 범종 타종식

● 일 시 : 2007년 11월 16일(금요일 음 10월 7일) 오전 11시
● 장 소 : 낙산사 원통보전 ☎ 033)672-2447~8

불사회향 : 심검당, 선열당, 취숙헌, 홍예문, 홍련암 연하당, 해우소, 낙산실비노인전문요양원, 낙산유치원

'戒目' 한글번역 통일화 방안 등 논의

<계목>

조계종 포교원 '수계법회 정립을 위한 워크숍'

부처님이 제정한 계법(戒法)을 받아 지킬 것을 다짐하는 수계는 불자로서의 '첫 발걸음'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사찰에서 진행되는 수계법회의 절차와 수계를 받는 자격, 수계의 선후, 계목의 구체적인 표현법 등은 제각각이어서 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도신)은 수계법회의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31일 '재가불자 수계법회 정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수계의범 정립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계목(戒目)'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다. 한문으로 표기된 계목을 한글로 표현함에 있어 각기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실천방법까지 덧붙이는 등 사찰마다 다른 계목으로 수계법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계 계목의 근본 정신을 살피고, 이를 현대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짚어봤다.

'오계의 현대적 수용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 경성 스님(중앙승가대 강사)은 "불교 수행의 첫 단계는 오계의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정의한 후 "오계를 수지하는 것은 불자의 정체성 확립과 대외적 위상을 실현하는 시발점인 동시에 불법의 존재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오계의 항목을 현대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님은 △이제부터 우리는 살생하지 않고 방생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남의 것을 탐내거나 훔치지 않고 베풀고 나누어 보시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고 신의를 지키며 청정한 삶을 사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거짓으로 속이거나 허망한 말을 하지 않는 진실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등 자발적인 의지와 능동적인 자세를 지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오계의 한글번역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 각묵 스님(실상사 화엄학림 교수사)은 "계는 부처님의 명령이므로 가급적 원문에 가까운 표현을 써야 하며, 불필요하게 첨가된 부분은 법문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스님은 수계법회의 표준안을 위해 △오계 수지를 가능하면 많이 하도록 하고 △팔관재계나 십계 등 단기간에 철저히 지키는 방법을 활성화하고 △일반법회 의식에서도 오계합송을 하고 △수계법회 시 법사가 선창(先唱)하고 수계자들이 후창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포교연구실 정선경 상임연구원은 "이번 워크숍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수계법회의 통일화 방안에 대해 종단이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수계를 받는 대상에 따른 계층별 수계법회의 진행 절차와 계본의 한글화에 따른 상이한 용어 사용 등을 통일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사진 오른쪽)이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에게 포교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박재완기자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힘 써주세요"

한마음선원, 조계종에 후원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대표이사 대행)은 10월 31일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에 어린이 · 청소년 포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후원기금 3억 원을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은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포교원장 혜총 스님에게 후원기금 전액을 전달했다.

혜총 스님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포교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한마음선원과 같이 앞으로 더 많은 사찰이나 불자들이 어린이 청소년 불자 양성에 뜻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혜원 스님은 "불교 발전을 위해 원력을 세우고 정진하는 스님들과 종단의 포교 원력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기탁을 결정하게 됐다"며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향후 1년 내에 집행을 완료하고 사업성과를 한마음선원에 회신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운암사업회-中중산대학 김성숙기념관 건립 협의

사단법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 이하 운암사업회)는 중국 광저우(廣州) 중산대학(총장 황달인)과 '김성숙기념관 건립'에 의견을 같이 하고 2007년 11월 1일 중산대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양해각서를 통해 '김성숙기념관'에 중산대 유학 한국학생들을 위한 공간과 광저우시에 진출한 한국기업 무역관 등을 마련, 5만여 명의 한국교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협의했다. 이 날 양해각서 체결에는 운암사업회 민성진 회장, 중산대학 허녕생 부총장, 서요국제교류처장, 양건림 기초건설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강진 기자

'여성 불자' 결의문 발표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은 10월 27일 파주 헤이리마을에서 '제2회 불교여성지도자 워크숍'을 진행하고 '여성불자의 결의'를 발표했다.

이날 참여한 여성불자들은 "여성불자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교단에 참여,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결의문에서는 △종단 내 청정위원회 설치 적극 촉구 △종단 이미지 실추 책임자 공직 사퇴 촉구 △사찰 운영위원회 활동 적극참여 △새로운 신행문화 형성 역할 △종단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 제안 등을 선언했다. 김강진 기자

"포교사단 정체성 확립"



강홍원 신임 단장

11월 1일 조계종 포교사단 임시 회의에서 강홍원(56·법명 자현·사진) 부단장이 제5대 포교사단장으로 선출됐다. 강 신임단장은 포교사단 정체성 확립에 주력하겠다"는 소감을 말했다. 강 신임단장은 1994년 포교사 시험에 합격, 어린이 청소년 법회 · 장례염불봉사 등을 통해 불법(佛法) 전파에 힘써왔다.

강 신임단장이 말하는 포교사단 정체성 확립은 우선 현재 활동하지 않는 포교사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포교사단이 배출한 8천여 명의 포교사들 중 현재 활동하는 포교사는 약 300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강 신임단장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우리 단체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동료 포교사들과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또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강 신임단장은 이를 위해, 포교사 개개인의 역량에 맞는 역할 분담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또한 포교사단 부설 '사단법인 좋은인연'을 통한 장학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의 내실화에도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김강진 기자

이명박 후보 '他 종교 존중정신' 실종

부인 김윤옥씨 법명 놓고 거짓말…종교계 반발 여론

정치인의 종교는 '기불릭'이라는 말이 있다. 기독교와 불교 · 가톨릭의 합성어로, 정치인들이 자신의 종교 신념과 관계없이 유권자들의 성향에 따라 종교적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한 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행보는 종교계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다.

문제의 발단은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가 10월 20일 강원도 영월 법흥사에서 열린 '도선사 108 산사순례 기도회'에 참석해,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으로부터 '연화심'이라는 법명을 받은 것이다. 한나라당측은 즉각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부인 김윤옥 여사가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으로부터 '연화심(蓮華心)'이라는 불명(佛名)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10월 29일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 이를 전면 부인했다. "절에서 하는 법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 스님이 부인에게 얼굴이 연꽃 같다고 말한 것이 와전이 돼 그렇게 알려졌다"는 것이다.

김윤옥씨가 도선사 108산사순례 기도회에 참석한 이날 법흥사에서는 불사 10주년을 기념하는 평화기원법회가 함께 봉행됐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절에서 하는 법회가 아니다'고 의미를 축소했고, 법명을 받은 사실 조차도 부인한 것이다.

이 후보 부인이 법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두고, 그가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뜻으로 이해한 불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불자들이 이 후보에게 기대하는 것은 '개종'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모습일 것이다.

여수령 기자



금강사 불국정토 건설 대법회

불국정토 건설을 위한 대법회가 10월 27일 영주 금강사에서 성수 스님(조계종전계대화상), 정봉 스님(법회대회장), 장윤석 국회의원, 우병윤 영주 부시장 등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봉행됐다(사진). 정봉 스님은 "수행, 불사, 사찰운영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금강사 건립 취지를 밝혔다. (054)638-6546

글 · 사진/영주=고영배 기자





53 찾아서 선지식을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는 매년 한달간 봉행하던 **"화엄산림 대법회"**를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구법(求法)하는 염원으로 53일간 법사 스님을 모시고 화엄법석을 열고자 합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시어 이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과 지혜가 증장하기를 바라며 선망부모와 모든 영가는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게 하는 법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입재 : 2007년 11월 16일 금요일 (음력 10월 7일) **오전 10시**
회향 : 2008년 1월 7일 월요일 (음력 11월 29일) **오전 10시**

장소 : 통도사 설법전
회비 : 온산림 동참비 · **100,000**원(비표배부) / 반산림 · **50,000**원
영가동참비 · 1위당 **10,000**원
문의 : 통도사 화엄전 (055)381-1288 종무소 (055)382-7182
※ 소원성취기도 · 영가천도 위패 봉안등(燈)을 접수 받습니다.

교통편 및 시간
■ 부산지역 ■ 온천장 지하철역 앞 (08:00~09:00)-본사차량 및 관광버스
■ 울산지역 ■ 공설운동장 (07:30)-학성공원(07:35)-우정지하도(07:40)-구.고속터미널(07:50) - 공업R(08:00)-무거 R(08:10)-통도사(관광버스)
■ 대중교통 ■ 부산노포동 종합터미널,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동대구 성남 고속터미널

▌2007년도 화엄산림 법사 일정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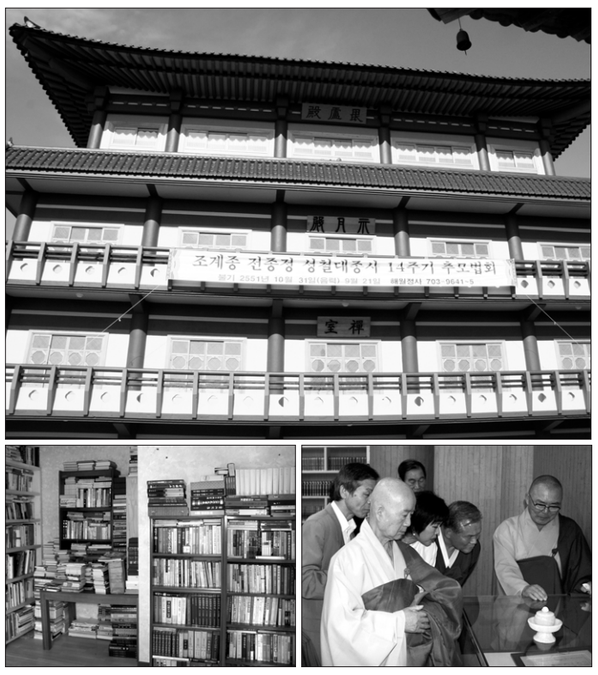
순번	음력	양력	요일	법사스님	법문하실 품	소임
1	10/7	11/16	금	혜남	현 담	통도사 전계사
2	8	17	토	현근	세주묘엄품 1	전통도사 강주
3	9	18	일	종범	세주묘엄품 2, 3	중앙승가대 총장
4	10	19	월	원산	세주묘엄품 4, 5	전교육원 원장
5	11	20	화	향과	여래현상품, 보현삼매품	통도사 수좌
6	12	21	수	지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1	은해사승가대학원장
7	13	22	목	허운	화장세계품 2, 3	동화사 주지
8	14	23	금	덕문	비로자나품,여래명호품	통도사 율원장
9	15	24	토	방장스님 신공	〈동안거 결제법요식〉 사성제품 10	창원구룡사 주지
10	16	25	일	법진	광명각품, 보살문명품	해인사 강주
11	17	26	월	승원	정행품	총무원 기획실장
12	18	27	화	성림	현수품 1	통도사 선덕
13	19	28	수	평상	현수품 2	전금산사 주지
14	20	29	목	종광	승수미산정품, 수미산정게찬품, 10주품	기림사 주지
15	21	30	금	법산	범행품, 초발심공덕품	동국대 정각원장
16	22	12/1	토	덕민	명법품, 승야마천궁품, 야마궁중게찬품	불국사 강주
17	23	2	일	원학	10행품	총무원 총무부장
18	24	3	월	광우	10무진장품, 승도솔천궁품	통도사 강사
19	25	4	화	종진	도솔궁중게찬품, 10회향품 1	해인사 율주
20	26	5	수	대성	10회향품 2, 3	범어사 주지
21	27	6	목	성웅	10회향품 4, 5	직지사 주지
22	28	7	금	법광	10회향품 6, 7	수덕사 주지
23	29	8	토	성본	10회향품 8, 9	동국대 교수
24	30	9	일	현고	〈극락암 삼삼조사재일〉10회향품 10, 11	전송광사 주지
25	11/1	10	월	정우	10지품 1, 2	통도사 주지
26	2	11	화	성오	10지품 3, 4	백양사 주지

순번	음력	양력	요일	법사스님	법문하실 품	소임
27	11/3	12/12	수	법광	10지품 5, 6	백양사 강주
28	4	13	목	지현	10정품 1, 2	송광사 율원장
29	5	14	금	원정	10정품 3, 4	쌍계사 주지
30	6	15	토	현진	10통품 / 10인품	전송광사 강주
31	7	16	일	태응	아승지품 / 여래수량품 / 보살주처품	전통도사 주지
32	8	17	월	자광	불부사의법품 1, 2	전직지사 주지
33	9	18	화	심산	여래십신상해품	부산 홍법사 주지
34	10	19	수	오심	〈월허스님 연고재〉여래수호광명공덕품 / 보현행품	울산 월봉사 주지
35	11	20	목	재문	여래출현품 1	청주 수도원 원장
36	12	21	금	반산	여래출현품 2, 3	부산영축선원 주지
37	13	22	토	산옹	이세간품 1	통도사 선덕
38	14	23	일	일귀	이세간품 2, 3	송광사 강주
39	15	24	월	해창	이세간품 4, 5	전총무부장
40	16	25	화	일면	이세간품 6, 7	군종교구장
41	17	26	수	성파	입법계품 1	전통도사 주지
42	18	27	목	정념	입법계품 2, 3	월정사 주지
43	19	28	금	원담	입법계품 4, 5	조계사 주지
44	20	29	토	효범	입법계품 6, 7	부산부처님 마을 주지
45	21	30	일	월파	입법계품 8, 9	전통도사 주지
46	22	31	월	지상	입법계품 10, 11	통도사 기획국장
47	23	1/1	화	상우	입법계품 12, 13	전통도사 부방장
48	24	2	수	만초	입법계품 14, 15	백운암 감원
49	25	3	목	혜월	〈벽안스님 연고재〉/ 입법계품 16	전동화사 강주
50	26	4	금	무비	입법계품 17, 18	전은해사 승가대학원장
51	27	5	토	우진	입법계품 19, 20	통도사 강주
52	28	6	일	정우	입법계품 21	통도사 주지
53	29	7	월	지관	회향법문	총무원장

大韓佛教曹溪宗 **靈鷲叢林 通度寺** 住持 **芽山 頂宇** | 경남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전화 : (055)382-7182 전송 : (055)382-7196

성철 스님 유물 한자리에

부산 해월정사, 메모 등 전시한 '봉훈관' 개관



성철 스님 유물 전시관이 있는 봉훈관(위), 성철 스님의 처소 고심당을 둘러보는 불자들.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과 같이 섬긴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물은 모든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성철 스님이 하심(下心)하며 남긴 주옥같은 메모 가운데 하나다. 성철 스님이 친필로 남긴 봉암사 결사에 대한 회고, 법문, 주석 등을 직접 보며 가르침을 새길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됐다.

부산 청사포 해월정사(회주 천제)는 봉훈관(奉訓館) 3층 시월전(示月殿)에 성철 스님의 친필 수행역정 메모와 법문 초안, 애독하던 경전을 직접 볼 수 있는 전시관을 10월 31일 개관했다.

같은 날 성철 스님 추모법회와 함께 전시관을 개관한 천제 스님은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나 죽고 나면 모두 불살라 버리라' 하셨지만 스님의 수행정신과 수좌 · 구도의 정신이 담긴 메모는 아무리 작아도 버릴 수 없었다"며 "성철 스님의 친필을 보고 깨닫고 공부하고자 바라는 불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월정사(海月精舍)는 30년 전 성철 스님이 주석하며 창건한 가람으로 넓은 바다와 밝은 월광이 불지(佛智)를 의미한다며 성철 스님이 직접 이름을 지은 사찰. 성철 스님이 말년에 수행처로 자주 머물던 장소이다. 성철 스님의 맏상좌 천제 스님은 "앞으로 해월정사는 봉암사 결사 및 용성, 동산 스님의 뜻을 이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노력하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터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성철 스님의 메모를 번역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할 계획이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시월전에는 성철 스님 진영과 용성, 동산 스님의 진영이 함께 걸려 있다. 용맹정진 3년 결사 규약, 총무원에 보내는 종정직 사임 통고문 등에서 성철 스님이 남긴 일상생활의 편린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날 봉훈관과 함께 성철 스님의 처소였던 고심당(古心堂)도 공개해 주목을 끌었다. 고심(古心)이란 자신의 본성을 바로 보라는 의미로 성철 스님이 자주 사용했다. 빼곡한 책, 낡은 책상과 탁자, 밥그릇까지 정돈돼 있어 당시 스님의 생활이 보는 듯하다. 해월정사를 방문한 불자들에게는 생전 스님을 친견한 듯 감동을 안겨준다.

이날 참석한 변미리 불자(51·연제구 연산동)는 "성철 스님의 높은 가르침이 가을 향기에 실려 오는 듯하다"며 "마음에 스님의 가르침을 새겨 잊지 않도록 자주 찾아뵙고 정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성미 기자



불모산영산재보존회가 영산재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시연하고 있다.

동명불원 '영산대재' 봉행

창건주 기일 기념 행사 마련

10월 28일 부산 동명불원(주지 정산)은 창건주 강석진 회장의 기일을 맞아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동명 강석진 회장은 1907년 경북 청도에서 출생하여 부산 범일동에서 동명복재상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수출왕으로 선정되는 등 탁월한 경영 발전을 이룩했다.

수행도량 동명불원, 금련사, 진해 호국사를 창건하고 BBS 회관 건립, 팔각회 창립, 동명문화학원 설립 등 후학 양성에 힘썼다.

영산대재는 경상남도 지방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어 있는 불모산영산재보존회가 주도했으며 '1일 권공(權供) 3일 영산(靈山)'이라는 말에서 보듯 3일 동안 거행되던 의식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했다. 하성미 기자

신작 '대발해'와 함께 정토회 찾아온 김홍신 작가

"법륜 스님 덕에 발해공정 작심"



"내 영혼에 박힌 작은 씨앗의 싹을 틔운 분은 저의 정신적 스승 법륜 스님이었습니다. '발해를 우리 민족사에 남기는 것이 국회의원 열 번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30년 뒤의 대한민국을 예견하는 지혜를 얻으라'는 스승의 회초리에 나는 마침내 발해공정(渤海工程)을 작심했습니다." 민족사를 밝힌 대하소설 <대발해>의 대장정을 마친 김홍신 작가(사진)가 소설 서문을 통해 남긴 집필 동기이다.

서문을 통해 법륜 스님과의 인연을 밝혔던 김홍신 작가가 부산 해운대 정토회 법당에서 법륜 스님을 만났다. 10월 31일 해운대 정토회에서 주최한 '작가와의 만남'에서다. 정토회에서 활동하는 봉사자 100여 명도 참가해 김홍신씨의 집필담을 들었다.

소설 <인간시장>으로 유명한 작가 김홍신씨는 "소설 <대발해>를 통해 한국 민족사의 위대함과 숭엄함을 증명하고자 노력했다"며 "집필 도중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든 작업이었지만 한국인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리고 싶었다"고 집필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소설 <대발해>는 668년 고구려 멸망부터 698년 고구려 유장 대조영이 세운 발해가 926년 멸망하기까지 발해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실증 자료를 토대로 사실에 입각해 서술한 대하소설이다.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소설은 김홍신 작가가 8년에 걸쳐 1만2000매 원고를 만년필로 직접 써가며 집필한 것이다.

"발해의 역사를 찾아 복원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저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진실 되게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홍신 작가는 1947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논산에서 성장하고 건국대 국문과 졸업 후 동 대학원 문학박사와 명예정치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1년 우리나라 최초의 밀리언셀러 장편소설 <인간시장>은 영화와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2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사랑받고 있다. 제15 · 16대 국회의원으로 8년 동안 활동하고 현재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부산 홍법사에 첫 '마을상좌' 탄생

신도 자녀 중 청소년 10명 선발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이 첫 마을상좌 10명과 올바른 삶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에서 '마을상좌'가 탄생했다. 10월 28일 열린 '마을상좌' 수계식에서 금정중학교 1학년 이태정군은 '홍법사 마을상좌 1기' 보엄 사형으로 거듭났다. 그동안 종립 금정중학교 법당에서 108배 절 수행 및 기도를 통해 부처님 법을 공부했다는 보엄은 앞으로 불교 건축과 현대 건축을 아우르는 세계 제일의 건축설계사를 꿈꾸고 있다.

공덕초등학교 3학년 김보현(무애심)양. 얼굴에 앳된 볼살이 통통하게 남아 웃는 모습이 마을 상좌 중 막내답게 무척이나 귀엽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매일 법당을 찾는 무애심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매일 기도를 올리는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미래에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니 화가도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그림을 그려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무애심의 성장을 지켜보며 함께 자라날 10명의 상좌들이 홍법사에서 선정됐다.

'마을상좌'는 유발상좌(有髮上佐)의 의미로 출가하지 않고 스님을 은사로 모셔 직접 가르침을 받는 제자. 홍법사는 신도 자녀 중 10명의 청소년을 선발해 '마을상좌'로 삼았다. 가족의 동의하에서 면담 시간을 가진 후 본인 의사에 의해 상좌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10명의 마을상좌들은 앞으로 정기 합숙을 통한 수행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은사스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공부 해나갈 계획이다.

심산 스님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하되 노력을 기우려야 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란다"며 "면담 시간에 말했던 여러분들의 소원과 발원들을 잊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홍법사는 앞으로 청소년 상담소 및 교육연구를 위해 지원하고 장학금 및 해외 청소년포교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10일간 참선·사경·1080배로 참회 정진해온 내원정사 대중들.

부산 내원정사 창건기념 열흘간 참회대법회 개최

"열린 출구는 단 하나 밖에 없다. 네 속으로 파고 들어가라."

전쟁 후유증을 앓고 있던 독일의 젊은이에게 전했던 풍자소설가 에리히 케스트너의 말이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불교는 무엇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은 과거의 업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할 참회의 시간을 마련하여 선을 행하고 자정의 시간을 더욱 가져야 합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창건기념 참회대법회를 개최한 부산 내원정사 주지 정련 스님은 "참회하고 정진하는 것만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며 부처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내원정사가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 동안 매일 참선, 사경 및 1080배로 정진하며 자정을 촉구하는 법석을 열었다.

"정련 스님은 "한 불자, 한 사찰,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참회의 물결이 불교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며 하심과 기본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다. 하성미 기자

대한불교미타종 제8대 총무원장 취임법회 및
창종조 월공당 벽암대종사 탄신 93주년 기념법회에 대한 인사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10월 17일 제8대 총무원장 취임법회 및 창종조 월공당 벽암대종사
탄신 93주년 기념법회를 대한불교미타종 총본산 봉암사에서 봉행하였습니다.
먼 길 마다않고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큰스님들과 제방 여러 스님,
그리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종도 여러분, 화환과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먼저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기 2551(2007)년 10월 25일

재단법인 대한불교미타종 총무원 총무원장 융호 회암 합장

장애인취업박람회를 통해 알아본 불교계 장애인 취업 실태

개개인 능력 발굴·업종 다양화 필요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이 유독 눈에 띄던 장애인취업박람회. 불교계도 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더 큰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어려워도 한 번 해볼래요. 시도는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10월 30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07 장애인취업박람회를 열었다. 여기서 만난 박현우(38 · 가명)씨는 하지장애5급으로 현재 실직 상태다. 한 쪽 다리 길이가 조금 짧지만 움직이는데 큰 불편함은 없다.

"이전 회사에서는 경리 일을 했습니다. 컴퓨터도 어느 정도 다룰 줄 압니다. 오늘을 기회삼아 적극적으로 구직해 볼 생각입니다."

박씨처럼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꽤 많았는지 박람회장은 하루 종일 북적였다. 380여개의 업체가 참여한 박람회 슬로건이 눈에 띄었다.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 만들기가 실현되고 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비율을 높이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전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이상의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돼있다. 이외 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신규고용장려금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불교계도 장애인 고용에 대해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이번 장애인취업박람회에도 참여한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성산, 02-989-4215)에서는 직업재활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기술은 물론 정보화교육까지, 2년에 걸친 취업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을 알선한다. 강북장애인복지관의 가장 큰 장점은 장애인들을 구인업체에 맞춰 취직을 시키기 보다는 장애인들의 사정과 능력에 맞는 업체를 발굴해서 취업 알선한다는 점이다. 복지관 내에서도 셔틀버스 도우미, 공공근로 등을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맡기고 임금을 지급한다. 권윤철 직업재활팀장은 "취업적합성 여부와 직무분석을 통해 그 사람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시설 外 사찰 · 단체 지원 미비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다래, 031-396-3108)은 '보호작업장' 운영이 인상적이다. USB 완제품 생산라인을 갖춘 이 작업장에는 발달 또는 정신지체 장애인 노동자 36명이 일하고 있다. 장애인들도 정교한 작업까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다. 또 외주 인가공업체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작주문을 받아 중간조립품 생산을 하거나 비즈 · 압화 공예 액세서리를 만들기도 한다. 공예품이나 액세서리는 내부 또는 경기도청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접 판매,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으로 군포장애인복지관은 2006년까지 4년 연속 보건복지부 자활기금사업 우수 집행평가기관으로 선정됐다.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현각, 033-643-1801)에서는 '해오름식품'을 운영, 장애인 취업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 '해오름식품'은 보호작업장에서 출발해 현재는 일반사업자 등록을 마친 '제조업체'다. 현재 감자떡과 제빵 · 제과 상품을 만들어내는 이 업체에는 지체장애인 14명, 지적장애인 7명이 고용돼 있다. 이들은 현재 일반사업으로 판로를 개척, 수익을 내고 있다.

불교계 복지기관들에서 장애인취업지원과 고용에 힘쓰고는 있지만 그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 하나는 오직 장애인시설에서만 장애인취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산하 시설 중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해당하는 시설이 생길 경우 반드시 정책을 따르도록 권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종단 차원에서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또 다른 문제점은 불교계 장애인취업지원이 거의 보호작업장 안에서만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는 직종이 단순하다는 문제로도 연결된다. 보호작업장 대부분이 단순 노무라면, 장애인들 개개인이 가진 능력을 이용해 발굴할 수 있는 직종은 전문직 · 사무직 등 무궁무진하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불교계가 장애인복지 자체에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스님은 "교계 복지시설이 노인과 아동 시설 등에만 편중됐고 스님들은 장애인복지는 골치 아프다며 기피한다"고 비판했다.

11년간 장애인복지에 매진하고 있는 강릉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지명 스님은 "불교계는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장애인 취업은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이끌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부산 용호복지관 'TQM' 선포

복지서비스 質 '업그레이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저 혼자서는 어려움이 많아요. 어떻게 가르쳐 할지 모르겠어요."

용호동 지역에 살고 있는 46세의 한 주부가 용호종합복지관에 호소한 어려움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부산 용호종합복지관(관장 이춘성)이 발 벗고 나섰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11월 9일 오후 4시 용호종합사회복지관 2층 용호문화센터에서 TQM(Total Quality Management)을 선포하고 지역 주민들의 고민을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TQM은 지역민들의 만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리 도구, 기법, 훈련 등의 통합 시스템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를 하기 위한 조직과정을 말한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어려움도 달라지며 조직 운영 중에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 새로운 관리기법이 필요하여 TQM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비영리 조직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더욱 다양하고 많아지고 있어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제안에 의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용호종합복지관은 앞으로 '전문사회복지', '고객감동', '삶에 희망과 용기를' 이란 비전을 안고 지역 주민을 위해 발돋움할 예정이다. (051)628-6737~9

하성미 기자



"봉사하는데 나이는 숫자일 뿐"

③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수신회 유인섭 팀장

눈빛이 형형한 사람은 만인(萬人) 속에 묻혀있어도 눈에 띄기 마련이다. 의지가 그 눈 속에 서려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만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사단 수신회의 유인섭(67) 팀장이 바로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키가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인상이다. 만 65세가 넘었으니 법적으로 '노인'이다. 하지만 봉사단 내에서 그는 '만년 청년'으로 통한다. 봉사 중에서도 가장 힘들다고 소문난 분야가 목욕 · 발반사마사지. 유 팀장은 놀랍게도 그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있다. 목욕봉사는 국립재활병원, 발반사마사지봉사는 마포노인복지관에서 각각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다. 국립재활병원 목욕봉사팀 수신회에서는 팀장까지 맡고 있다.

"처음 봉사하겠다고 나섰을 때, 친구들이 다들 말리더군요. '야, 네가 받아도 시원찮은데 무슨 봉사냐'면서요."

5년째 목욕·발반사 마사지 봉사
작년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도

요즘에는 친구들을 만나면 봉사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기 바쁘다는 유팀장은 처음 국립재활병원에 나가 목욕봉사에 참여했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많이 혼나면서 배웠어요. 거기 환자분들은 온몸이 마비돼서 정말 조심해서 서비스해드려야 해요. 때를 미는 방법부터 다시 배웠지요."

유 팀장이 봉사의 참맛을 알게 된 것은 5년 정도 됐다. 아내의 권유로 조계사 불교대학 '44학번(불기2544년 학번)'으로 입학한 것이 계기였다. 불법(佛法)을 배우며 '꼭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자'고 서원하자 17살 때부터 꿈꿔왔던 '봉사하는 삶'이 보이더란다. 그래서 그는 불교대학을 졸업할 때 쯤, 스스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찾아갔다. 그렇게 그는 "일흔까지 반드시 일주일에 2번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새로운 원(願)을 세웠다.

서울 신림동에서 30년 가까이 포목점을 운영해오고 있는 그는 "바쁘게 살았다"고 지난날을 상기했다. 유 팀장은 포목점을 하기 전, 30대 중반까지는 의류회사에 다니고 있었단다. 당시 섬유노조가 한창 생길 무렵이었고 그는 조합반장이었다. 그런데 노조활동 때문에 직장이 폐쇄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는 쓰린 마음을 다잡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의 굳은 눈빛은 세월이 만들어냈는지도 모른다. 봉사는 어쩌면 결연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한 번 하는 일, 제대로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그는 국립재활병원 추천으로 2006년 보건복지부 장관 상까지 수상했다.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5년 동안 달려왔지만 요즘 들어서는 "힘에 부칠 때도 있다"고 고백한다.

"집에서는 힘들다는 말 못해요. 체중이 줄어 아내가 근심이 많아요. 그냥 나이가 들어 그런 것이라 우기고 있어요."

허허 웃으며 "일흔까지 계속하겠다"고 다시 다짐하는 유 팀장이지만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의 고민은 '봉사단을 어떻게 유지하는가'다.

"목욕이나 발반사 봉사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보람도 있습니다. 내 서비스를 받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기분, 설명하기 힘드네요. 불자들이 많이 봉사하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글·사진=김강진 기자



‘묵서지편’ 천년의 침묵을 깨다



■석가탑의 천년 한 눈에 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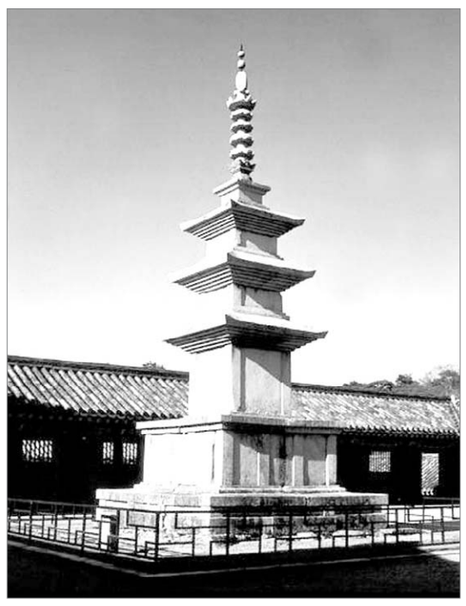
세계 최고(最古) 목판인쇄물로 알려진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함께 발견됐으나 40년간 베일에 가려졌던 ‘묵서지편(墨書紙片: 먹으로 쓴 종이뭉치)’의 비밀이 공개됐다.

지난 10월 27일 세상에 소개된 ‘묵서지편’의 내용은 석가탑의 역사 그 자체였다. 묵서지편을 통해 석가탑의 프로필을 재구성 했다.

아사달과 아사녀의 애틋한 사랑의 전설을 품고 세워진 무영탑. 김대성의 원력으로 8세기 중반 조성된 이래 정토구현을 염원했던 신라인의 이상과 석가여래의 설법이 상주함을 증명하며 서석탑의 이름으로 불국사를 지켜왔다.

고려 현종 15년(1024년) 경주 인근의 지진으로 석가탑은 1차 보수를 했다. 정월부터 중수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준비했다. 여러 스님들이 쌀, 콩, 보리의 곡물류는 물론 철, 포, 비단 등을 공양했다. 관료인 안동대도호부사도 쌀을 보탰다. 서두른 덕분에 2월부터 탑의 해체를 시작해 2월 18일에는 탑에 모셔진 사리를 수습하여 금당 뜰로 옮겨 모실 수 있었다.

사리가 옮겨진 뒤 중수에 박차를 가해 손상된 탑을 속히 보수하고 3월 14일 사리를 봉안하기에 앞서 사리를 안장하기 전 의식을 올린 뒤 안동대도호부사에게 경위 보고를 했다. 금동함, <무구정광대다라니경> 9편, 순금병, 금병을 싼 비단, <보협인다라니경>, 용뇌향 등 다양한 향과 소석탑 등 사리장엄구와 복장물을 챙겨 사리를 다시 탑 안에 모셨다. 사리가 모셔진 뒤 대덕 등이 안치 결과를 살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에 기록하고, 소요된 물자와 공양물 등에 대해서는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형지기’에 기록하여 함께 탑에 봉안했다.



불국사 석가탑.

고려때 지진으로 두차례 중수, 임란땐 안전
1966년 보수 위해 탑 해체하면서 유물 발견

고려 정종 4년(1036년) 또 다시 대지진이 석가탑을 흔들었다. 이번에는 더 크게 훼손되어 무너지려는 것을 대중들이 버팀목으로 대놓았다.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 석가탑을 중수했다. 2층 탑신석 등을 새로 하고 탑 안에 있던 것들은 모두 그대로 두되 은합만은 새로 제작해 다시 봉안했다. 공교롭게도 1038년 1차 중수를 마칠 무렵 다시 찾아온 지진은 대중의 노력을 허사로 되돌리는 듯 했다. 이미 1차 중수를 마친 터라 더 이상 나라의 지원도 없고, 단월도 없었다. 이에 대중은 미력삼회도량을 결성하여 재물을 모아 중수에 들어갔다. 석가탑을 바로 세워야한다는 신심과 원력으로 대중들은 다시 시주를 보탰다. 1차 중수 때처럼 곡식류와 삼베, 비단과 마 등이 시주됐다. 스님들의 솔가에서도 도움을 줬다.

다시 2층 탑신을 해체해 사리를 꺼내 임시봉안소에 모시고 공양을 올렸다. 재(齋)를 거듭 올리며 1층 옥개석, 탑신을 해체하고 기단부 갑석까지도 내려야했다. 하지만 겨울비에 공사는 중단되고 비는 나흘간 계속됐다. 날이 개자 다시 재를 올리고 탑을 조립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불국사서석탑중수기형지와 추기’에는 중수 진행 과정을 ‘불국사탑중수보시명공중승소명기’에는 보시자들을 기록해 함께 봉안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임진왜란 등 숱한 외세의 침입과 한국전쟁의 화마도 대중의 원력으로 조성 · 중수된 석가탑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1966년 석가탑 보수를 위해 탑을 해체하면서 귀한 유물들이 세상에 소개됐다. 사리를 봉안한 탑신부 2층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함께 사리함 등이 나왔다. 사리함 주위로 동거울 등이 사리함 밖 바닥에서는 비단에 쌓여 뒤엉켜 붙은 종이뭉치가 발견됐다.

당시 기술로는 이 종이뭉치를 떼어낼 수 없어 이름만 ‘묵서지편’이라 붙여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해야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 보존처리를 위한 상태조사를 하면서 뭉쳐있던 종이들은 110여 편의 분량으로 분리될 수 있었다. 2005년 9월 묵서지편에서 ‘중수기(重修記)’라는 문자가 판독된지 2년이 지난 2007년 10월 발견. 41년만에 ‘묵서지편’ 전체가 판독되어 창건 이래 두차례 중수한 석가탑의 비밀이 밝혀졌다. 조동섭기자

■‘묵서지편’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묵서지편’에 대한 주된 관심사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나이다. 그간 학계는 통일신라에 탑이 조성된 이래 단 한번도 중수되지 않았을 것이라 믿고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조성연대를 통일신라로 인정했었다. 하지만 ‘묵서지편’을 통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통일신라의 것이 아닌 고려의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학계가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10월 27일 열린 ‘석가탑 발견 유물 조사 중간 보고’에 따르면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 진정될 듯 하다. 묵서지편 해독에 실질적 역할을 한 이승재 교수(서울대 언어학과)는 ‘석가탑 묵서지편의 지편 조립과 이두 판독’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고려 정종 4년(1038) 중수기의 “전물부동(前物不動: 사리함 안에서 수습한 사리장엄구를 다시 안장하되 처음에 있던 그대로 안장했다)”는 기록, △‘묵서지편’이 발견 당시 사리함 밖 바닥에 위치했으나 <무구정경대다라니경>은 사리함 안 깊숙한 곳에서 발견됐다는 점,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서지나 서체 등을 미뤄볼 때 신라시대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천혜봉 위원장(석가탑 묵서지편 조사위원회)는 중국 당나라 측천무후의 재위 기간(685~704)에만 사용된 측천무후자(字)가 보인다는 근거를 들어 통일신라의 것에 무게를 두었다. 박상국 문화재위원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쓰인 종이가 일본의 전문가에 의해 신라시대의 것임을 확인 받은 사실을 볼 때 추담으로의 왜곡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것과는 반대로 고려 정종 4년(1038) 작성 문서 중 ‘이 해 ○월 ○○일 대덕 숭영이 보협인다라니경을 (사리공에) 납(納)했으며 얼마 뒤 무구정광대다라니경 1권을 ○했다’라 적혀있는 것을 두고 문맥상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납’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만약 ‘납’했다면 고려 때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돼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만 고려 때 넣은 것이 고려시대 새로 만들어진 것인지, 신라시대의 것을 그대로 다시 넣은 것인지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만이 안다.

조동섭기자

■남은 과제는 무엇?

불교계에서는 석가탑에서 발견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뒤 불교문화재를 국가에 빼앗긴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또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도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대 등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없지 않다. 때문에 ‘묵서지편’의 사례를 통해 고대 한국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불교연구 인력 양성이 중요함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묵서지편’을 둘러싼 과제는 아직 많다.

▲소유와 관리 문제

현재는 2007년 5월 1일 이관여부심의 결과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묵서지편’ 등의 발굴유물에 대한 조계종의 소유를 인정받은 상태다. 문서에는 차후 전시 목적으로 일부 이관을 동의하고 조계종 총무원장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이를 협의하도록 명시돼 있다. ‘묵서지편’을 둘러싼 조계종과 국립중앙박물관과의 대립을 중재하고, 승려로는 유일하게 석가탑 발굴 유물 조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범하 스님(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은 이 문제에 대해 “무엇보다 소유권을 인정받았고 묵서지편의 보존처리나 보관문제상 현재로는 종단에 이롭다고 본다.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묵서지편을 통해 문화재가 많은 경주가 지진위험지역임이 드러났다. 문화재의 내진시설을 정비 ·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 말해 천재지변에 대한 문화재 관리 강화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연구방향

‘묵서지편’의 해독을 통해 석가탑의 중수사실은 물론 사리장엄구와 사리함, 해체 및 중수과정 등이 상세히 밝혀짐으로써 불교학, 사학, 국어학 등 전방위적인 한국학 연구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은 ‘묵서지편’의 자료를 홈페이지(www.museum.go.kr)을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연구자의 ‘묵서지편’ 연구를 돕고 있다.

불교학계로서는 당시의 사찰과 탑 명칭은 물론 승가의 법계, 사원경제 운영상 등 불교문화 전반을 조명할 수 있는 자료다. 범하 스님은 “조탑신앙과 사리신앙의 중요한 연구자료”라며 대중의 모연을 통한 복원 사실을 증명하는 형지기와 석불사 명칭이 기록된 소명기 등을 예를 들어 “과거 해체 · 복원 절차에 대한 상세한 연구와 석굴암 등 인근 사찰 명칭과의 관계 고증이 요구된다”면서 ‘묵서지편’의 불교적 연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조동섭기자

학술단신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용표)는 11월 9일 10시부터 대진대학교에서 “종교 창시자들의 교육방법 재조명”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발표에는 양은용 교수(원광대), 조한석 교수(성균관대) 등 6인의 연구자가 참여한다.

■한국불교미술사학회(회장 범하)는 11월 10~11일 9시 30분부터 불교중앙박물관 2층 국제세미나실에서 <한국의 불화> 완간을 기념하는 제 10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석정학술상 시상과 함께 범하 스님 화갑을 기념하는 불교미술사학회지 제 5권이 발간 · 배포될 예정이다.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는 11월 10일 오후 2시부터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보살의 자비, 치료자의 공감’이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갖는다. 자비를 심리치료의 공감에 대응하는 불교적 태도로 본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의 발표와 함께 조성호 교수(카톨릭대 심리학과), 서동혁 박사(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가한다. 참가비는 회원 · 학생 2만원, 비회원 3만원, 성직자 1만원.

무한동력 무한동국
뜨거운 열정과 무한한 에너지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동국대학교

배움을 향한 지치지 않는 열정–
동국대학교가 당신의 내일과 함께 합니다.

2008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대학원명	학과명	원서접수기간	전형일
영상대학원(주간)	문화콘텐츠학과, 영화영상학과, 멀티미디어학과	10.29(월) ~ 11.5(월)	11.9(금) ~ 10(토)
경영전문대학원(주간/야간)	General MBA, CO-MBA(문화경영)	11.19(월) ~ 27(화)	12.1(토)
불교대학원(야간)	불교학과, 불교문화콘텐츠학과, 불교사회복지학과, 생사의례학과	11.5(월) ~ 16(금)	11.23(금)
행정대학원(야간)	행정학과, 안보 · 북한학과, 공안행정학과, 복지행정학과	11.5(월) ~ 16(금)	서울–11.24(토) 계룡대–11.27(화)
교육대학원(야간)	교육학과, 교과교육학과	11.5(월) ~ 16(금)	11.24(토)
언론정보대학원(야간)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인쇄출판학과	11.5(월) ~ 16(금)	11.17(토)
문화예술대학원(야간)	문예창작학과, 공연영상예술학과, 불교예술문화학과, 예술경영, 예술치료	11.5(월) ~ 16(금)	11.24(토)
국제정보대학원(야간)	정보보호학과, 영어통 · 번역학과, IT-Business학과	11.5(월) ~ 16(금)	11.17(토)
불교문화대학원(경주/야간)	불교학과, 불교예술학과, 장례문화학과, 불교상담학과, 다도 · 사찰음식학과(신설)	11.12(월) ~ 22(목)	11.24(토)
사회과학대학원(경주/야간)	경영학과, 국제관계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체육학과	11.12(월) ~ 23(금)	11.24(토)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 참고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공 고

단체등록증 재교부(신규)요청

1차 공고일 : 2007. 10. 31.
불 교 지 :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2차 공고일 : 2007. 11. 3.
불 교 지 : 현대불교신문

2007년 7월 10일 이전 본회에 등록한 종단 및 불자 신행단체는 아래와 같이 재교부를 공고합니다.

재교부 기간 2007년 10월 25일부터 2007년 11월 25일까지(30일간)

위 기간내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에서 발급하는 법인단체등록증을 재교부 받지 않는 종단 및 신행단체(110개 종단, 단체)는 본회의 취지 및 목적이 맞지 않아 탈퇴함을 인정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할 세무서에 본회 명칭 사용 정지 신청을 요청할 것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2007년 11월 2일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 총연합회 대표이사

◎ 행정업무사무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3-2번지 중후2빌딩 5층
TEL : 051)465-3255

알 림

귀의삼보 하옵고.....
귀 종단 및 단체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충만 하시어 상구보리 · 하화중생 하옵기를 불전에 기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 총 연합회 11월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져 하오니 다망중이오나 일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일 자 : 2007년 11월 20일(화요일)
◆일 시 : 14시(오후 2시)
◆장 소 : (사) 한불총 대 회의실

▶ 참고사항 ◀

1) 등록종단(43개 단체) 총무원장 및 대표
(종단, 대표 외 임원 1인~2인 참석가능)
2) 가사 · 장삼 수지
3) 미등록 종단 및 사회단체대표는 회의장 참석불가함.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대표이사

◎ 문의처 : 051) 465-3255



佛빛 밝히고 정진 화합 한마음

부산 미타선원 개산문예축전 현장

불자와 지역민들의 정성등(精誠燈)이 하나하나 모여 시방세계를 밝히는 무량광(無量光)으로 빛났다. 용두(龍頭), 용의 머리를 타고 나타난 기룡관음(騎龍觀音)의 형상을 하고 있는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과 용두산 공원 일대에서 10월 26일부터 사흘간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밝히는 '佛빛 축제'가 열렸다. '함께 밝히는 용두산 佛빛 등대'를 주제로 한 미타선원 개산문예축전. '놀토' 마다 희상 스님(동국대 강사)에게 그림 지도를 받고 있는 아이들의 그림 전시회, 용정다원의 그윽한 차향기와 따뜻한 한 잔의 차, 하늘의 빛을 옮겨 놓은 듯 색의 별난 맛을 보여주는 풍뎅이 천연염색 전시회, 현대북스와 클리어 마인드의 불교 서적 전시, 놀토문화강좌 자모회에서 만든 천연비누 바자회 등. 불자들이 준비해 내놓은 작품들이 절과 공원길을 가득 채웠다.

올해 처음으로 대형 축제를 마련한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은 "산문을 열고 부처님의 수행도량으로 천만년 이어나가겠다는 불자 모두의 발원을 담아 개산(開山)이라는 이름을 쓴 것"이라며 "모두의 개산대재이며 불자들이 연 산문의 공덕으로 세상이 밝아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사흘간의 축제는 일사불란하게 이어졌고 불자와 지역민들은 더 친근해졌다.

수불 스님 초청법회.


외국인들도 진지한 모습.

#법문

26일 오후 7시 30분. 노을과 함께 붉게 변한 바다 위로 떠오르는 둥근 달이 미타선원 신도들의 정성이 모인 삼천등 위로 밝게 빛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밝혔다. 희망의 삼천등 아래 모인 미타선원과 안국선원 신도 그리고 지역민들은 수불스님(안국선원장)의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수불 스님은 "분명한 눈앞의 일을 알지 못하고 등지고 살고 있는 삶의 어리석음은 누구의 탓이겠습니까?"라 물은 뒤 "한 순간이라도 어찌 소홀히 시간을 흘러보내리요. 가르침의 일을 찾고 또 찾으니 수미산의 일이 눈앞에 드러나는 구나"라며 활구를 설했다.

#화합

축제가 이틀째로 들어서며 새롭게 장식된 부산 광복동 거리가 한층 뜨거워졌다. 미타선원에서 숙우회의 자하(紫霞) 헌공다례와 영산법회를 상징하는 불교의식 영산재가 열리는 동안 시민들은 귀한 구경을 한다는 듯 몰려들었다. 이어진 미타음악회와 미타불자 한마당은 가을밤을 수놓는 음악의 향연으로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는 잔치 한마당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체험

'사찰음식으로 만나는 부처님' 코너를 통해 사찰음식 연구가 홍승 스님은 도시인들이 자연과 함께 생활하고 자연이 주는 여러 요소들을 함께 깨닫게 해주었다. 또 시민선방 안심당에서 진행된 선방체험에 동참한 불자와 시민들은 잠시나마 스스로의 마음자리를 살펴보는 시간에 흡족해 했다. 달마그리기 체험에서도 눈으로 구경만 하던 달마도를 직접 그려보면서 선화의 세계가 갖는 오묘함을 조금이나마 맛보는 시간이었다. 김옥현(부산시 사상구) 불자는 "달마 스님의 우락부락한 얼굴이 무서웠는데 그림의 의미를 알고 나니 존경스럽고 친근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짐

축제의 마지막 순서는 다짐이었다. 개산대재는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출발이며 그 미래의 시간도 올곧게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시간임을 모두 함께 인식하는 시간. 지하 스님(前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을 전계사로 보살계를 받는 자리에서는 동참자 모두가 산문의 주인공임을 알고 깨달음(覺)과 바름(正) 그리고 청정함(淨)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의 다짐이야말로 또 다른 '개산', 자신의 마음을 여는 거룩한 의식이었다.

글 · 사진=하성미 기자


하림 스님과 함께한 발우공양 체험.


연등을 밝히며 '축제 시작'.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 식 상량식 불사용 소장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소)20×12×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온열복대를 사용하시면 80℃이상의 열과 생육광선이 발산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통증완화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 결림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쑥뜸보다 열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고열의 원적외선 "열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며 70℃~80℃ 이상의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원적외선의 원리로 뜨겁거나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랫배가 냉하신분 ◆손,발이차신분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허약한 氣회복 ◆생리통, 허리통증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 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배, 허리, 발바닥 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73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일 주 문



연무사 수계법회
도선사 부조실 현성 스님은 10월 20일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훈련병 1500명에게 수계했다. 수계법회에는 동학사 학인과 어머니불교회가 동참했다.



불교문화 유적답사 실시
광주불교교육원장 영조 스님은 11월 4일 '충주지역 고구려 불교유적을 찾아서'를 주제로 제73차 불교문화 유적답사를 실시했다.



순직 경찰관 추모위령재
부천남부경찰서 경승실장성인 스님(대덕사 주지)은 11월 16일 부천시암연합회 스님 및 부천남부경찰서 곽훈 서장, 유가족과 함께 순직 경찰관 제17회 추모위령천도재를 봉행한다.



수국사의 사원배치 주제 세미나
(사)한국미술사연구소 문명대 소장은 11월 10일 오후 1시50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수국사의 사원 배치와 불교미술의 재조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산창립 25주년 기념법회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은 11월 10일 오후 4시 30분 동산불교대학 2층 교육관에서 동산창립 제2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32-1206

이전 불교전문 출판편집기획사 중도기획(대표 신원식)은 서울 중구 필동 3가에서 서울 종로구 청진동 18번지 삼영빌딩 702호로 이전했다.(02)2278-2240

미타종 8대 총무원장 회암 스님 취임식



(재)대한불교미타종은 10월 17일 총본산 봉암사에서 제8대 총무원장 회암 종사 취임식과 창종조 월공당 벽암 대종사 93회 탄신일을 기념해 국제 보살계를 봉행했다. 종단 임원진을 비롯하여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총무원장 취임식, 보살계 수계법회, 합동영가천도재 순으로 진행됐다.

국제 마정수기 보살계 법회는 네팔 텐진 린포체 스님이 진행하였으며, 권성우 이사장의 종단 발전에 공헌한 종도들의 표창장 수여도 진행됐다. 제8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회암 스님은 "64년간 불교전통을 계승해 온 한국불교 중추종단 미타종을 위해 정진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종단 화합을 위한 종도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점차 종단 발전 사업들로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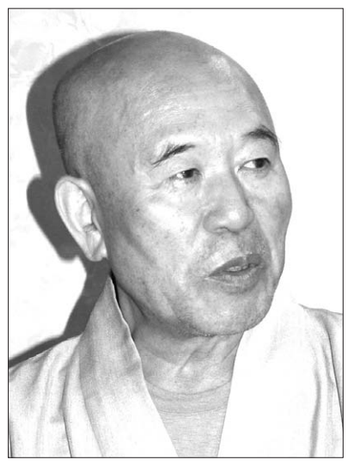
'함께하는 세상' 만들 것

'금강경 사경 국토순례단' 이끄는 지성 스님

"국토사랑의 국토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불국토를 뜻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힘을 내는 호국불교사상이 우리나라 불교에는 강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불국토를 순례하면서 국민정신을 규합하는 중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 끝에 사경을 선택했습니다. 개인 수행 공덕도 되고 국민사상을 하나로 결집하는 구심체역할을 할 사경순례단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불교의 자비사상, 공동체 사상을 통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모토로 발족한 '함께하는세상'의 이사장 지성 스님(국토사랑 <금강경> 사경순례단 인솔법주 · 사진)이 전국의 사찰 33곳을 찾아가는 '국토사랑 <금강경> 사경 순례'를 시작했다. 10월 7일 발대식을 갖고 출범한 '국토사랑 <금강경> 사경순례단'의 첫 번째 순례지는 11월 7일 조계사이다.

1000일 기도와 함께 하는 '<금강경> 사경 순례 법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송광사 백양사 등 총 33개 사찰을 순례하며 <금강경>을 사경하게 된다. 1000일 동안 매일 <금강경>을 한 번 읽고 발원문을 낭독하는 수행생활을 해야 하는 사경순례단은 현재 90여명의 동참자가 있다.



"<금강경> 한문본을 사경할 예정인 사경순례단은 순례에 동참하는 날뿐 아니라 한 달 동안 집에서 매일 수행과 함께 <금강경> 31분을 사경하고, 사찰 순례에 가는 날 현지에서 32분 '응화비진분'을 사경해 한 권의 사경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지성 스님은 사경순례법회의 시스템을 설명한다. 이렇게 33곳의 사찰을 다니며 만들어진 33권의 <금강경> 사경본은 회향법회 후 대구 극락사에 건립되는 사경탑에 모두 봉안할 예정이다.

지성 스님은 "직장인을 위한 주말 순례단을 꾸려 내년 3월경에는 2차 사경순례단이 출범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3차 4차 꾸준히 순례단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우리나라 불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자들과 함께 그들의 서투른 한국생활과 언어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 공유하고자 '함께하는 세상'을 발족했다"며 "불교자비 사상을 기반으로 함께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많이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053)657-0408 강지연 기자

"국민들에 부처님 가르침이 친숙하게 할 것"

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 이기흥 회장



"불자체육인들이 서로 단합하고 더 좋은 경기를 펼쳐 부처님의 가르침이 친숙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포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자 체육인들의 신심을 고양하고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할 대한불교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가 10월 29일 창립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봉행된 창립법회에는 체육인불자연합회 총재인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교육원장 청화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해 체육인불자회 탄생을 축하했다.

이날 체육인불자연합회 총재 혜총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에게 임명장을 받은 이기흥 회장(카누연맹회장 · 사진)은 "오늘을 계기로 우리 불자체육인들이 서로 단합하고 연합회를 더욱 발전시켜 사회의 귀감이 되겠다"며 "선수들은 안정된 마음으로 더 좋은 경기를 펼쳐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친숙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 회장은 "체계적인 불자체육인 양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겠다는 종단의 뜻과 불자선수들의 염원으로 불자회가 창립될 수 있었다"며 "불자체육인들이 서로 단합하고 격려하며 사회의 귀감이 되고 모범적인 단체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불자 체육인의 발굴 · 육성 · 지원 △국가대표 선수촌 선수들을 위한 법회 개최 △회원간 단합과 화합 도모 △각국 불자선수들과의 유대 및 연대활동 등의 주요 사업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체육인불자연합회는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법장 스님의 지원으로 발족이 추진됐으며, 지난 10월 19일 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조직구성을 시작했다.

현재 이연택 대한체육회명예회장이 명예회장을, 박종길 사격연맹부회장, 방대두 상무 레슬링감독, 이희경 前볼링대표감독이 부회장을 맡는 등 국내 스포츠 각 분야 200여 명의 지도자 및 선수들이 회원으로 등록한 상태다. 여수령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활기차고 재미있는 신도회 되도록 노력할 터"

동화사 4대 신도회장 김석순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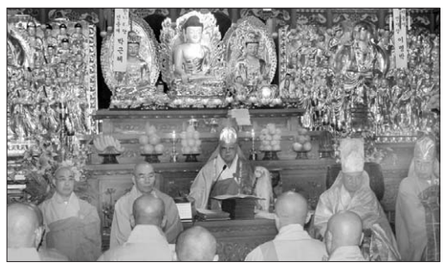
"앞으로의 인생 모든 것을 부처님과 함께 하고 불심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교가 위상을 되찾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각계각층 불교지도자들과 협력하겠습니다."

11월 1일 대구 동화사 제4대 신도회장이 된 김석순 신임 신도회장(킴스치과 원장 · 사진)은 이렇게 포부를 밝혔다.

김석순 회장은 "신도회 단합과 자기희생 봉사를 몸소 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부하며 용맹정진해서 이번 집행부는 정말 수행정진하는 불교를 사랑하는 신도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주지 허운 스님 덕분에 신도회 집행부가 젊어졌다는 점을 강조한 김석순 회장은 "보다 젊고 활기차고 재미있는 신도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불퇴전의 심신과 정진의 힘을 더욱 갈고 닦아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펴고 지혜와 용기로 수행정진하는 신도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원융종 단일계단 수계법회 봉행



한국불교 원융종(총무원장 성관)은 10월 29~30일 원융종 총본산인 구로 원융사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일공 종정예하를 비롯, 총무원장 성관 스님과 종단 임원진등 120여 종도가 참석했다. 일공 종정스님은 법어를 통해 "진정한 수행자의 마음을 새기고 종단화합과 중생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말했다. 이날 수계식에서는 70여명의 종도가 구족계와 사미계를 수지했다.(02)853-0431

한국불교 미륵종 캄보디아 성지순례



한국불교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10월27일부터 31일까지 제6차 해외성지순례를 캄보디아에서 봉행했다. 총무원장 송정스님을 비롯한 사대부중 90여 명은 힌두교 초기유적지 롤로오스사원과 세계문화유산 앙코르 유적지를 답사했다. 또한 왓보사원(주지 테본나사)을 방문해 상호방문 등을 논의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제5회 백제불교회관 신행단체 체육대회



제5회 백제불교회관 신행단체 연합체육대회가 10월 28일 대전 공무원 연수원 잔디광장에서 백제불교회관 관장 장고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참가한 대중들은 신행 단체와 불자 개개인이 서로 화합을 하여 내실 있는 지역 불교 전법도량으로 거듭나자"고 발원했다.

정수사 제1회 작은 산사음악회



예산 수덕사 대전포교당 정수사(주지 영보)가 10월 27일 제1회 작은 산사음악회를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가수 범능 스님과 대전대 코스모스 동아리의 노래, 정수사 합창단의 음성공양, 플루트와 통기타 연주 등이 펼쳐졌다.

심혈관질환 10년후 암 제치고 한국인 사망1위!
www.chgg.co.kr

병원에서 안되는 심혈관질환을 약이나 수술없이

氣血순환법으로 뿌리채 뽑는다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허혈성심장질환, 부정맥, 심근경색,
만성두통, 손발저림, 수족냉증, 불면증, 생리통을 氣血순환법으로 시원하게 날린다.
목,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을 싹~ 없앤다.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손, 발 저림 3~5일 이면 OK!

- 氣血순환법강좌 안내 -
5일 코스(12시간 완성)
● 오전반 : 10시 ~ 12시 30분(월~금)
● 오후반 : 14시 ~ 16시 30분(월~금)
본회와 지방지회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실시합니다.

기혈순환법은
최상의 유산소운동으로써 몸 안에 최대한의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시켜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강한 혈관 조직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숨이 차지않고 힘이들지 않습니다.
전화주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1993년 창립
천일의학기공 본회 02)3436-3206~7

■ 지방지회
영등포지회 : 02)3662-9088
수 원 지 회 : 031)298-1777
서 산 지 회 : 041)667-5966
광 주 지 회 : 062)222-1477
제 주 지 회 : 064)742-6467
영 주 지 회 : 054)637-9810
부산진구지회 : 051)553-3113
부산연제구지회 : 051)758-8275

천일의학기공을 만나는 날은
횡재하는 날입니다

수련회원에 가입하시면
○정화기 무료 증정!

미국 FDA가 의료기로 승인한 반지나 팔찌 중 1개증정

북한에서는 이 반지를 빛삼(빛의 산삼)반지라고 부르며
사향보다도 더 효과가 탁월하다고 조선중앙 텔레비전이
과학영화를 통해 소개한 ○정화기

〈메스컴보도〉
MBC통일전망대, KBS일요스페셜, 연합뉴스, 문화일보,
조선닷컴, 동아닷컴, 내일신문, 한국경제신문 보도

반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높은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도 손쉽게 몸에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스님과 불자님들의 성원으로
천일의학기공이 성장해왔습니다.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선물입니다.

*수련에 뜻은 있으나 시간이 없으신 분은 먼저 회원에 가입하시고 반지를 받아서 건강관리를 하시면서 시간이 나실 때 수련을 받으셔도 됩니다. (회원증 발급)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와서 믿는 것’아닌 ‘와서 보는 것’

e 해외불교칼럼



불교는 믿을 것을 강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보고 깨달을 것을 가르친다. 사진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법회 장면. <현대불교 자료사진>

종교를 바꾸는 것을 개종이라 하나, 사실 불교로 ‘개종’하는 사람이란 없다. 그들은 그저 불제자일 따름이다. 이 말이 헷갈리는 독자들을 위해 설명을 좀 덧붙이겠다. 붓다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위대한 스승이었다. 삼라만상의 본질을 꿰뚫어 큰 깨우침에 이른 그는 45년 남짓 곳곳을 누비며 온갖 사람들에게 복잡 미묘한 삶과 우주에 대해 빛나는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럼 이제 독자님들에게 묻겠다. 님들은 학교에 다닐 때 뭔가를 배우고자 스승들에게 ‘개종’했던가? 그리고 그들의 말씀이라면 그저 두 눈 질끈 감고 죄다 믿는 맹신자였던가?

그게 아니라면, 스승들의 말씀과 뜻이 앞뒤가 맞는지 먼저 이리저리 헤아려본 다음, 님들이 확신을 가질 때야 비로소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던가?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님께서는 이미 불제자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와서 보라(come and see)’고 할 뿐, ‘와서 믿으라(come and believe)’고 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무턱대고 들이미는 타 종교와의 근본차이다.

불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선택이자, 사성제와 팔정도, 불교 철학적 개념들에 대해 탐구 정진하겠다는 자기 약속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불법승 삼보에 기대어 나 스스로를 편히 쉬게 하는 것이다. 불교가 지닌 또 다른 특징은 신앙적 포용성이다. 그럼으로 누구든 자신의 종교를 굳이 안 바꾸고도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그 경이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모두가 잘 알듯, 붓다는 전 생애를 통해 신이라 자칭하거나 신처럼 행세하지 않았다.

해서 누구든 배교자로 몰리거나 엉터리 신을 믿는다는 등의 생트집에 말려들지 않고도 인간 붓다의 가르침을 얼마든지 배우고 따를 수 있다. 기독교인, 유태교인은 물론 무슬림 가운데 불제자들이 적잖은 까닭도 바로 그래서다.

먼저 스승 붓다의 참 모습을 바로 보고 우리 이웃에 자비심을 지니도록 하자. 또한 불서들을 읽고 법문도 들으며 온화한 심성을 키워가자. 그리하면 나 또한 어느덧 착한 불제자가 되어있음을 알리라.

편역=성휴 스님

이 글은 미국의 프리랜서 작가 및 각 분야 전문저술가의 온라인 등단지인 helium.com에서 발췌했다. **액스레이 맨**(xrayman)이란 id의 기고자는 불자이자 저술가다. 그는 자기공명 이미지 및 핵의학 계통의 엔지니어이며 현재 무선통신, 내비게이션 전문교육, 참고로, 이 등단자는 국제적으로 개방되고 채택된 원고는 시상 및 출판지원도 함으로 우리 불자님들도 두루 활용하시기 바란다.



버클리 불교 연구센터 엠블럼 로고.

불교연구 학생에 장학금

美 버클리 대학원

미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의 불교연구센터는 지난 8월부터 불교를 집중 연구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동 센터의 공동설립자이자 명예 교수인 파드마나브 제이니가 자신의 이름으로 설립한 장학기금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상당액의 이 기금은 인종, 종교와 출신국가에 무관하게 불교학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버클리의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지원된다.

제이니 교수는 버클리 재임에 앞서 영국 런던의 동양 아프리카연구원과 미시간대에 재임한바 있다. 로터스인더머드 lotusinthemud

태국 불교보호법안 심의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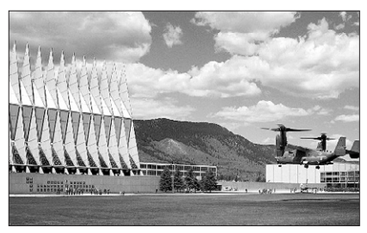
사찰 훼손 벌금형 등 내용 포함

태국 국회는 10월 25일 불교보호 법안을 정식 의제로 채택, 심의에 착수했다. 비구, 비구니 및 행자에 대한 성폭행 등 각종 범법행위를 엄단할 동 법안은 특히 최초로 비구니의 법적신분과 지위향상을 공식 인정하고 있다.

헌법상 불교를 태국의 국교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일부 의원 등 179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불교 및 부처를 왜곡 모욕하는 경우 최고 25년 징역, 사찰, 불구 및 불상 등의 훼손의 경우 최고 510만 바트 벌금형이 포함됐다.

또한 이들은 원로스님, 불교법률기구대표, 정부 각 부처의 고위급 상임위원들로 구성된 불교진흥보호협의회를 총리 직속 상설기구로 설치할 것을 상정했다.

방콕 포스트 The Bangkok Post



美 공군사관학교에 첫 불교 법당

10월 29일 콜로라도 현지시간으로 오후 1시 미 공군사관학교의 생도 종교관에 최초의 불교법당(사진 왼쪽 건물)이 봉헌됐다.

생도 및 내외 하객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대귀법당(Vast Refuge Dharma Hall)으로 공식 명명된 동 법당의 봉헌예불은 1959년도 입교 동기생인 윌리 버치 스님이 집전하고 성대한 축하 리셉션으로 이어졌다.

생도 신문에 따르면, 날로 증가하는 불자 생도들을 위한 법당은 전통 대승불교 법회를 정기 개최하며 장교 및 일반인에게도 개방된다.

월드 스타 불심도 스타

만능록스타 리키 마틴 3

“증오·미움 벗고 해탈의 길로…”

얽매이는 종교적 속성 거부
“타종교 비방은 악업 짓는 일”

리키 마틴은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저는 특정 종교에 매달리기 보다는, 여러 종교와 철학을 두루 섭렵해 제 삶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취사선택할 겁니다.” 이는 곧 인간을 은근히 얽어매 끌고 가려는 종교적 속성을 단연 거부한다는 공개선언이다.

이만큼 담담하고 정직한 신앙고백이 또 있을까? 종교마저 하나의 구속으로 보는 그는 가히 완벽한 자유인이자, 종교 개혁이란 마틴 루터만의 전유물일 수 없음을 강조하는 듯하다. 사실 그는 모태신앙인 가톨릭은 물론 이른바 사이비 이단으로 낙인이 찍힌 모 개신교 유파를 비롯해 유태교와 힌두교 등에 깊은 식견을 지닌 숨은 비교종교학자다.

그리고 또 다른 할리우드 불자인 비스티 보이즈의 애덤요크와 엘라니스 모리세트처럼 ‘영혼의 충전’을 위해 동양여행을 떠난 일종의 성지순례자이기도 하다. 그는 그렇듯 열린 마음과 열린 가슴으로 자기의 길을 헤쳐 마침내 불문에 들어선 당당한 카리스마를 지닌 불자로서, 덩달아 박수치고 노래하고 악쓰고 울다가 얼떨결에 ‘믿습니다’라고 따라하지 않았다. ‘눈 먼 믿음’이 아닌 ‘눈 뜬 믿음’을 스스로 찾아낸 그는 타고난 리더이다.

즉, 내 골은 쏟아버리고 남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자기 사고 포기형 쵤부지가 아닌 것이다. 현재 불자든 아니든 수많은 서구인들은 리키 마틴과 같은 생각이다. ‘왜 내가 죄인이고, 누구의 종이며, 내 일생 내내 누군가에게 주눅들어 살아야 하나?’ 그러다 보니 심지어 이런 우스개까지 나오는 판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면 신생아실은 영아 교도소며, 장례식은 신나는 축제란 건가? 게다가 도대체 어느 못된 부모가 자식을 죄인에다 종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지? 나 원 참.’ 이 모든 것에 대해, 불교는 그들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개안수술을 도울뿐더러, 내 자신의 주인은 바로 나(I am the Master of My Self)임을 일깨워 준다. 시퍼런 독기가 서린 영혼장사치들이 바글대는 ‘종교 시장’에서 얼떨결 충동구매가 아니라 침착하고 냉정한 안목으로 선택하도록 이미 2500년 간 전해온 종교라는 ‘영혼상품’의 쇼핑 지침서를 새삼 공개한 리키 마틴, 그는 역시 붓다의 수제자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저는 어느 종교가 우월하다, 또는 열등하다고 말하는 얼빠진 바보는 아니죠.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몹쓸 카르마가 바로 타인의 종교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불교가 정말 제 마음에 와 닿아요. 제가 훌륭한 불자는 못될지라도 이젠 더 이상 다른 종교엔 관심 없어요.”

역시 불제자인 제니퍼 로페즈와 더불어 히스패닉을 대표하는 메가스타인 리키 마틴은 노래와 자비희사를 가득 채운 미국과 중남미 포교의 거대 견인차이도 하다. 그는 불문에 들어서면서부터 한때 멀어졌던 아버지와 뼈아픈 공백을 새롭게 채워가고 있다.

“오늘도 저는 아버님과 다시 한 발짝 더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영원한 자유인 리키 마틴은 마침내 미운 아버지와 화해했다. 그러나 그보다 증오와 분노라는 끈질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스스로를 풀어준 또 한 번의 자기해방, 곧 해탈을 이룬 것이다. <끝>

We must free ourselves of hatred and anger in order to achieve real peace and joy. – the Dalai Lama

증오와 분노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 – 달라이 라마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⑨
(修習止觀坐禪法要)

總說 7 우리의 마음에는 세 종류의 커다란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가 홀연히 용솟음치듯 나타나면
공 · 가 · 중 삼제의 이치 전체가 철저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무상보리과를 끝까지 증득한다는 것이다

정식수행 · 보조수행 병행
일체 선근공덕으로 귀결

4. 조화(調和)

안과 밖을 이미 말끔히 정리했다면 다음으로는 다섯 가지를 알맞게 조화해야 한다. 첫째 음식은 너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포만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하며, 두 번째는 수면을 알맞게 조화해야하며, 세 번째는 몸을 너무 느슨하거나 또는 딱딱하게 조이지 않도록 조화해야 하며, 네 번째는 호흡을 거칠지도 매끄럽지도 않게 조화해야 하며, 다섯 번째는 마음이 들뜨거나 너무 가라앉지 않게 조화해야만 한다.

이처럼 몸과 마음이 알맞게 조절이 되어야만 다음에 나오는 다섯 가지 지관방편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다.

5. 방편행(方便行)

욕(欲) · 염(念) · 진(進) · 혜(慧) · 일심(一心) 등 이 다섯은 지관수행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훌륭한 방편이다. 방편이란 지관을 정식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훌륭한 밑받침, 즉 보조수행이라는 의미다. 이 같은 방편행을 빠짐없이 갖추어야만 지관공부로 진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으로 지관을 정식으로 수행하는 정수(正修)를 밝혔다.

6. 정수(正修)

지관을 정식 수행하는 방법은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앉아서 수행하는 좌중수(坐中修)와 인연 따라 경계를 마주하며 수행하는 역연대경수(歷緣對境修)이다. 그 의미는 본론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정식수행인 '정수'와 보조수행인 '방편'을 빠짐없이 갖추어야만 지관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선근공덕이 개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생들은 무시이래로 갖가지 선근공덕을 점진적인 측면에서나 단박적인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적으로 본래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온갖 번뇌에 오염되고 뒤덮였기 때문에 현재 발현하지 않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 이치를 알고 지관을 수행한다면 일체 선근공덕이 개발될 수 있으므로 다음으로 선근이 개발되는 문제를 말하였다.

7. 발선근(發善根)

수행하는 도중 선근이 발동할 때 자신의 마음에 쌓인 무시이래의 업식 종자가 동요하면 모든 마군이 수행인이 생사를 벗어나 성불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마군권속이 내 마음밖에 별도의 모습으로 실재한 모습으로 찾아와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수행하는 마음속에서 일으킨 분별일 뿐이다. 이른바 "도가 한 길 높아지면 마군은 열 길이나 높아진다"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수행인이 이를 알았다면 반드시 그 실체를 미리 깨닫고 예방을 해야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군경계에 현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마군의 경계를 깨달으라는 문제를 말하였다.

8. 명마각(明魔覺)

수행인이 마군의 경계를 살피고 깨달아 그 실체를 알았다곤 하나 사바세계 중생들은 무시이래로 쌓은 업장이 수미산보다도 높고 두텁다 한다. 그러므로 한번 크게 조복 받지 않는다면 온갖 마군의 병통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병통이 일어나면 수행진수에 있어서 장애가 일어나 이것이 도를 장애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다음으로 병환을 대치하는 방편을 밝혔다.

9. 대치병환(對治病患)

이미 마군이 사라지고 병환도 말끔히 제거됐다면 수행인이 진실한 지관공부를 하여 반드시 도를 증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으로 과보를 증득하는 문제를 최후로 밝혔다.

10. 증과(證果)

진실한 공부를 통해 불도를 성취하는 것을 비유하면 마치 물이 모이면 시냇물을 이루는 것과도 같다. 우리 자신의 마음에는 세 종류의 커다란 지혜가 있다. 이 지혜가 홀연히 용솟음치듯 나타나면 공 · 가 · 중 삼제의 이치 전체가 철저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무상보리과를 끝까지 증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후에 증과문으로서 결론을 맺고 있다.

今略擧此十意 以明修止觀者 此是初心學坐之急要

지금까지 열 가지 의미를 총략적으로 열거하여 지관을 수행하는 방법과 지관인과의 시말까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밝혔다. 이는 처음으로 발심한 수행인이 좌선을 배우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편리하고 가장 긴요한 절실한 법문이다.

若能善取其意而修習之 可以安心免難

수행인이 그 의미를 훌륭하게 간파하고 지관을 수습한다면 작게는 그 마음이 편안하게 안정되어 환란을 면할 수 있다. 가령 그 예를 하나 든다면 지자 대사의 속가형인 진침(陳鍼)이 지관을 유루법으로 수습하여 단명의 근심에서 벗어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發定生解 證於無漏之聖果也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관을 무루의 마음으로 수행하면 지수행을 통해서 선정이 일어나고 관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발현된다. 이처럼 지관을 쌍으로 운행하고 정혜가 평등하게 발현하면 그 때에 이르러서야 무루의 성과를 끝까지 증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것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무루의 성과로 소승인이 공쪽으로 치우친 편협한 무루의 성과가 아니라 대승 중도 무루대열반으로서 성과라는 점이다.

이로써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자 대사께선 오직 일대사인연인 중생제도를 위해 지관을 설함으로써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견(知見)을 개시오입(開示悟入)했을 뿐이다. 이상으로 지관총설은 일단락 짓고 다음호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번뇌의 종류-탐심①

1. 貪心(탐애)

근본번뇌 여섯 종류 가운데 우선 탐심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탐심이란 목전에 떠오른 모든 대상의 경계마다 탐애심을 일으키고, 그 대상에 번뇌로 깊이 오염되고 집착하는 순간순간의 심리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모든 중생들은 잘라잘라 끝없이 대상경계에 대해 탐심을 일으키므로 그 수를 이루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 요점을 정리하면 탐심은 크게 여덟 종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자체탐(自體貪)

자체란 우리의 신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의 일상적인 감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에게만은 유난히 애착이 강해 자기 신체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리는 집착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체탐이라고 합니다. 자체탐은 하등동물에게서 그 정도가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대상경계에 끝없이 집착하는 마음
자체탐 · 후유탐등 여덟종류로 분류

2) 후유탐(後有貪)

후유탐은 우리의 생명이 금생에서 후생으로 단절 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탐심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자체탐에서 따로 구별해서 분류한 탐심입니다.

예를 들면 단멸의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은 금생보다는 내생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후생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생명이 이어지길 바라는 측면에서 후유탐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자체탐이 후유탐으로 연결되는 현상일 뿐입니다.

3) 사속탐(嗣續貪)

모든 유생류(有生類)가 자기 종자만은 영원히 단절되지 않고 후세까지 무궁하게 유전되기를 추구하는 탐심을 말합니다.

4) 남녀탐(男女貪)

모든 생류(生類)들은 음욕을 즐기고 그것에 강하게 집착하는데 이것을 남녀탐이라고 말합니다. 남녀의 욕구에 대한 것은 소설 · 시 등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심지어 세상을 초월한 신선의 경지에서도 천상의 선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를 두고 보더라도 모든 중생들에게 '남녀탐'이 얼마나 지중한가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황토방을 사찰로 운영하실 분을 찾습니다

광주에서 20여분 거리에 위치한 이곳 화순군 남면 벽송리 황토방은 산세가 수려하고 조용한 곳으로 황토방을 운영하였으나 주위 여건이 사찰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지금은 삼존불이 봉안하여 법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방 · 욕실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서 수련원이나 선방, 요양원으로 운영을 해도 아무런 손색이 없으며 즉시 법회도 가능합니다.
임시 사찰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개인 사정상 운영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사찰을 운영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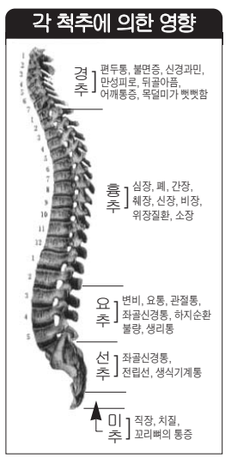
- 위 치 : 전남 화순군 남면 벽송리 799. 799-1. 799-2번지 (광주에서 20분 거리)
- 면 적 : 실평수(약 600여평) 법당포함 건축물 7동 (합계 : 약120평)
- 공부상 면적 : 대지(365평), 건축면적(59평)
- 매 매 가 액 : 3억 5천만원(급매)

☎ 011-612-6104/061)371-0330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 특강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특 전 속 성 반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기 간 : 2007년 11월 13일 부터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2시~5시)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2시~5시)
- 부산연수원 :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 수련비용 : 4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제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운동처방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불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영남범패학인모집

[영남범패 불음원]에서는 영남범패 의식을 6개월 과정으로 탁마할 학인스님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여 개강하고자 합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자 격 : 삭발염의한 스님〈일반불자 제외〉
- ◆개강일 : 2007년 11월 12일 오후 3시 〈주2회 월 · 목〉
- ◆수강일 : 매주 월 · 목요일 오후 3시(주2회)
- ◆장 소 :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내 406호 (불음원)
- ◆과 목 :
  기초반 - 예경의식 및 사시불공 등
  중급반 - 사십구재의식 및 사물 다루는 법
  고급반 - 바라 및 승무 작법
- ◆강 사 : 원명스님 〈011-867-8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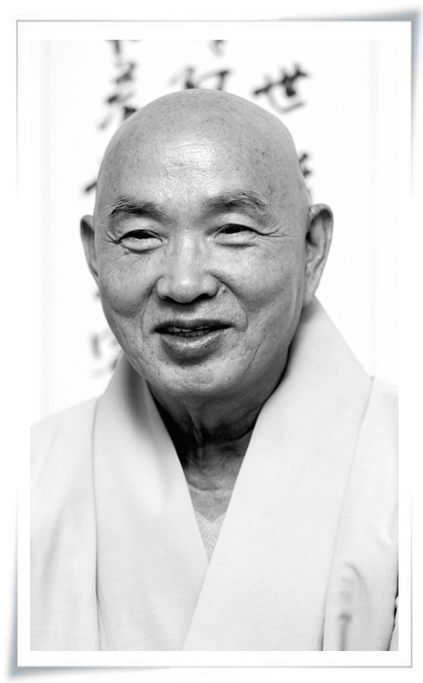
영 남 범 패 불 음 원

“넘치는 ‘만족’ 보다 부족한 ‘지족’ 배워야”

〈滿足〉 〈知足〉

선지식을 찾아서 도영

도영 스님은 1939년 출생. 1961년 금산사에서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합천 해인사와 통도사선원에서 5하안거를 성만했으며 이후 1967년 금산사 총무국장, 1969년 김제 흥복사 주지 소임을 맡았다. 1980년, 1984년, 1994년 세 번에 걸쳐 김제 금산사 주지에 취임했으며 제8·9·10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2001년 조계종 포교원장에 취임한 후 임기 5년을 채운 첫 포교원장으로 2006년 9월 퇴임했다. 1994년부터 대전 죽림정사 회주를, 2001년부터 완주 송광사 주지를 맡고 있다.



도영 스님 (완주 송광사 주지)

산하대지에 가을빛이 완연하다. 학계 · 정계를 가리지 않는 비리 파문이나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등으로 세상은 어지럽지만, ‘자연(自然)’은 우주의 법칙에 따라 곡식을 익히고 열매를 영글게 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기운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있다.

10월 30일, 추수가 끝난 들판을 따라 완주 송광사를 찾았다. 지난해 9월 조계종 포교원장 소임을 내려놓은 도영 스님을 뵙기 위해서다. 포교원이 별원으로 승격된 후 처음으로 5년 임기를 채운 스님은, 이곳에서도 ‘포교’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날도 두 차례의 법회와 약속 중간에 어렵게 짬을 내 기자를 맞았다.

“여전히 바쁘세요?”

“<벽암록>에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소임을 맡고 있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전국 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을 퇴임한 후 지난 1년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조계종 교무부장과 포교원장 소임을 맡아 거의 10년 가까이 종단 일을 봤습니다. 그러다보니 제 스스로 ‘안살림’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임 하자마자 지난해 10월 백담사 무문관에 들었습니다. 석 달 동안 정진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자기 수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해제 후에는 송광사로 돌아와 지역 포교도량을 꾸리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머물고 있는 완주 송광사는 신라 때 도의 선사가 세웠다고 전해지는 고찰로, 임진왜란 때 폐사된 후 1636년 재건됐다. 스님은 2001년 송광사 주지로 부임한 후 ‘동네 속의 절’로서 지역 주민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가람을 정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찰 인근의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정신요양시설을 인수해 복지사업에도 나서고 있다.

스님은 송광사를 ‘공원 같은 절’로 꾸미고자 한다. 전각 사이사이 마다 나무와 꽃을 심고 곳곳에 의자와 정자를 두었다. ‘구경하고 가는 절’이 아니라 편히 쉬며 부처님 말씀을 되새겨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다.

“몇 년 전만해도 300가구 정도 되는 사하촌 주민 대부분이 교회에 다녔어요. 종교가 달라도 절은 언제든지 찾아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주민들에게 다가갔지요.”

매일 새벽예불을 마치고 마을 인근을 돌아보는 스님은 새벽기도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절과 단절된 채 살아왔던 마을 주민들을 위해 어르신 경로잔치를 열고 부처님오신날에는 마을 잔치를 겸한 공연도 펼쳤다. 그러는 동안 스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은 많은 사람들이 ‘결핍감’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현대인들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지요. 하지만 풍족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못 가진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니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요. 또한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 남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님은 ‘만족(滿足)’이라는 말 대신 ‘지족(知足)’이라는 말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득차고 넘쳐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족함을 알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이에 ‘5-3=2’이라고 썼다. 사람들 사이에는 오해가 있는데, 이것을 상대의 입장에서 세 번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는 뜻이라고 한다.



‘공원같은 절’로 지역민과 유대 강화 정신요양시설 인수 등 복지사업도 “죽는 날까지 포교사 소임 다할 것”

“불교는 믿음과 수행의 종교입니다. 믿음만 있다고 불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수행해야 참된 불자이지요. 불교에는 기도와 참선, 절, 간경 등 다양한 수행의 길이 있습니다. 사찰은 모든 수행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심명>에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부처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어 스님은 ‘일념(一念)’의 도리를 설명했다.

“일념이 되지 않으면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참선을 할 때나 경을 읽을 때도 일념이 되어야 합니다. 일념이 된 자가 주인답게 살고, 주인답게 사는 자가 보살도를 실천하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자가 필경에는 부처를 이룹니다.”

문제는 역시 마음이다. 법문을 듣고 경전을 읽어도 느끼는 것은 잠시일 뿐, 생활에 쫓기다보면 자신의 주위에는 짜증나고 화나는 일 뿐인 것 같다.

“한 번 웃어보세요.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인생의 고통과 즐거움은 어떤 조건이 있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좇아서 일어납니다. 우리 말 중에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자라고 한다면 자신이 먼저 웃는 얼굴로 남을 대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또 웃을 일이 생기지요.”

하지만 최근 불교계에 휘몰아친 여러 사건들은 불자들에게서 ‘웃을 일’을 앗아간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다.

“한 스님이 얼마 전 방송된 PD수첩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리기가 민망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봉암사 결사에서도 보듯 수행자들의 지표는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수행자들이 먼저 부처님 법대로 살아야 불자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지요.”

불자들에게는 불교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현상만이 아닌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보라고 당부한다. 스님 탓, 불교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 그 자리에서 먼저 불자답게 살라는 것이다.

“재가불자들에게 있어 깨달음이란 현실에서 남에게 이익을 주고 상처를 주지 않도록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 죽음이 없는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불자라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불자다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떠나는 날까지 열심히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소임”이라는 스님과 송광사 경내를 둘러보며 인터뷰를 마쳤다. 종남산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사찰 공양간과 마을 집에서 밥 짓는 연기가 오른다. 송광사에서 절과 마을은 그렇게 한 땅에 발을 딛고 있었다.

완주/글=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관음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천주사**

한글주소: 천주사

참 생명의 모습을 나툴 수 있는 영원(永遠)의 길지(吉地)!

“하늘을 바치는 산” 이라고 하는 천주산(天柱山),
천주봉(天柱峰) 아래 천주사(天柱寺)!

천주산(天柱山)은 ‘하늘을 받치는 산’ 또는 ‘하늘을 여는 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그냥 오르고 싶어집니다.
이는 무한히 전진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상과 기상이 활달 자재한 대광명의 세계에 이르고자함입니다. 천주산 천주사는 중생의 막힌 삶의 모든 부분을 부처님의 지혜와 관음보살의 대자비로서 밝고 훤하게 열어 줄 것입니다.

■ 천주사에 전화 주시면 찾아오시는길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요시간 : 서울 2시간 30분, 대구 1시간 30분, 부산 4시간)
성지순례 사찰
홈페이지 www.chunjusa.org 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도문의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 257-1번지





경북 문경에 위치한 가족 납골탑 묘원 **천주산 천주사 관음영탑 공원**



영탑은 불교스님들의 장례법으로 천주산 천주사에서 영탑을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명당(明堂)을 찾거나 묘지(墓地)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일 없이
자손만대(子孫萬代)로 이어지는
효(孝)의 실천(實踐)을 이룩하기위한

천주산(天柱山), 영산(靈山), 명지(明地)의
관음영탑묘원(觀音靈塔墓園)

우주일심(宇宙一心)이요, 천지일심(天地一心)이며,
세계일심(世界一心)이니, 자타(自他)가 곧 한마음이라
영(靈)과 육(肉)이 또한 둘이 아니니,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닌(生死佛二)까닭입니다.

◈ 분양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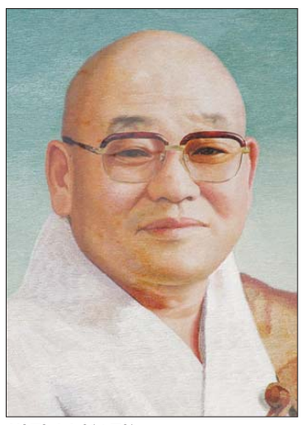
북한 만수대 창작사 자수 30% 할인 한정 판매

세계에 단 하나 뿐인 명품... 시간 지날수록 그 진가는 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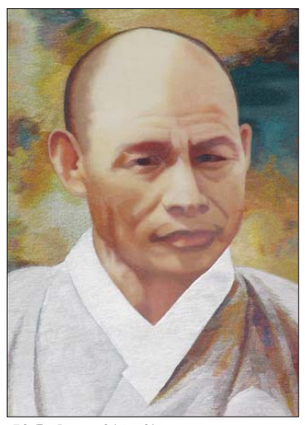
국내의 전통자수는 고임금 고효율의 사회변화로 70년대 이후 한복자수와 특수한 목적의 종교화 등 몇 안 되는 분야에서 근근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자수는 만수대 창작사 소속 1천2백여 수예창작단이 전통자수 외에 핸드포토(초상자수), 종교화, 소품 등으로 그 범위를 확산시켜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근세예술의 극치' 라고 인정받고 있다.

손자수의 예술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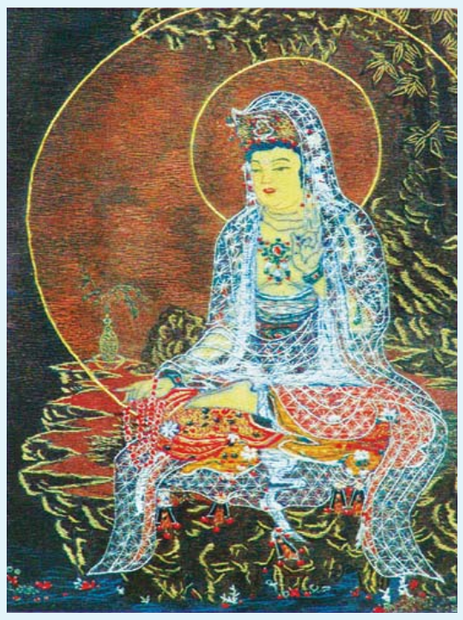
핸드포토는 한가지 대상을 놓고 100점을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자수를 놓는 장인의 해석과 개성에 따라 각각 다른 감각과 질의 성품을 지닌 작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세계에 단 하나 뿐인 명품으로 탄생하게 된다. 동양의 사상문화가 다시 조명 받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동양의 문화예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만수대 창작사' 의 초상자수는 외국에서 더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가를 더하게 될 것이다.



법장스님(1점)
◆자수 크기 : 58(가로)cm×78(세로)cm
◆액자 크기 : 76(가로)cm×106(세로)cm
◆정상 가격 : ~~1,000,000~~ → 700,000원



한용운스님(1점)
◆자수 크기 : 58(가로)cm×78(세로)cm
◆액자 크기 : 78(가로)cm×98(세로)cm
◆정상 가격 : ~~1,000,000~~ → 700,000원



수월관음大(1점)
◆자수 크기 : 82.5(가로)cm×152(세로)cm
◆액자 크기 : 110(가로)cm×178(세로)cm
◆정상 가격 : ~~3,000,000~~ →
2,1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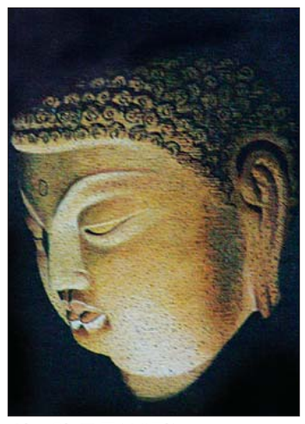
수월관음小(7점)
◆자수 크기 : 14(가로)cm×19(세로)cm
◆액자 크기 : 46(가로)cm×41(세로)cm
◆정상 가격 : ~~150,000~~ → 105,000원



백의관음(3점)
◆자수 크기 : 14(가로)cm×19(세로)cm
◆액자 크기 : 41(가로)cm×46(세로)cm
◆정상 가격 : ~~150,000~~ → 10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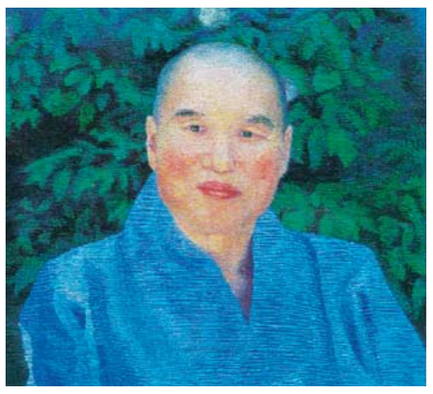
지장보살(3점)
◆자수 크기 : 9(가로)cm×23.5(세로)cm
◆액자 크기 : 31(가로)cm× 36(세로)cm
◆정상 가격 : ~~150,000~~ → 105,000원



석굴암 불두(12점)
◆자수 크기 : 14(가로)cm×19(세로)cm
◆액자 크기 : 46(가로)cm×41(세로)cm
◆정상 가격 : ~~150,000~~ → 105,000원



성철스님1-양산(10점)
◆자수 크기 : 14(가로)cm×19(세로)cm
◆액자 크기 : 46(가로)cm×41(세로)cm
◆정상 가격 : ~~150,000~~ → 105,000원



성철스님2-정원(3점)
◆자수 크기 : 19(가로)cm×14(세로)cm
◆액자 크기 : 46(가로)cm×41(세로)cm
◆정상 가격 : ~~150,000~~ → 105,000원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증전



김광식선생 경면주사 반야심경
◆기증자 : 김광식 선생 ◆작품 크기 : 36×41cm
◆가격 : 150,000원



현해스님 달마도
◆기증자 : 현해스님 ◆작품 크기 : 26×34cm
◆가격 : 75,000원



현해스님 복하도
◆기증자 : 현해스님 ◆작품 크기 : 26×34cm
◆가격 : 75,000원



지족스님기증 진언 2점
◆작품크기 : 34×110cm
◆가격 :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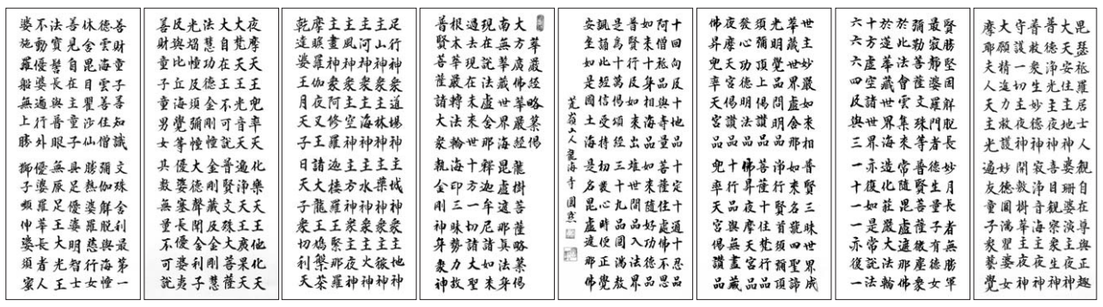
지족스님기증 글씨
◆작품크기 : 33×116cm
◆가격 : 500,000원



법흥스님 글씨2점
◆작품크기 : 33×138cm
◆가격 : 500,000원



활안스님 오도송 2점
◆작품크기 : 33×103cm
◆가격 : 1,000,000원



지족스님 기증 화엄경 약찬게 8폭 병풍 ◆기증자 : 지족스님 ◆작품 크기 : 33×63cm ◆가격 : 1,000,000원



금강경 금니 10폭 병풍 ◆앞 : 부모은중경금니 뒤 : 반야심경 ◆가격 : 2,000,000원



벽암스님(전 신원사 조실)금니 글씨 1점
◆기증자 : 이란 ◆작품 크기 : 32×113cm
◆가격 : 1,000,000원



원법스님(태고종 원로의원) 글씨 1점
◆기증자 : 원법스님 ◆작품 크기 : 26×100cm
◆가격 : 5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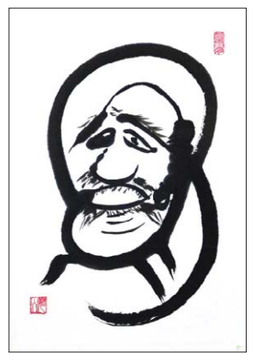
묵산스님 글씨
◆기증자 : 묵산스님 ◆작품 크기 : 33×115cm
◆가격 : 350,000원



도건스님 달마도
◆작품 크기 : 38×67cm
◆가격 : 150,000원



도건스님 금니달마도
◆작품 크기 : 35×50cm
◆가격 : 150,000원



묵산스님 달마도1점
◆작품 크기 : 35×50cm
◆가격 : 150,000원



수증스님 그림 족자
◆작품 크기 : 19×45cm
◆가격 : 150,000원


봉덕리 마을 전경.

물은 여전히 맑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32 가지산 보림사


장흥 보림사 대적광전과 삼층석탑.


보조 국사 창성탑에서 바라본 보림사.

장흥댐 건설로 인해 면 소재지가 있던 곳은 물에 잠겼다. 이미 수장되어 버린 옛 마을들을 떠올려 보지만, 푸른 물만 출렁거리고 있어서 마을 있던 자리를 짐작하기도 어렵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실감난다. 선종종찰이라는 표지석을 지나 보림사로 향한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다. 건물만 남은 찻집에는 사람 냄새가 없고, 찻집 주차장에는 풀이 우거져 있다. 여관이나 음식점들도 텅 비어 있다. 더구나 많은 건물들이 뜯기고 있다.

"주차장 자리는 논이었어요. 논 뒤에 열 세 가구가 있었어요. 주차장 만들 때 다 뜯겼지요."

아직 현판을 달지 않은 일주문을 지나 한참 들어가자, 절 앞 주차장이 나온다. 주차장 한쪽은 절담에 닿아있고, 다른 한 쪽은 봉덕 마을이다. 예전에는 20가구 정도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와보니 네댓 가구 밖에 남아 있지 않다.

"여기가 네 집, 저기가 열세 집. 전체 다 해서 열일곱 가구 되나."

봉덕리는 꽤 큰 마을이다. 그 중 사하촌이라 불릴만한 곳이 봉덕1구인데, 절과 붙어 있는 곳은 예전부터 있었던 마을이고, 일주문 아래의 상가는 새로 들어선 건물이다. 그런데 두 곳이 다 사라지고 있다.

"군청에서 감정 평가한 사람이 와서 경내를 깨끗하게 정비한다고 주민 동의 받아서, 논은 보상 안 해주고, 주택은 보상 끝났어요. 단체로 안 나가면 버텼을 것인데, 노인들이 다 나간다 해가지고."

문옥임(62, 봉덕1구)씨의 말이다. 그렇다면 일주문 밖에 있는 상가들은 왜 뜯기는 거냐고 물으니, "거기는 수자원 공사 차원에서 한 것이고"라고 말한다.

옛 마을은 사찰 정비 사업으로 뜯기고, 새로 들어섰던 상가들은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이주를 권하고 있다. 이제 얼마 후면 보림사 아래쪽에는 사람 사는 집이 한 채도 남지 않게 생겼다.

"이름도 모르게 속가는 있었어요. 스님 마누라들은 없었어. 여기는 대처승이 없었어요. 시간 있으면 일도 해주고 그라고 사십디다."

문씨가 말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김연심(40)씨가 어렸을 때의 추억을 말한다.

"전에는 절 안에 연못이 있었어요. 글고 절 안에 큰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어려서는 절 주지스님한테 세배도 가고, 그러면 주지스님이 세뱃돈도 주고, 어려서 놀러가고 그러면 재지내고 나면 공양주가 불러 음식도 주고 그랬제. 스님들이 불러서 음식도 주고."

성과 속이 한 마을을 이루어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다.

마을의 존립에는 무심한 듯, 봉덕계곡의 물은 여전히 맑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신라 말, 구산선문의 종찰로 크게 사세를 떨친 보림사이지만, 처음부터 선종사찰은 아니었다.

759년 원표대덕이 인도 보림사와 중국 보림사를 거쳐 이곳에 이르러, 참선을 하고 있는데, 선녀가 나타나 자기가 살고 있는 못에 아홉 마리의 용이 있어 살기 힘들다고 하였다. 이에 원표대덕이 부적을 써서 다 쫓아내었는데, 유독 백룡만이 끝까지 버티었다. 이에 더욱 주문을 외웠더니, 마침내 백룡도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쳤다한다. 그래서 보림사 인근에는 용과 관련된 지명이 많다. 용이 피를 흘리며 도망갔다는 피재, 용의 형상이라는 용두산. 그리고 청룡리, 용문소 등이 그것이다. 그 후 용이 살던 연못을 매워 절을 짓고 가지산사라 하였다.

그로부터 100여년이 지나 보조 국사 체징이 헌안왕의 뜻을 받들어 이곳에 구산선문 종문인 가지산문의 문을 열었는데, 보조 국사는 한국 조계종 종조인 도의 선사의 법맥을 이은 분이다.

국보 제44호로 지정되어 있는 보림사 3층 석탑은 동탑과 서탑을 비롯하여 석등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귀중한 문화재이다.

천년 이상 된 철조비로자나불을 모신 대적광전은 새로 지은 것이다. 이전에는 더 작은 규모로 비로전이 있었는데, 대적광전을 새로 지어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건물은 옆으로 옮겨 명부전을 조성하였다.

몇 년 사이에 이처럼 중창불사가 활발한 절도 드물 것이다. 주지 현광 스님의 원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선문 종찰의 위상을 세우려 너무 노력을 한 때문일까. 노스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한다. 속히 쾌차하여 쩌렁쩌렁한 선승의 기풍을 보여 주었으면 하고 바라본다.

장흥=이대흠(수필가 · 본지 객원기자)

정통 서예가로 최근 부작 서예전 열어

부작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서예가 치인 이봉준



부작(符作) 혹은 부적(符籍)은 불가, 도가, 무속 등에서 어떤 불가사의한 영적 힘이 있다고 믿는다. 그런 부작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이가 있다. 치인 이봉준(痴人 李奉俊, 59 · 사진)선생이다. 강암 서예 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이어 김생 서예 대전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정통 서예가로 이름 높은 그가 최근 부작 서예전을 열어 화제가 되었다.

각종 부작 중 기복부 12종을 엄선하여 정성껏 사봉 하였다는 작품들. 이미 눈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가를 이루었다고 평가 받아온 그의 작품이다. 전시되어 있는 작품에서는 대가의 자유로운 필법이 돋보인다.

그는 만학도다. 서른 즈음에 글씨에 빠져 지금까지 정진해 왔다. 그는 글씨 쓰는 것에만 열심인 것이 아니라, 서법 연구에도 충실하였다. 다양한 서체를 연구해온 그는, 특히 신라 고비와 갑골문에 관심이 많다. 이러한 노력으로 <위비의 서법 예술>과 <서법대관>이라는 저서도 펴낸 바 있다.

"관요에서 구워 낸 자기가 아닌 솜씨 부리지 않는 분청사기 같은 글씨를 쓰고 싶어요. 그냥 부뚜막에 덩그러니 걸린 벌가마 같은 글씨……"

그런 마음이 잘 익어서일까. 작품 한 점 한 점이 질박하고 품격 있는데다 자유로움마저 느껴진다. 단순한 부작이 아니라, 예술혼이 담긴 빼어난 예술 작품이다.

그는 작품에 임할 때 한 가지 절차를 밟는다. 먼저 몸을 정결히 하고, 자시에서 축시까지 백팔 배를 한 후 글씨를 쓴다. 그가 빙그레 웃으며 자신이 모시는 미륵부처라며 자연석 하나를 보여준다. 정말 마애불처럼 자연스레 앉아있는 부처님의 모습이 그의 지성을 안다는 듯이 미소를 머금고 있다.



그는 당분간 대중을 위해 액자 값 정도의 소액만 받고 부작 작품을 나누어 줄 생각이다. 모든 이의 가정이 불심으로 평온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계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돌침대, 흙침대 전문기업

(주)장수구들 이 만든

www.geubooki.co.kr

한글도메인 | 거북이표건강침대,장수구들

장수하는 거북이 옥돌침대 흙 침 대

'불기 2551년,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 불자기업이 만듭니다.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시는 스님이나 부모님께 건강침대를 선물하세요

거북이표 흙침대



서울본사전시장 412-2574~5(代)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97-2 (구송파사거리)



➤ 지하철 8호선 송파역1번출구 잠실방향100M 우측

하남물류전시장 (02) 3402-2520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하훼단지맞은편



➤서하남입구사거리 오금동 화훼단지맞은편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제외/배송비별도)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님께 배송해 드립니다.

강릉점 (033) 651-5223

대구점 (053) 586-0202

제주점 (064) 743-2366

취급점 및 대리점모집 02)487-1097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서울국립중앙박물관
일본 사가현 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2007년도 기획특별전 '요시노가리, 일본 속의 고대 한국'을 12월 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00년 전의 한·일 양국 문물을 비교 전시하는 최초의 기획특별전으로 양국의 유물 600여점이 전시된다. (02)2077-9000

강동어린이회관에서는
'건강한 가정 만들기' 부모 및 보육교사를 위한 강좌를 실시한다. 대상은 부모 및 보육교사며 선착순 50명이다. 일시는 11월 7일, 13일, 27일이며 아동을 위한 양성평등 강의도 함께 이뤄진다. 신청은 홈페이지(www.gdkids.or.kr)에서. (02)484-3517~8

용인여성회관에서는
여성회관과 마당세실 공동주최로 어린이 뮤지컬 '날아라 호빵맨'이 11월 11일 오후 1시와 3시에 공연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뮤지컬로 만들어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관람대상은 3세 이상이다. (02)324-8994~5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의 '우리 아이와 함께 하는 전통문화 순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체험활동과 유적답사를 연계하여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심어주는데 목적을 둔다. 교육은 11월 17일, 24일 있으며 신청은 문화담당실에서 11월 9일까지 받는다.(051)510-3607

전주시 일대에서는
11월 7~14일 '아시아-아프리카문학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이 행사에서는 아프리카 작가와 한국작가들이 대거 참여, 평화를 위한 문학 연대 행사를 펼친다. 특히 초등부와 고등부 백일장대회도 함께 열어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다. 자세한 행사 일정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www.aalf.net)에서.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이얍! 더 높이 뛰자!"


"천연 비누 만들기 재미있어요."

뛰는 재미, 함께하는 재미, 가을운동회!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서울경인 체육대회

10월 28일 서울 광장중학교. 만국기가 팔랑거리는 운동장과 노란 잎으로 물든 은행나무들이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겨 낸다. 이날은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 이하 파라미타) 서울경인지부 체육대회가 열린 날이다.

일요일이라 학교 주변은 조용하다. 그러나 하나 둘 각 사찰 파라미타 청소년들이 들어서자 금세 왁자지껄해진다. 150명이 넘는 청소년들과 법사스님, 지도교사들까지 모였으니 그럴 만도 하다.

파라미타에서는 청소년들을 모두 섞어 팀을 만들었다. 팀 이름은 '보현'·'문수'·'관음'이다. 이 기회에 다른 사찰 친구들도 만나보라는 의미에서 조를 편성한 것이다.

"애들이 낯을 좀 가리다가도 여러 가지 게임을 하다 보면 금세 친해져요. 괜찮아요."

파라미타 권민희 팀장이 청소년들을 향해 크게 웃어 보인다. 그러고는 우왕좌왕하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운동장 한쪽에 설치돼 있는 천막으로 간다.

천막에서는 비누만들기, 천연염색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청소년 여드름에 좋은 '숯'비누가 그 중 인기 '짱'이다. 비누 베이스를 녹여 숯가루를 잘 섞어 틀에 부으면 완성!

운동장에서도 몸풀이 체조며 파도타기 응원 등이 펼쳐진다. 청소년들에게 한창 인기 있는 빅뱅의 '거짓말', 원더걸스의 '텔미' 등의 가요가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자 아이들은 절로 신이 나는지 몸을 흔든다.

본격적인 경기는 오후에 시작됐다. 게임 종목은 농구·발야구·축구 등 대부분 단체구기종목이다.

특이하게 '6인6각'이라는 게임이 있다. 구멍이 6개 뚫린 판에 6명이 각각 한쪽 발을 집어넣고 함께 달려야 한다. 서로의 발이 묶여있으니 구령에 맞춰 발도 맞추고 마음도 맞춰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야, 야. 구령에 맞춰서 움직여~."

문수팀이 조금 뒤떨어지려 하자 지도교사들이 달려온다. 아이들은 "선생님, 내 발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라며 웃는지 우는지 모를 표정으로 대꾸한다.

이어진 줄다리기 시합은 무조건 화합해야 하는 경기.

"너네들 호루라기 소리 들리면 무조건 누워버려!"

어쩌면 아이들보다 선생님이 더 흥분했는지도 모른다. 이번에도 지도교사들이 옆에서 코치한다. 아이들은 다소 비장한 표정으로 동아줄 앞에 섰다.

경기는 놀랍게도 관음팀이 싹쓸이했다. 부전승도 없이 계속 시합을 했는데도 관음팀은 놀라운 조직력과 팀워크(?)를 자랑하며 네 경기를 눈에 띄는 실력 차로 이겨버렸다. 관음팀의 민정(14)이는 자신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직접 줄을 잡는 시늉을 하며 설명까지 해 보인다.

그렇게 함께 뛰고 웃고 안타까워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청소년법회 지도법사스님들의 눈에도 아이들과 같은 감정들이 순간순간 스쳐간다. 봉은사 정국스님은 행여 아이들이 넘어질까, 아이들 옆을 떠나지 못한다. 옥천암 운산 스님도 흐뭇한 표정으로 연신 "아, 너무 잘한다!"고 감탄한다. 오랫동안 청소년들과 함께 해온 스님, 선생님들이라 그런지 아이들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 것이 보일 정도다.

"애들 면면이 다 착해요. 오늘 법회 대신 즐겁게 뛰어놀 시간이 주어져서 저희들 마음이 다 흐뭇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아이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학원도 공부도 잊고, 집안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파라미타 아이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도 필요하다.

고등학교 2학년 선미가 말한다.

"고민 많이 했어요. 학원도 가야 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 때문에 체육시간도 줄어든 요즘, 운동장을 달릴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좋은 법우들도 만나고 내 마음 속도 후련해지고, 기분 정~말 좋아요!" 글·사진=김강진 기자


"우리는 응원이나 할까?"


"발이 연결되어서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 108염주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평생염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입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불을 만들고 석불이마에 영험을 발하기 위해 백수정을 점안해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광명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만 있어도 평생행운과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사업을 하고 계신 분, 중대한 시험을 앞둔 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신 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백수정108염주외 특별선물로 일반인께는 손목단주를 스님께는 합장주를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전화 : (02)741-4477
농협:053-02-228720 이진경

평생부자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 얻으리라!


◀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친지에게 사업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불경에 지혜로운 중생은 빨리 깨달아 15가지 재앙을 물리치고 15가지 무량대복을 받아 공덕을 쌓으며 그 이름이 세계에 빛날 것이라고 했다. 불경에 맞춰 신묘(神妙)법구를 넣어 모든일이 풀리게 만든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大悲神力)의 신통한 종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불교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풍요로워지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 사고예방 삼고금강저 출시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생명을 보호하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평생보호의 선물!
가로5cm 폭2cm 줄길이15cm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축원불공마친 비방!!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 거울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세상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가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비방의 법구가 삼고금강저이다. 달리는 자동차 사고는 자의든 타의든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와 죽지 않으면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하는 액란이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삼고금강저는 세상사는 동안 생명을 보호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악연을 만나지 않게하며, 법적인 관재수를 소멸하고 금강의 지혜를 얻어 안전운행하게 하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부처님 가피로 생명보호와 안전운행의 축원불공까지 마친 자동차용 금강저는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순금금니로 제작해 운전석위에 걸면 차안이 품위가 있고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불심사에서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 38.000원
전화 : (02)741-4477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가을엔 명상록이나 시집 한 권을 책상에 올려놓고 지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가을엔 그동안 뜸했던 친구나 스승이나 고마운 사람들이나 누구에게라도 편지를 쓰면 좋겠어요. 직접 우체국까지 걸어가서 편지를 부치고 돌아오는 길에 은행잎이나 단풍잎이라도 책갈피에 꽂아보는 것도 괜찮지요. 가을엔 그리움이 많이 자랐으면 좋겠지요. 가을엔 고독해지면 좋겠지요. 그리움과 고독이 자기를 성장시키는 '약'이란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된답니다.

겹살림 : 한 가족이 서로 나뉘어 따로 차리는 살림.(부모님이 계속 시골에 머무르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그는 아내와 시골을 오가며 겹살림을 꾸려 나가기로 하였다.)

댓바람 : 일이나 때를 당하여 서슴지 않고 당장의 뜻. (소식을 듣자마자 댓바람으로 달려 나갔다.) 또 '일이나 때를 당하여 한 번에'라는 의미도 있어요.(댓바람에 몇 사발이고 먹어 치울 것 같은 시장기와 심한 갈증을 느끼는 것이었다.)<윤흥길, 묵시의 바다>

변죽 : 그릇이나 세간, 과녁 따위의 가장자리.(그는 젓가락으로 상의 변죽을 두드리며 흥을 돋우었다.) 관용적으로 '변죽을 울리다'라고 하면 '바로 집어 말을 하지 않고 둘러서 말을 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변죽을 치다'라고도 해요.(대체로 그 초점을 때리지 않고 변죽을 울려서, 은근한 가운데 함축성 있는 표현을 주로 하였다.)<이희승, 먹추의 말참견>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광기 어린 예술 편력, 불행한 화가의 위대한 생애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서머싯 몸 作 '달과 6펜스'

<달과 6펜스>는 서머싯 몸이란 작가를 전 세계에 알린 결정적 작품이죠. 프랑스 후기인상파 화가 폴 고갱의 삶을 토대로 한 소설로 예술에 사로잡힌 한 영혼의 광기 어린 예술 편력을 그리고 있어요. 1919년에 출판되어 대단한 인기를 끌어 유럽의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그 인기 덕분에 1915년 출판했으나 별로 주목 받지 못했던 <인간의 굴레에서>도 재평가 받게 되죠.

이 소설은 세속의 삶과 인간의 허망한 탐욕과 위선에 관해 언급하고 있어요. 작가 몸은 런던의 문단과 사교계의 속물들, 마음은 순진해도 고뇌하는 예술 정신은 없고 잘 팔리는 그림만을 그리는 화가 스트로브, 육체적 관능만을 추구하는 블랑시, 가정을 떠났을 때 저주를 퍼부었던 남편이 천재로 알려지자 그의 아내였음을 자랑하는 스트릭랜드 부인 같은 인물들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죠. 20세기 영국 문학사에서 가장 풍자적인 소설가로 분류되는 서머싯 몸은 영국인이 빠져들기 쉬운 속물근성이나 위선자적 경향을 냉철하고 비정한 필치로 파헤쳐가고 있어요.

이 소설의 제목 <달과 6펜스>도 생각해 보면 참 독특하죠? 제목은 서로 대립되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달'은 정신의 세계, 이상의 세계, 예술의 세계, 고매한 것, 주인공이 추구하는 예술의 최극지(最極地)라 말할 수 있고 '6펜스'는 은화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돈의 세계, 물질의 세계, 현실의 세계로 세속적인 명성을 갈망하는 감정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찰스 스트릭랜드는 전형적인 런던의 증권 중개인이다. 37세의 아내와 16세 아들 그리고 14세 딸을 둔 한 가장의 아버지이다. 그는 문학 소녀적 취미로 문인들과 사귀길 좋아하는 사교계의 전형적인 부인이자 현모양처형인 그의 아내 에이미가 속물이라고 부를 만큼 무취미하고 예술 쪽과는 담을

서머싯 몸을 세계 알린 결정적 작품
화가 폴 고갱의 삶을 토대로한 소설

쌓은 사람이다. 가정은 단란했으며 앞으로도 증권 중개로 그가 벌어들이는 돈과 아내의 사랑, 또한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 등에 만족하며, 평범하고 단란한 삶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화가의 길을 택하여, 처와 자식들을 버리고 자신도 거의 무일푼인 채 파리로 떠나게 된다. 파리에서 그는 그림에는 전념할 수 있었지만 굶주림과 병으로 인해 쓰러지고 만다.

이때 그의 천재성을 인정했던, 네덜란드의 상업화가 더크 스트로브는 아내 블랑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집으로 데려가 극진히 간호하여 회복시킨다. 스트릭랜드를 간호하던 블랑시는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어 그를 따라가겠다고 말한다.

더크는 그들을 자기 집에 살게 하고, 아내가 자기에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결국 동거 생활 중에 블랑시는 음독자살을 하게 된다. 스트릭랜드가 그녀를 버린 것이었다. 더크는 슬퍼하긴 했지만 스트릭랜드가 동거 생활 중에 그린 블랑시의 나체화에 담긴 천재성에 감탄, 그에 대한 원한도 잊고 네덜란드로 같이 가서 그림을 그리자고 한다.

하지만 스트릭랜드는 마르세이유로 자리를 옮겨 부랑자와 같은 생활을 한다. 우연한 기회로 배를 얻어 타고 그가 원하던 동쪽, 타히티로 가게 된다. 그곳은 그에게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는 토인 처녀 아타를 현지처로 맞아 자식을 낳는다. 그의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한 때였다. 아타의 소유지에서 그는 자연에 파묻혀 그리고 싶은 것을 맘대로 그릴 수 있었다. 나병에 걸린 그는 필생의 대작을 그가 살던 오두막의 벽 전체에 걸쳐 그려 놓고 영원한 휴식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대작들은 그의 유언에 의해 오두막과 함께 불태워 진다.

스트릭랜드는 세속적인 윤리, 도덕을 훌훌 벗어던지고 오직 예술에만 몰두한 사람이었죠. 스트릭랜드는 예술이라는 높고 고매한 목표(달)에 도달하기 위해 직업, 가족, 사랑, 우정, 윤리 등 현실적인 문제들(6펜스)을 가차 없이 내던진 사람이죠. 폴 고갱을 모델로 한 작품답게 그림을 함께 보면서 글을 읽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고갱을 모델로 하고 있음은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전기(傳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고갱은 프랑스 파리 태생이고 스트릭랜드는 영국사람이거든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키 크는 방법 없나요?

중학생인데요, 키가 너무 작아서 별명이 '숏다리' 에요ㅠㅠ 저랑 비슷했던 친구도 안본사이 키가 훌쩍 커있어요. 매일매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가 먹으면 좋은 음식 정보 좀 가르쳐 주세요!

키 크는 방법 있어요!

중학생이면 얼마든지 키 클 수 있어요.

키가 크는데는 먹는 음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유, 멸치, 치즈 등 무엇보다 편식이 없어야겠죠. 인스턴트 음식은 성장판 닫히는게 빨리 찾아옵니다(절대 금물이에요). 먹는 양이 너무 작아도 키 크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격도 느긋함이 도움 될 것 같네요. 운동은 줄넘기나 농구도 좋고요. 무엇보다 잠자리 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면 곧바로 스트레칭을 해 주는 것도 키 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운동 할 시간이 없으시면 양팔을 머리위로 올려서 쭈~욱 뻗은 다음 제자리에서 폴짝 뛰어 보세요. 농구하는 방법과 비슷해요.

키는 유전인 경우도 있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신심의 안정에서 많은 변화가 온답니다. 먼저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또 밥 양 운동하는 시간 등이 일정한 해야 가능한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이겠지요. 키가 작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자체가 키 크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저도 그리 크진 않지만 대학교 때 많이 컸어요(무려 4센티미터!) 그리고 키 크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양과 시간 그리고 먹을 때 즐겁게 먹는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기지개를 하루 20번씩 하고 스트레칭을 하루 10분이라도 하면 언젠가는 효과 볼 겁니다.

금화사 청소년 상담실

석청은 빵에다 발라먹는 일반 꿀이 아닙니다.





네팔산 석청은
수백년 산삼에 버금가는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에서 채취되는 "꿀"을 말하며 깊은 산의 절벽이나 바위틈에서 "아피스 라보리오사"라는 왕벌이 만들어 내는 야생 꿀이다. 네팔과 티벳의 접경지역인 해발 3500-4000m의 고산지대에서 주로 벌이 서식하며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사나운 벌로서 꿀을 만들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으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한다. 고질병 치료, 강장식품이며 세포생성, 노폐물 제거등 명약으로 알려져 네팔왕국에서 국가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게 답례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공 급 처 : 네팔왕실-국립히말라야 석청연구소
국내보급처 : 한국불교사암총연합회,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히말라야 석청이란?

히말라야 석청(WILD HONEY)은 네팔과 티벳의 접경지역인 해발 3000m-4000m의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고산지역의 수백미터에 달하는 기암절벽에서 채취하는 꿀로써 성경과 불경에도 이 꿀을 약용 또는 참선시 음용하는 신비의 품질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만을 찾아 아피스라보리오사(APIS LABORIOSA)꿀벌이 집을 짓기 때문에 석청을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기암절벽에 집을 지으면 수십년-수백년 동안 그 지역에서 서식을 하며 300년 이상 된 것도 있어 이런 곳에서 채취하는 석청을 효험이 큽니다.

*300년 이상 된 석청은 네팔 내에서도 구경하기조차 힘이듭니다. 아마 한국의 심심산골에서 몇 백년 된 산삼을 찾는 일에 버금가는 희귀성이 있을것입니다.
가격 또한 엄청나서 이런 석청을 발견하면 빠랑게가 사는 고산족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바뀝니다. 다만 워낙 귀한 꿀이라 네팔 전역에서 1년에 한 두번 발견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네팔에서는 참석청을 구하기 힘듭니다. 참석청은 1kg에 250만원정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취급하는 석청은 등외급입니다.
※ 아래의 보급 석청은 참석청입니다.

● 서울 02)3436-7845 ● 중부 031)634-3519 ● 대구/경북 054)464-4735
● 부산/경남 051)782-9386 문의 010-2039-5288, 010-5031-1355

보급가액 500g ₩ 500,000원

석청판매 수입금(석청보급가액) 중 일부는 네팔 불우청소년들(불우아동들)을 위해 적립됩니다.
석청 3병 이상 구입시 석청 채집 CD 1장을 보내드립니다.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혜암 스님(1)

시자,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혜암,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다
시자, 그러면 어디가 아프십니까
혜암, 아야! 아야!

덕숭총림 수덕사 초대방장을 지낸 혜암(惠菴, 1886~1985) 스님이 편찮으실 때의 일화다.

시자 나월(蘿月)이 스님께 여쭈었다.

"스님,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몸도 아프지 않고, 마음도 아프지 않다."

"그러면, 어디가 아픕니까?"



스님께서는 "아야! 아야!" 하셨다.

1911년 해담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은 혜암 스님(사진)은 1913년 성월 선사 밑에서 선(禪)을 공부하고 화두를 간택받았다. 그 뒤 만공·혜월·용성 선사를 차례로 모시고 6년 동안 용맹정진하여 도를 깨닫고 오도송을 지었다.

"어묵동정 한마디 글귀를 누가 감히 손댈 것인가. 내게 동정(動靜)을 여의고 한마디 이르라면, 곧 깨진 그릇은 서로 맞추지 못한다고 하리라(語默動靜句箇中誰敢着 問我動靜離 卽破器相從)."

그 뒤 묘향산 상원사 주지와 정선 정암사 주지를 역임한 스님은 1929년 만공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고, "구름과 산은 다름없으나 또한 큰 가풍도 없다. 글자 없는 도장을 그대 혜암에게 주노라"는 전법게를 받았다. 스님은 그 뒤 제방선원에서 보임(保任)하는 한편, 수좌들을 지도하다가 1956년 수덕사 조실로 추대되어 덕숭산에 머무르면서 30년 동안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또, 1984년에는 100세의 나이로 덕숭총림 초대 방장(方丈)으로 추대되었다.

1985년 삼월 삼짇날 세수 101세, 법랍 89세로 입적한 스님은 열반을 앞두고 마지막 가르침을 묻는 제자들에게 "무상 무공 무비공(無相無空無非空).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대답으로 임종게를 대신했다. 즉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無相), 그렇다고 허망한 것도 아니고(無空) 허망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無非空)'는 자기 확신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다.

본래면목은 육신에서 벗어난 것
'심신탈락' 경지 온 몸으로 표현

혜암 스님이 말년에 고령으로 몸이 불편할 때 펼쳐진 위 선문답에서, 나월 시자는 '몸은 아프지 않고 마음이 아플 것'이라는 지레짐작으로 스승께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대답은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다'는 것. 본래의 청정자성(淸淨自性)은 육근(六根)·육경(六境)·육식(六識)으로 이뤄진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것이기에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 없다는 법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가 아픈 것일까? "아야! 아야!" 하고 육신은 소리를 내지만, 본래면목은 아픈 적이 없다. 그렇다고 아픈 몸과 마음이 본래면목과 둘이라고 여겨서도 안 된다. 한 물건도 없는 '옛 거울(古鏡)'에 비친 그림자가 형상 없는 거울과 '둘도 아니요 하나도 아니기(不二不一)' 때문이다. 혜암 스님은 "아야! 아야!" 하면서도 병고로부터 자유로운 신심탈락(身心脫落)의 경지를 온 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일본 조동종의 개조인 도원(道元) 선사가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곧 좌선이다. 좌선함으로써 오욕(五欲)을 떠나고 오온(五蘊)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한 법문이 바로 이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걸림 없는 참나 깨달아 자비로 살자"

법천사 일수 스님 '달마혈맥론' 첫 강의 현장





법천사 운문선원은 일수 스님(아래)의 <달마혈맥론> 강좌를 듣기 위해 찾아온 승·재가 불자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무엇이 전불후불(前佛後佛)인가?"

"뜰 앞의 은행나무 두 그루를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전불후불인가?"

"악(喝)!"

10월 26일 오후 1시, 서울 성북동에 소재한 법천사 운문선원(선원장 일수) 법당. 운문선원장 일수 스님이 10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금~일요일 오후 1시에 여는 <달마혈맥론(達磨血脈論)> 강좌의 첫 법석에서 '전불후불'의 뜻을 20년 참선한 수좌의 안목(眼目)으로 드러낸 장면이다.

중국 선종의 초조인 보리달마(菩提達磨)의 가르침을 문답형식으로 기록한 <달마혈맥론>에 대한 강의가 강사가 아닌 선원장스님에 의해 열린다는 점에서 이날 강좌는 관심을 모았다.

전등사 선원장 동명, 수국사 주지 도진, 중앙종회의원 의현, 조계사 부주지 도문 스님 등 스님들과 법천사 신도들, 수강생 등 100여명은 모처럼 선원에서 열린 달마어록 강의에 이목을 집중했다.

입제식에서 동명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불교를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수행에 입각해 말하는 이는 드물다"면서 "운문선원 대중의 혈맥론 공부가 1600년 한국불교사의 법등을 새롭게 밝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 대표인 대원각 보살은 인사말을 통해 "20여 년 전부터 달마 스님 법문을 듣고 싶었던 차에 선원장스님께서 혈맥론을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감로법문으로 생활 속의 모든 번뇌와 망상, 스트레스가 사라지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청법가에 이은 설법이 시작되자, 일수 스님은 강의 첫머리에 양 무제(梁武帝)가 달마대사께 질문한 문답을 소개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무엇이 불법의 근본이 되는 성스러운 진리입니까(聖諦第一義)?"

"만법은 텅 빈 것. 성스럽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廓然無聖)."

"지금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십니까?"

"모르겠습니다(不識)."

양 무제는 '진리란 범(凡)과 성(聖)을 초월한 것이며, 본래면목은 말과 생각으로는 미칠 수 없는 것'이란 달마 대사의 종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무제는 지공 화상으로부터 달마 대사가 관음보살의 화신이란 설명을 듣고 뒤늦게 그를 찾았지만, 대사는 이미 양자강을 건너 위(魏)나라로 떠난 뒤였다.

이와 같이 두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면 무제와 같은 장님이나 다름없다. 일수 스님은 텅 빈 마음으로 달마 대사의 법문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저와 대중이 한 자리가 되지 못하면 양 무제와 같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맙니다. 여러분이 달마 대사의 신심과 원력을 갖췄을 때, 부족한 저의 말씀이 달마 법문으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일수 스님은 원문을 운율에 맞춰 읽은 후, 신도들이 다시 따라 읽게 하였다. 그리고는 한 문단씩 읽고 직역과 해설을 붙여가며 강의를 이어갔다.

"삼계가 혼돈 속에서 일어났으니, 모두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앞 부처님과 뒤 부처님이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했을 뿐 '문자는 세우지 않았음(不立文字)'이라."

이 대목에서 스님은 '불립문자'에 대해, "무조건 문자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에 떨어져 알음알이를 내지 말라는 뜻"임을 분명히 했다.

"만약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네가 내게 묻는 것이 곧 너의 마음이며, 내가 네게 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니라."

일수 스님은 이 장면이 달마 스님의 핵심 법문이라고 말했다. 달마 대사가 "근기에 응해 중생을 제접하며 눈썹을 치켜뜨고 눈을 깜박여 수족(手足)을 움직이는 것이 모두 '신령스런 깨달음의 성품(靈覺之性)이다"고 한 바와 같다. 그러나 달마 스님 당시에는 순수해서 이 한 마디에 깨달았지만, 이제는 알음알이가 치성해져 심지(心地)법문을 듣고도 믿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철 스님께서 소참법문으로 '성제 제일의'법문을 하셨을 때,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양 무제나 다름없었지요. 20여년 이상 참선을 하고 보니 이제 말귀가 좀 들립니다만, 법문을 알아차리려면 평소에 깊이깊이 수행해야 합니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옹 대종사의 뜻을 이어 '참사람(無位眞人)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일수 스님은 '참사람 서원'을 설명하며, 첫 강의를 마쳤다.

"무상(無相: 상에 걸리지 않고), 무주(無住: 머무는 바 없이)의 참나를 깨달아 자비생활을 합시다. 어디에도 걸림 없이 자유자재하여 세계 인류가 평등하고 평화스럽게 사는 역사를 창조합시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祖師西來意)'을 대중이 함께 탁마한 이번 달마혈맥론 강의는 스승의 지도를 받지 못해 선법(禪法)에 대한 안목을 갖추지 못한 채, 무작정 앉기만 하는 다수 시민선방에 적지 않은 자극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예부터 선사들은 먼저, 정법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추고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걸림 없는 참선에 매진하도록 하였다.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좌선에만 집착하거나, 반대로 좌선을 무시하는 편견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다. 혈맥론 강의가 끝난 뒤, 일수 스님이 다시 1시간의 좌선으로 이날 공부를 회향한 것도 '정혜를 함께 닦는(定慧雙修)' 치우침 없는 공부를 위한 세심한 배려였다.

일수 스님은 '혈맥론'에 이어 해제철마다 '관심론', '이입사행론'도 강의할 예정이며, 매월 첫째·셋째 주말 철야 참선정진도 계속 진행한다. (02)745-6939

김성우 객원기자(buddhapia5@daum.net)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게시판

●**염화미소 선수련회**-강화 국제연등선원은 11월 6일~12월 18일, 매주 화 오후 1~4시, 염화미소 선수련회 3기생을 모집한다. 기초교리, 경전·선어록 강의, 좌선 등으로 진행. (011)9554 3568

●**아나빠나사띠 집중 수행**-김열권 법사는 11월 22~26일 4박5일간 조치원 지장사에서 부처님 호흡법인 아나빠나사띠(Anapana sati) 집중수행을 갖는다. (041)868-3119

●**대다라니 49일 정진**-일산 덕양선원은 11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월 30일까지 제17차 신묘장구대다라니 108편 독송 49일 정진을 실시한다. (031)907-7172

●**문사수 수계·발심 법회**-문사수법회는 11월 18일 오전 11시 담양 정진원에서 '2007 수계 및 발심 법회'를 봉행한다. 불교예법, 염불·참회정진으로 진행. (031)966-3581

병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님들께 산삼의 인연을 맺어드리고자 합니다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약사여래 도량 선광사는 병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산삼의 인연을 맺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 일대에서 활동하는 심마니들을 위해 오래 전부터 산삼 감정을 해오고 있으며, 인연 있는 분들께 산삼을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약사여래도량 선광사 주지 도봉 합장

연락처 : 017-377-0464, 02)886-8655
서울시 관악구 봉천 10동 871-34번지(서울 포교원)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232-1번지

산삼이란?

●천종(진종)산삼 (天種, 眞種)
고산지대의 식물의 특성에 의하여 압력이 높고 바람이 세고 습기가 적고 등등으로 고생고생하며 자란것으로 뇌두는 가늘고 싹대 역시 작고 가늘며, 잎수와 가지 숫자도 적다. 열매 또한 작으며 숫자가 적다. 뇌두가 가늘고 길며 약통에서 미가 갑자기 가늘어져 미에 살이 안붙고 힘이 있어, 예쁘고 귀한 티가 난다.
30년 정도는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 자란 연도에 비해 크기가 작고, 잘 크지를 못하며, 제일 커봐야 1냥 2~3돈 정도라 할 수 있다. 작지만 많은 세월이 느껴진다.
오리지널 산삼이란 것이며, 천종(진종)산삼이란 참으로 귀하며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지상최고의 식물인 것이다.

●지종산삼 (地種)
야생장뇌 산삼에서 씨앗이 떨어져 자라면 씨종이 한단계 진화하며 야생장뇌에서 1-2대 지난것이 지종산삼이며, 뇌두의 굵기가 진종산삼과 야생장뇌의 중간정도이고, 생긴 형태도 중간이다.

●인종, 야생장뇌 산삼(人種)
야생장뇌란 재배장뇌씨가 새등에 의해 깊은 산으로 옮겨져 자생하는 것으로 생명력이 한단계 진화하며 오래살 수 있는것. 인삼과 많이 닮았으며, 뇌두가 두껍고 미에 살이 많고 귀티가 나지 않는다. 현재 채취되는 산삼의 대부분은 (95%이상)야생장뇌 산삼이나 지종산삼이라고 할수 있으며, 그러나 천종(진종), 지종,야생장뇌의 어디에 속하느냐는 집착할 필요는 없고 야생산삼이며 년조가 같으면 약효는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다. 같은 년조일때 천종(진종)산삼은 야생장뇌나 지종산삼보다 크기가 작다.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 행 화

방한용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발,마춤형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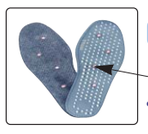
방한용부츠

보아털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50mm
• 색상 : 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특 무 명

지압깔창
발명특허원41435
풍산동 99%
• 가격 : 10,000원

사계절단화

풍산동 99%
지압식 괄장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전주 상운각 063)274-6639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키 작아도 총검술 잘 할 수 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㊲ 군에서 만난 관세음보살

키 작은 열등감

“남자인데 키가 작아 고민이 많았어요. 열등감도 많고, 자신도 없었고요. 그런데 군에 가서 만난 사람이 제 인생을 바꾸어 주었어요.”

P씨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아 손해를 많이 보고 산다고 생각했다. 어른들이 “넌 몇 살이니? 아니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작아?”라고 할 때가 제일 싫었다. 전철에서 손잡이는 간신히 잡을 수 있었고 남학생들이 잘 하는 운동, 특히 농구에 끼이지 못했다. 옷이나 신발을 살 때 맞는 사이즈가 없어 아동 코너에 가야했던 적도 있었다. 무엇보다 스무살이 넘자 고민은 여학생이었다.

웬만한 여자들보다 작은 키이기 때문에 어느 여자가 나를 좋아하겠나 싶어 자꾸 위축되다 보니 여자친구 하나 사귀어보지 못했다.

군에 입대할 때는 정말 끔찍했다. 운동도 못하는데다가 작은 키로 남들 따라 훈련받을 생각을 하니 아찔했다. ‘아니, 평균 키 이하는 군 면제 좀 해 주면 안 되나?’ 한숨을 쉬며 들어갔다. 쩔쩔매며 고생의 연속이었다. 키 큰 사람 한 걸음에 P씨는 두 걸음을 뛰어야 따라갈 수 있었다.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하고 원망과 분노에 좌절감을 느꼈다.

내 마음은 작지 않다

그러던 중 총검술시간이 되었다. 교관 옆에 훈련 조교가 나왔는데 교관의 어깨 쯤 밖에 되지 않게 작은 것이 아닌가. P씨와 비슷하게 작은 키였다. 저렇게 작은 사람도 가르치는 조교를 맡나 해서 의아했다. P씨는 시키는 대로 하려 했지만 총이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졌다. 앞으로 들어 올리자 주르륵 흘러내릴 것 같았다. 잘 안 되어서 쩔쩔맸다.

입대 훈련 중 조교의 경험담으로 용기 생겨
마음 바꾼 후 자신감 생기고 당당해진 삶

그런데 그 조교는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당당하고 큰 목소리로 호령하며 총검술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작은 키로 이 무거운 총을 어떻게 저렇게 잘 다루나 하여 놀라왔다. 자기보다 훨씬 큰 군인들을 가르치는 태도에서 어떤 위축감도 볼 수 없었다. 조교 때문에 놀란 마음에도 불구하고 P씨는 힘들어서 울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런데 그가 다가와서 “잘 할 수 있잖아! 왜 그 모양이야!”하고 소리치는 게 아닌가. 세상에 나보고 잘할 것 같다니.

휴식 시간에 그가 일부러 찾아왔다. 조용히 부르더니 “넌 꼭 예전 내 모습이다. 정신 차려”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 주었다. 그도 작은 키 때문에 힘들었는데 군에 올 때 오기가 났다고 한다. 키는 모자라지만 내 정신력은 절대 누구보다 작지 않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길고 무거운 총 때문에 총검술이 가장 힘들었다.

고민 끝에 따로 자발적으로 쉬는 시간에도 혼자 연습을 했다. 주말에도 틈이 되면 조교에게 부탁했다. 남들이 이상하다고 하건 말건 개의치 않았다. 매일 죽기 살기로 연습하자 점점 익숙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남보다 훨씬 잘 하게 되었다. 가르치는 조교로까지 뽑히게 된 것이다. 주위에선 놀라서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 바짝 얼어서 그의 이야기를 듣다가 P씨는 눈물이 나왔다.

작은 거인이 되다

그도 마음을 바꾸어 보자고 결심하게 되었다. ‘그래, 키가 작다고 내 마음까지, 의지까지 작은 건 아니다.’ 특히 총검술 시간에는 죽을힘을 다했다. 따로 연습도 하게 되었다. 조교가 가끔 옆에 와서 용기를 심어 주곤 했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총을 들어 올리는데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다. 마치 손과 하나가 된 것 같았다.

“그 경험을 시작으로 군 생활을 포상까지 받아가며 무사히 마쳤어요. 그 후로 자신감이 생겼고 당당해지니 직장에서 별명이 ‘작은 거인’이 되었지 뭡니까. 사랑하는 여성도 생기게 되더군요. 그래 결혼도 잘 했고요. 중학생 아들은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키가 작다는 사실에 대해서 P씨는 마음의 입력을 완전히 바꾸었고 그에 따라 그의 인생도 새롭게 변화한 것이다. 그에게 용기를 주었던 그 조교야말로 P씨에게 나투신 관세음보살이 아닐까 싶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앵게시판

·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양산 통도사가 11월 16일 ‘53선지식을 찾아서-화엄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53일간 법사스님을 모시고 떠들썩한 화엄법석이 통도사를 수놓는다. 회향은 2008년 1월 7일. 화엄산림대법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는 조상 선망부모 천도재도 함께 열린다. (055)381-1288

· **제1회 적멸보궁 백일기도**=1300여년의 전통을 간직한 천년고찰 봉화 축서사가 제1회 적멸보궁 백일기도를 봉행한다. 11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적멸보궁 백일기도는 최근 신축한 보탑성전에서 하루 4분정근 기도를 100일간 봉행할 계획이다. 무여 스님과 함께 올리게 될 보궁기도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중생의 진정한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 △원하는 모든 것을 원만히 이루게 할 수 있는 기도 △세세생생 알게 모르게 지어왔던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 △스스로를 점검하며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것에 의미를 둔다. (054)672-7579

· **해인사 고우 스님 법문**=합천 해인사가 11월 12일 1029일 천도법회의 9번째 49재일을 맞아 봉화 금봉암 선덕 고우 스님을 모시고 깨달음의 법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오전 9시 고우 스님이 해인삼매 속에서 번뇌와 무명에서 벗어나는 길을 법문한다. (055)934-3105

· **혜원정사 ‘혜원 백일장’**=부산 혜원정사가 사회복지법인 혜원 주최로 평소 시문학과 불교에 관심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혜원 백일장’을 개최한다.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혜원정사 앞마당에서 펼쳐질 ‘혜원 백일장’에는 부산광역시장상, 부산광역시 교육감상, 연제구청장상, 국회의원상 등이 마련돼 있다. (051)868-0138

· **용주사 동안거 결제기도**=화성 용주사가 11월 24일 오전 10시 동안거 결제기도에 입제한다. 대웅전에서 봉행될 동안거 결제기도의 동참비는 5만원. (031)234-0040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34>

행동주의와 불교-2

행동주의적 상담은 학습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학습(學習)이란 말 그대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파블로프의 조건형성이론(1941), 도널드와 밀러의 강화이론(1950),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형성이론(1953),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1965) 등을 토대로 발달한 학습이론은 어디까지나 외부 조건의 영향과 그 영향을 받은 생물체의 반응인 행동에 대해서만 논할 뿐이다. 후기에 와서 인지적인 면을 가미하기도 했지만, 행동주의의 밑바탕에는 인간을 기계론적이며 결정론적으로 보는 입장이 여전히 남아 있다.

행동주의에서는 앞서 인간관에서 살폈듯이 ‘인간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한다.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학습한 결과에 따라 행동한다고 한다.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 불교
행동주의는 의지적·능동적 존재

이러한 행동주의의 인간관, 즉 백지 상태와 같은 행동주의적 인간의 본성과, 불교에서 말하는 ‘공(空)’ 사상을 같이 놓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학습이론과 불교의 업설을 나란히 놓고 유사점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백지란 어떤 그림이나 그려질 수 있는 하얀 도화지나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와서 그림을 그리면 그리는 대로 바뀌어 간다. 백지 자체는 아무런 의지도 없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외부에서 가하는 작용대로 물들어 갈 뿐이다. 즉 외부의 자극(S)에 따라 피동적으로 반응(R)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하여 쌓인 것이 학습이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행동이다. 행동주의 상담은 바로 이 행동을 다루는 상담 분야다. 즉 인간이라는 백지에 그려진 그림(행동) 가운데 부적응적인 그림을 벗겨 내거나 덧칠을 해서 적응적인 그림(행동)으로 바꾸어 나가는(학습) 것이다.

불교의 ‘공’은 물론 이와 다르다. 공부가 얕은 필자로서는 그 깊은 뜻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백지로 비유한다면 ‘코팅된 백지’가 아닐까 싶다. 코팅된 백지에도 온갖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어떤 것은 그리는 단계에서 잘 물들지 않고, 어떤 것은 그려졌다. 하더라도 지우개로 지우면 깨끗이 지워진다. 그런데 행동주의에서처럼 외부의 자극만 작용하는 게 아니다. 설사 외부의 작용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지우거나 하는 것은 코팅된 백지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이다. 이런 점이 행동주의와 상반되는 면이다. 같은 백지라 하더라도 물리적 · 피동적 존재가 아니라, 의지적 · 능동적 존재다.

학습과 업의 개념도 겉으로는 유사한 것 같지만, 내면은 정반대다. 불교의 업이 행위, 행동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긴 하다. 그러나 불교에서 쓰는 행동(行)이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다.

즉 ‘의도적인 행동’을 뜻한다. 업의 이론이 행동주의와 비슷하게 원인과 결과, 작용과 반작용을 말하지만, 그 행위 속에 의도가 들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행동주의에서는 존재의 주관적인 의지인 ‘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존재의 내면세계,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 불교인 반면, 행동주의에서는 관찰이 안 되는 ‘모르는 세계’라 하여 저만치 제쳐두고 만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한국불교여래종 종도와
사부대중 여러분앞에 참회의 예를 올립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종무원장 법룡) 총본산 옥천 금강 대약사사 는 2002년부터 대웅전 불사를 시작하여 2007년 12월 낙성 대법회를 준비하던 중 2007년10월1일 새벽 화마로 대웅전이 전소하는 시련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래종 전 종도는 가람수호를 하지 못한 점 깊은 참회의 말씀을 올립니다. 화마로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전 종도에게 한국불교 여래종 종정 인왕 큰스님께서는 유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전 종도는 합심단결하고 하루빨리 대웅전 복원불사를 시작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 더 큰 발원의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으로 환희심의 불도량을 이룰 수 있는 신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복원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대웅전 복원불사에 불자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우체국 301119-01-001223 예금주 : 여래종 총무원)

■ 문의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71번지
전화 033-734-1077. 011-369-4154 총무부장 송운

2007년 10월 10일

한국불교여래종 총본산 옥천 금강 대약사사



서예 작품 앞에 선 월서 스님.

'붓끝'으로 전하는 자비정신

조계종 원로 월서 스님 '북한동포·외국노동자 돕기 서예展'

조계종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원로의원 월서 스님이 수행삼아 연마해 온 서예작품으로 고통 받는 중생계에 자비를 전한다.

월서 스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북한동포와 외국노동자돕기 서예전'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개최하고 있다. 총무원 사회부가 주최해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모두 13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어려서부터 서예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던 월서 스님은 20년 전 추사본의 대가로 꼽히는 운남(雲南) 선생을 만나 운필법을 사사했다. 이후 스스로의 서체를 찾아 일념정진하며 '선묵일여(禪墨一如)'의 화두를 놓치지 않았다. 평소 제자나 불자들에게 자주 들려주던 게송이나 경전 구절, <금강경> 등을 독특한 필체로 구현한 전시작들은 최근 1년 사이에 쓴 것들이다. 작품에 몰두해 사나흘씩 잠을 잊은 적도 한 두 번이 아니고 오른팔의 어깨뼈가 빠지는 고통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월서 스님의 글씨는 이미 서예의 경지를 넘어서 서도를 관통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스님의 원력에 힘입어 외국인 노동자 쉼터 개설과 북녘동포 구호 및 종단의 해외 활동 불사가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서 스님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해 봤는데 주민들의 생활은 참담한 지경이었다"며 "수행자로서 종단의 대북교류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글=임연태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포·토·에·세·이



'가을'을 따는 스님

산사는 깊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도량 한 쪽에서는 스님이 감을 따고 있다. 계절이라는 것이 가면 또 오는 것인데도 일상은 늘 그 오고감에 미련이 많은 모양이다. 떠나려는 계절을 붙잡고 싶어서일까. 스님은 남아있는 가을을 따고 있었다. 10월 30일 완주 송광사에서. 글・사진=박재완 기자

송강 스님이 선사하는

'영산재의 진수'

영산 범음 발표회 성료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도량을 재현, 여러 보살과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식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離苦得樂)의 경지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구해, 일운, 기봉 스님과 함께 2세대 영산재 주자로 활동중인 송강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교육보조자 · 사진위)의 영산 범음 발표회가 10월 27일 안성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스님은 송강범음범패 전승회원 40여 명과 함께 무대에 서 '도량석'을 시작으로 '괘불이운' '복청게' '천수바라' '바라' '육거불' 등 영산작법을 선보였다.

이날 공연을 지켜본 김태원 안성시 문화원장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범패의 대표성을 지닌 영산재의 진수를 송강 스님의 관록 있는 작법시연으로 만끽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김주일 기자

이웃과 하나되는 산사음악회

17일 기원사 창건 30주년 잔치

"기원사가 창건된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월계동 지역민들과 함께 종교를 초월해 축하잔치를 벌일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산사음악회를 처음으로 기획했습니다. 음악은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와서 부담 없이 듣고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기원사 회주 지연 스님(사진)이 11월 17일 오후 5시부터 개최하는 산사음악회의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몸담고 있는 한국꽃꽂이협회 회원들이 무심코 던진 말들에서다. 회원들은 스님의 사찰을 방문하고 싶은데 종교가 달라 망설여져 기원사에서 음악회를 열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 것이란 제안을 했다. 처음에는 기원사 자체 합창단의 발표에만 그치려했지만 준비하다 보니 외부 음악인들을 초청하는 대규모 산사음악회로 커져 버렸다.

이번 음악회에 출연하는 이들과 그들이 쏟아내는 레퍼토리들은 다채롭다. 우선 진행은 방송인 김병조씨가 맡는다. 김씨의 동생 부부가 기원사 신도인 것이 인연이 됐다. 정태춘 · 박은옥 부부가 무대에 올라 대표곡인 '사랑하는 이에게' '탁발승의 노래' '시인의 마을' 등을 부른다.



'40대 동방신기'란 별명이 붙은 남성 5인조 그룹 '파파스'는 원조 동방신기의 '우정단합'과 브레이크 댄스를 선사할 예정이어서 분위기를 한층 돋워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악인 안희진씨가 '사발가'와 '오봉산 타령'을, 조석호씨가 '청성곡'을 대금으로 연주한다.

외부 초청 음악인들의 공연도 관심거리지만 이번 음악회에서 특히 눈여겨 볼만한 것은 창립된지 25주년을 맞이한 기원사 합창단의 음성공양이다. 합창단은 찬불가와 대중가요, 팝송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02)918-0034

김주일 기자



'현대적 색감' 입힌 고려불화를 만난다

예정화 불교회화展, 11월 12일부터 7일간

불교 미술 중에서도 고려불화(高麗佛畵)는 아름답기로 이름 높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선 진면목을 만나기가 어렵다. 현대에 전해진 160여점 대부분이 임진왜란 등 각종 전란 때 빼앗겨 일본 등에 있고 국내엔 10여점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많은 불화가들이 '끊겨버린 민족문화의 명맥을 이어 보려는 마음으로' 그리기 어렵고 까탈스러운 고려불화 기법을 고집한다.

예정화 작가도 그중의 하나다. 다만 예씨는 전통에 충실하되 원작의 표정이나 색감 일부분을 현대적으로 변형한다. 일명 '공필진채불화'다. 예씨는 천연안료를 정성들여 발색해 고아하고 독특한 고려불화의 질감을 최대한 살리려 노력했다.

예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이렇게 공들여 작업한 '송광사 석가모니후불탱' '비로자나불' '아미타여래도' 등 30여점을 내놓는다. 1993년 호암미술관에서 열린 '고려불화특별전'에 이어 두









220여장의 컬러사진이 주는 생생한 현장감

종교, 건축으로 '진리'를 說하다



종교건축기행34
김성호 지음
W미디어 펴냄|1만5000원

이 책은 서울신문 김성호 종교 전문기자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각 종단별 상징적 건물 34곳을 직접 찾아가 담아낸 한국종교의 정치 · 사회 · 문화사이다. 특히 220여장의 컬러 사진이 전해 주는 생생한 현장감은 미처 글로 담아내지 못한 깊이와 넓이를 더해 준다.

모든 건축물은 단지 개개 건물의 존재 의미를 넘어 당 시대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담아내는 그릇이자 결정체이다. 종교 건축물 역시 종교와 종교인들의 혼과 사상, 희생과 아픔을 전하고 보여주는 증거란 점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절실한 신앙공간이자 귀중한 문화유산들이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대웅전은 후기 불교양식과 조선의 궁궐 건축양식이 혼합된 한국 최대의 목조건물로 평가받는다. 또한 부석사 통도사 상원사 법주사 운주사 내소사 용주사 등은 1600년된 한국불교의 전통을 보여준다.

특히 전북 군산의 동국사는 일제 강점기 일본불교가 건축물로 남아있는 유일한 흔적이다. 김주일 기자

고교시절 모기에 물린후 어성초잎으로 효과

아토피와 여드름 치료법등 자세히



아토피, 여드름 어성초로 고친다
박찬영 지음
하남풀판사 펴냄|1만4900원

저자인 '어성초한의원' 박찬영 원장은 자신의 고교시절 일화를 하나 들려준다. "어느 여름날 모기에 물려 집에 있는 어성초 화분에서 잎을 하나 따다가 상처 부위에 슥슥 문질러 말랐더니 가려움이 금세 가라앉았어요. 더욱이 붉은 반점자국도 며칠가지 않았고, 그 어떤 약을 바른 것보다 빨리 없어졌습니다. 그 때부터 어성초에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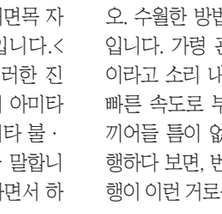
이제 박원장은 어성초 예찬론자가 됐다. 어성초는 청혈, 이뇨, 항균, 해독, 소염, 혈관강화, 정장작용이 골고루 뛰어나다.

또한 대부분의 한약은 보관상의 문제로 건재된 약재를 끓여서 복용하는데 반해, 생약으로 바로 즙을 내어 쓸 수 있는 어성초는 약효를 보존하는데에도 유리하다. 이 책에서는 어성초의 생육상 특징과 주요 성분 및 효능을 제시하고, 생즙을 이용한 요법을 소개한다.

특히 어성초를 이용한 알레르기 아토피와 여드름 치료법을 각기 다른 장으로 구성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기타 질환별 요법과 일상생활 속 음식, 운동, 스트레스 등 건강관리 방법을 실어두었다. 김주일 기자



염불하는자 이 누구인가?



염불선
덕산 스님 지음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원

염불은 기복적이라든가 깨달음의 궁극에는 이를 수 없는 방편이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간화선을 중심으로 하는 선불교 위주의 사고 속에서 염불수행은 오랫동안 폄하돼 왔다. 그러나 염불선은 '빠르고 안전하게' 궁극에 이를 수 있는 수행법으로 정착되며 기존의 오해를 씻고 있다.

3000일 염불정진을 통해 염불선의 확고한 경지를 체득한 덕산 스님(청원 혜은사 주지)은 염불선을 이렇게 설명한다.

"염불은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뜻이지만 부처님이 어디에 따로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외도의 수행입니다. 생각 이전의 자리, 일체 생명의 근본자리가 부처님 자리이기에 나의 본래면목 자리 또한 진여불성입니다.<중략> 염불선이란 이러한 진여불성의 자리를 관하며 아미타불이나 관세음 지장보살 기타 불 · 보살님의 명호를 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염불선은 염을 하면서 하는 선수행입니다."

참선이 자기의 본래면목을 찾는 수행이듯 염불 또한 자기의 본래 자리를 참구하는 수행이란 것이다. 덕산 스님은 참선할 때 화두를 들듯 염불선을 할 때도 '염불하는 자, 이 누구인가?' 하는 의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덕산 스님은 <염불선, 염불하는 자 이 누구인가>를 통해 염불선에 대한 철저한 자기체험과 역대 고승들의 염불선 법문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염불선 수행법 1문1답'에서 염불선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수행방법 등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간추려 보면 이렇다.

-염불선의 장점은?

"염불하는 그 놈을 의심하면 조사선과 다르지 않은 대신, 기존의 간화선 보다 빨리 화두 의심에 들 수 있습니다."

- 선으로 볼 수 있는 까닭은?

"간화선의 경우 진여당체를 여의지 않고 화두를 참구할 때 바로 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염불도 염불하는 그 당체를 여의지 않고 할 때 염불선이 될 수 있습니다."

-염불선 수행에 임하는 자세는?

"연기법을 비롯해 삼법인의 이해가 필수입니다. 특히 제법무아의 도리를 바로 알아야 해요. 무아가 곧 우주의 근본 진여당체 자리임을 깨닫고 이 자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행법은?

"잠들기 전에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아주 편한 자세로 눈을 지그시 감으세요. 불보살의 명호를 처음에는 10번씩 빠른 속도로 외우십시오. 수월한 방법으로는, 명호를 줄이는 것입니다. 가령 관세음보살은 '관음!관음!'이라고 소리 내지 말고 마음 속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부르십시오. 그러면 번뇌가 끼어들 틈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행하다 보면, 번뇌가 끊어짐을 느끼고 '수행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알게 되죠.

덕산 스님은 염불선의 기본을 '꾸준함'에 두고 있다. 의심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의심을 놓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의심과 자신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하고 염불을 꾸준히 하며 '염불하는 이 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4조 도신 대사와 6조 혜능 대사를 비롯 무상 선사, 영명연수 선사, 태고보우 대사, 청화 스님 등이 염불에 대해 피력한 법문들을 실었다. 경전과 역대 고승들의 가르침을 떠나서는 꾸준한 정진도 어렵기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초심자들도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책

붓다의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붓다의 수행법 1 · 2
무산본각 지음
유토피아 펴냄/ | 1만8000원

5세기경 스리랑카 붓다고사 스님이 쓴 <청정도론>은 오늘날까지 남방 근본불교인 상좌부 불교의 준거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상좌부 경장과 논장에 나타난 모든 수행 관련 기사를 일곱 가지 청정으로 분류해 수록한 불교수행 주석서이다. 그러나 이 책은 불교수행법을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했을 뿐, 실질적인 수행의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지 못하고 위빠싸나 위주로 체계를 구성해 붓다의 수행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붓다의 수행법>은 붓다의 수행법을 여섯 단계 수행 시스템에 따라 체계화시켜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바르게 닦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한 이 책에는 싸마디(삼매)를 성취하는 수행법,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지관병수 수행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았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입정(入定)의 구체적인 방법과 호흡을 멈추는 지식(止息)의 위험성, 몸의 무게중심과 마음을 단전에 올려놓는 호흡의 중요성에다 수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신체의 생리적 변화 등도 설명해 놓아 초심자들도 읽기에 부담이 없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4	화, 욱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툽텐 초드론	미디어 윌
5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6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7	은둔	조연현	오래된 미래
8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앙리 브뤼넬	솔바람
9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10	염불선	덕산	클리어마인드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하늘의 소리 소리 I · II · III권
화제의 신간
성서(聖書)의 Word(말씀)
〈수능엄경〉의 관음법문



김성갑 지음 / 신국판
I 권 336쪽, II권 344쪽, III권 344쪽 / 각 권 10,000원

요가 대수행자의 마지막 수행처 선가(仙家)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상단전의 비밀' 오늘, 그 비기(秘記)를 공개한다.
'무소의 뿔처럼' '백척간무에 진일보' 보다 먼저 바로 볼 수 있는 정견(正見)을 가져야 한다.

불성이 곧 본성(本性)이며, 업장소멸 위대한 실체다

즉각 깨닫는 길

전국 서점 판매중

'간화선의 화두' '남방의 위빠사나'도 아니다.
오직, 묘촉을 만나야 하며 관음을 득해야 한다.
묘촉(妙觸)은 업장의 현주소이며 맑음의 바로메타,
관음(觀音)은 〈범음, 해조음, 승피세간음〉으로
천상의 음악이다.



"좋은 분들께 선물, 감동을 주는 책"
지금 바로 펼쳐보십시오!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288쪽 / 정가 10,000원

신 사주학 핵심비결 — 신국판/양장본/송월 스님/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신국판/양장본/근백안 편저/50,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글로벌작명학의 디자인 — 신국판/양장본/박수명 지음/2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모두 공심으로써 함이 없이 살라!

<지난호에 이어서>

▶질문자4(男): 저는 제주지원 심용회 회원입니다. 저는 제주지원 거사림 합창단을 잠깐 소개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 불교계에 최초로 거사림 합창단이 지난 1월 26일 법형제를 중심으로 창단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에는 제주문예회관에서 거행된 불기 2543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불교 합창제에 보살 합창단과 혼성으로 참가하여 많은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법가를 배우고 음성공양을 하는 뜻은 어디에 있으며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스님: 음성공양으로 보통 찬불가들을 하는데요, 이건 선법가입니다. 찬불가와 선법가는 다릅니다. 찬불가는 일체 음파가 법망에 통하질 않지만 이 선법가는 통합니다. 통하기 때문에, 노래라고 하지만 그것을 자꾸 부르면 그것도 아주 염원을 하는 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달린 거니까 생각을 크게 넓혀라 이거죠. 넓히면 넓히는 대로 나한테 이득이 오고 상대방에 이득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이 선법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합이 될 수 있고…. 이 선법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딴 데서 그렇게 선법가를 잘 지어서 법문으로 듣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선법가를 여러분께서 한 곡 한 곡 부르실 때 보면 너무나 기쁘고, 그냥 그 운기가 김으로 올라가서 불이 하늘을 두루 붙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넓히는 게 지혜를 넓히는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버리지 말고 한다는 거, 또 모두 공심으로써 함이 없이 살아라, 이런 뜻이 바로 놓고 가는 겁니다. 함이 없이 하라. 내가 한다는 말 없이, 내가 산다는 말 없이, 내가 죽는다 산다는 생각 없이 그냥 놓고 간다면 그것이 바로 벗어나는 길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때에 허무한 생각도 좀 들고, 무상한 생각도 들고, 좀 고난이 심하면 살기 싫은 때도 있고, 조용한 데로 가서 좀 있고 싶은 생각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가지죠, 뭐.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그걸 응용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 아냐!' 하고선 딱 책정을 해 놓으면 그게 그대로 화해집니다. 화해지고 넓어지고 그대로 웃어지고 그대로 편안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선법가를 요만한


그림 · 최주현

애들한테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애탄지탄하며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공부가 채 뭔지도 모르고 병이 들어서 어쩔 수가 없이 왔다가, 이제 조금 알았다고 그러는 분도 있고 다양하죠, 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각 지원의 여러분이 공부들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주지원에 계신 분이 지금 나오셔서 질문했는데 그만큼 하고 가신다면 그, 공부 잘하시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렇게만 하실 수 있다면…, 법사 스님이 아까 '국이 짜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런데 스님네들이 사는 데서는 짜면 그냥 물 타서 먹고요. 싱거우면 간장 타서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살아나가는 것도 다 그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전자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내 탓으로 돌려라. 모두가 내 탓으로 돌려야지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일체제불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다. 어디에 가서 이 부처 저 부처 찾을 게 아니라 일체제불의 마음들이 전부 내 한마음에 있으니 내 한마음 속에서 다 용도대로 써라, 이런 겁니다. 일체 만물이 내 한마음 속에 들어 있으니까 용도대로 꺼내 써라. 이렇게 간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지구 공장에서, 인간 만드는 공장에서 이거는 죄가 있어서 미생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미생물로 나와서 성장을 해서 인간까지 와야 사람이 되니까요. 도리를 모르니까, 업보가 있어서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대로 우리가 인간이 될 때까지 그렇게 치열하고 그렇게 어렵다는 뜻이죠. 인간 하나가 불쑥 태어난다 해서 인간이 아니죠. 얼마만큼 해서 인간이 됐느냐? 즉 말하자면 축생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느냐? 또 저런 나무들, 목성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물에서 나왔느냐, 흙에서 나왔느냐? 이 문제는 자기가 살아온 대로, 용도대로 주어진 거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못나게 나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못나게 나온 거는 자기가 일부러 그런 거지만,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못났으면 못난 대로 나오고, 까치 둥우리에서는 까치로 나오고 그렇게 그냥, 이걸로 들어가면 이걸로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사람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진짜 사람이라면 어떤 거를 알아야 되느냐? 종교라는 이름만 가지고 다녀야 되느냐? 아니다, 진리를 참구해야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도리를 알아야만이 우주 법계의 모든, 즉 말하자면 법망을 다 자유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법망에 걸림이 없다 이 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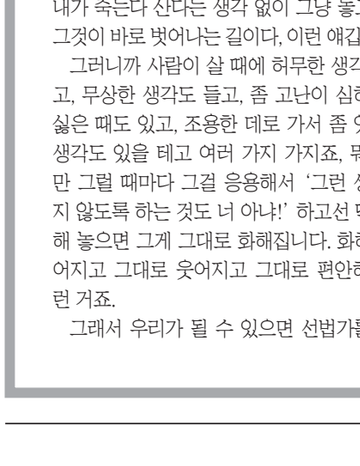
아무리 승려들이 못났든 잘났든, 일단 신도들이 볼 때는 그저 자기 주인공과 둘 아니게 봐라. 스님네들만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모두 자기와 같이만 봐라. 자기와 같이 보면 손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는데 꿈을 꾸었더래요. 너무 찌들려서 살다 보니까, 꿈을 꾸었는데 조상들이 다 나타났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조상님네들도 둘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둘이 아닌데 뭐 그렇게 성가시게 하고 그렇게 괴롭게 살게들 하느냐?"고, 이러니까 조상들이 나왔다가 다 싹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없어져서 그냥 연기처럼 해서 자기한테로 다 그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겁이 나 가지고 뛰어온 거예요. "연기처럼 해 가지고 저한테로 다 들어왔으니 이걸 어떡합니까?" 하고요. 그래서 "허허허…, 연기처럼 들어갔다면 네 영에다가 영이 연기처럼 해서 들어갔으면 그게 영이 몇 개나 되겠느냐?" 하니까 "영은 영이죠, 그냥." "그러면 됐지 않느냐? 그랬으면 벌써 너의 몸으로 인해서 재생이 돼서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스님네들도 모두 그렇지만 다 가족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부처님께서는 입산을 하러 오면 그거부터 물어보셨답니다. "너는 왜 한 짐 짊어지고 왔느냐?" "전 하나도 가진 게 없이 그냥 왔습니다." "너, 너의 식구를 다 짊어지고 오지 않았느냐? 짊어지고 온 거 다 벗어 놓고 오너라." 이럭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 떼어 놓고 해결을 하고 또 몇 달 만에 오니까 "아니, 그거는 떼어 놨지만 재산 문서를 왜 죄 짊어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진정코 공부하려고 들었던지, 돌아가서는 그 재산을 죄 그냥 배에다 싣곤 바다로 나갔더래요. 바다로 나가서 바다에다 다 집어넣으려고요. 있던 물품도 뭐, 그냥 전부. 그러니까 집에서는 식구 다 죽

☞21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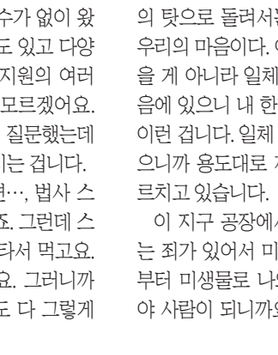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효종 스님의 가슴속에 묻은 남겨진 사연들…

둥지속의 대화



호스피스 활동과 간병인 봉사활동을 이끌고 있는 효종 스님은 지난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스님에게 병실은 법당이고 병원은 도량이었다. 그리고 함께 간병인 봉사를 하고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불자들이 도반이었다. '둥지 속의 대화'는 바로 효종 스님이 병원을 도량 삼아 수행하며 이어온 인연들의 이야기다.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극락으로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울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책에 담겨진 이야기들은 감동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동시에 전해준다.

– 현대불교신문 –



신국판 / 10,000원

현대북스 (051) 244-1251 (02) 2198-5151

삼존불 점안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삼세 일체불
입석 삼존불 점안식을 아래와 같이 대법회를 하오니
공사간 다망하시더라도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라오며, 인연공덕으로 삼세 일체불의
대 의왕이신 약사여래 부처님의 불력과 신통력의
가피로 사부대중의 각기 소구소원 만사길일
속성취하시길 발원합니다.

일 시 : 2007년 11월 17일(음력 10월 8일) 약사재일
점안시간 : 오전 10시 30분
장 소 : 경북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7번지 용암산 고경사

사단법인 대한불교 본원종
경북교구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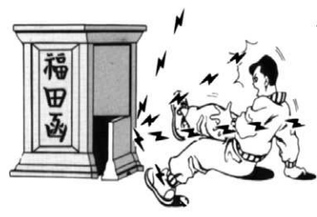
용암산 고경사 회주 · 종무원장 자광 합장
054)638-8886~7

※오시는길 : 영주 IC 15분 거리, 서안동 IC 20분 거리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일체가 내 한마음 속에 있으니 용도대로 꺼내 써라!

☞20면에서 계속

게 재산까지 가지고 가려고 그러느냐고 야단들을 하니까 "이렇게 해야만 식구가 다 산다." 그러곤 나가서 배를 바다에다 띄우려고 그러니까 공중에서 그냥 소리가 나더래요. "함이 없이 하라니까, 물건에 뭐가 붙었다고 그걸 갖다 버리느냐?" 그래서, 함이 없이 하고 착을 버리라는 말씀에 그걸도로 실어다가 집에다 갖다 주고선 그냥 가니까 그때서야 부처님께서 받아주시더래요.

우리 스님네들도 속가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단호하다면, 그냥 단호하게 맡길 수 있다면 그건 그만이거든요. 그것처럼 빠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지금 여기도, 정말이지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의 조상님들은 다 같이 와요. 내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소리냐고 그럴까 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공부 좀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의 조상님들은 그냥 고마워서, 자식이 그렇게 하고 손자가 그렇게 하니까 고마워서 그냥 따라 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천수만이 다 건져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몇 생이나 되겠습니까? 수천 생이 됩니다, 이 몸속에도. 그게 인과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지구라는 인간 만드는 공장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자유껏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근본에 있는 에너지로 그냥 우리는 자유스럽게, 때로는 이 모습으로도 되고 때로는 저 모습으로도 되고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이 우주 전체를 다녀도 손색이 없죠.

그러나 그뿐이 아니에요. 이 삼세가,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현실이거든요. 과거 미래가 현실이란 말입니다. 내일이다 하는 교차로가 있을 뿐이지, 어저께다 하는 교차로가 있을 뿐이지, 그 교차로라는 것만 알면 그냥 이렇게 하나죠, 그냥. 하난데 '그 하나도 모두 공했으니까 너까지도 놔라. 네가 있단 말도 하지 마라. 너도 공했다. 삼세가 공했으면 너도 공했고, 네가 공했으면 네 몸뚱이 속에 있는 의식들도 다 공했다. 다 공했으면 함이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니까 너는 죄도 없고 업보도 없고 인과도 없고 유전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네가 없는데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도리를 진정코 알아서 공부해 나가신다면 그 유전성이 폐제(廢除)가 되기 때문에 그 악화된 아픔, 병세 이런 것도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공부 한다고 해서 아주 잘 살게 된다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받지 않고 살게 되고 또, 진짜로만 믿고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자연적 웃고 살게 되고 생활도 지치지 않게 하고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업보가, 인과성, 유전성 모두가 다 무너지니까, 구름이 다 걷히니까 햇볕이 짱짱 비쳐서 내 젖은 모습을 다 말려준다, 이런 뜻과 같죠.

그래서 배운 글자로, 학식으로만 해서는 이 공부를 못 하죠. 학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지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수화풍을 베개 삼아서 나온 거니까요. 우리는 지수화풍에서 그냥 꼼짝없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요. 피만 조금 안 돌아도 야단법석이죠? 물 한 컵 먹을 것도 없으면 야단법석이죠? 불이 없어 보세요, 또. 불만 없어도 야단이죠? 공기가 없어 보세요, 또. 그냥 죽죠, 뭐. 그러니까 모두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수화풍 그 자체가 우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더 사실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아난이 채 못 알아들어서 좀 더 사시다가 가시라고 그런 말을 못 했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고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이 원하면 원하는 것까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꼭 가야만 된다 할 때는 가야 되겠죠. 이거는 양면의 살림살이뿐 아니라 두루 살림살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체에 두루 책임이 주어져서 있다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 뛰는 건요, 하나도 괴로움이 없고 하나도 걱정이 없고 하나도 하는 게 없고, 하는 게 없으면서도 진실로써 그냥 되는 거죠.

딴 데서 천도를 하고 왔다, 이러는데도 그 조상님네들은 그냥 거기 갇혀 있지 않으면 그냥 떠돌고 이러거든요. 그것을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마음이라야 되죠. 똑같은 염불을 해도 지극한 마음으로 주인공에다가 관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하고, 그냥 주인공에다 관하고 하는 거하고, 관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는 거하곤 다르죠. 만약에 신도가 똥을 누다가 그냥 왔다고 그래요. 그럼 밑을 딱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밑 씻는 것까지 참견을 해야만 되겠죠. 그래야 아주 편안하게 나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매끈하게 얘긴 못해도 그냥 내가 실천해서 아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대로 믿어 주세요. 그것이 진정코 진실이니까요. 어떤 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못 배운 거를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상당히 고달프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 어느 때에 타다 남은 숯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숯을 집어서 그냥 글을 쓴 거예요. 글자는 모르고 쓰기는 멋지게 써 놓은 거예요. 글자를 모르는데, 내가.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됐다면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자는 모르는데 그냥 숯으로다가 한문으로 멋지게 글을 써 놓았다면 그걸 누가 봐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 속에서, 즉 말하자면 내 과거, 바로 불성 자체가 연결이 돼 가지곤 '글자를 알려고 하지 마라. 글자를 알아도 그 소리, 글자를 몰라도 그 소린데 글자는 알아서 뭘 하느냐? 글자가 누구 하나를 건져 줄 수 있는 거냐? 글자 하나가 누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거냐? 네 마음이다. 못 배웠든 배웠든 네 마음이니까 그대로 해라.' 하고 일러 준 거죠.

산에 다니면서도 그때는 참, 동네에 내려가서도 얻어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 그때는 모두 먹을 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큰 소나무가 아니라 조그만 소나무들인데 물이라도 좀 빨아 먹으려고 했으면 위에 있는 순을 뚝 잘랐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도 생명인데 위의 순을 딱 떼어 놓으면 내 머리 떼어 놓는 거와 같더군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만난 것이 바로 인연이 아니겠느냐.' 하고선 그 맨 밑에 있는 가장자리 거를 떼었으니 거기서 물이 뭐가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물도 안 나오는 거를 껍데기를 벗기고선 빨아 먹고 이렇게 해 본 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야 되는 게 아니라 적게 먹어도, 물 한 모금을 마셔도 그게 만약에 빵으로 된다거나 이런다면 그냥 배고프지 않죠.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모두가.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믐밤에 풀숲에 앉았어도 십 리 안팎으로는 어느 거든지 거기를 범접치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뱀이었거든요, 허허허…. 처음에는 뱀이 보이면 상당히 무서웠는데, 언젠가 지나가다 보니까 샘터 옆에 큰, 뱀이라고 그럴 수가 없죠, 크니까. 구렁이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머리만 딱 들고선 있어요. 그런데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더러운 거냐, 깨끗한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목이 마른데 더럽고 깨끗한 게 어디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급하면 이거보다 더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더러우냐 깨끗하냐 이걸 묻느냐?'고 그랬어요, 되려. 반문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것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거기다 똥 마려우면 똥을 눠라.' 이러는 거예요. 만약 지금만 같아도 문제가 없었겠지만 옛날에 나이 적었을 때 그런 문제가 일어났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나기를 '어, 일체 사람이나 짐승들이나 더럽고 깨끗한 것이 따로 없구나. 새는 새대로 사는 생활과 삶이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삶과 모습이 있고, 모두가 제각기 모습이 있고 삶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 그게?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한 것이 없는 까닭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똥을 누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싹 또 그게 없어지더군요.

그 구렁이가 보이는데 구렁이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나만 노리고 쳐다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 글쎄 그거를 같이 앉아서 들여다보고 있었죠, 생각이 날 때까지. 영 일어나지도 않고 눈도 이렇게 돌리지도 않아요. 그러니 뭐,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허허허…. 아이, 그냥 똑바로 마주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얼마쯤 앉아 있으니까 그 지금 고개 들고 있는 구렁이가 똥그랗게 있는 모습과 길게 가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서 '응, 기어가면 한 일(一)자고, 뚱그렇게 뭉쳐서 머리 들면 흰 백(白)자고, 이것이 그냥 뚱그러면 이 우주 전체가 다 하나로구나. 하나라고 가르치는 거로구나. 저게 나를 가르치려고 이랬구나. 저것도 바로 내 주인공과 둘이 아니야. 너도 그렇지?' 그러는데 눈 깜짝할 사이도 없이 그냥 가 버려요, 그 생각이 나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무섭질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마주 쳐다본 게 한 너덧 시간 됐을 거예요. 생각이 안 나니까, 내가 얼른 생각이 났으면 그게 얼른 갔을 텐데…, 지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생각이 날 때까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렁이든 뭐든, 내가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는 모습으로는 영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뜻으로다가 이렇게 만나게 하고 그랬죠. 여기 처음 이사 와서도 눈이 자박자박하게 왔는데 발자국이 탁 나 있어요. 산에서 토굴에 있을 때 만났던…, 앉았다 간 자리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어이, 왔다 갔구나. 이렇게 모습으로 오지 않아도 될 텐데 넌 왜 모습으로 왔니?' 그랬죠.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모습으로 안 오고….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에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도리를 아신다면…, 참, 사람이 짐승이 돼서 짐승의 대접을 받고 사는 것들을 또 봐 보세요. 그걸 아신다면 그런 짐승들을 보면 뭐, 그냥 지나가지 않게 되죠. 사람이 됐다가 짐승이 돼서 산다면…, 개도 그런 개를 봤거든요. 그리고 또 짐승이 사람으로 된 사람은 많고요. 처음으로 사람이 돼서 살면서 사람으로 또 태어나기가, 재생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도리를 좀 알고 가야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한 번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세 번을 죽어서 거듭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부처님의 그 한자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고 저기고 간에 똑같이, 그런 분들에 한해서 마음공부들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제 이다음에는 '이건 죽어도 살아도, 떠나고 헤어지고 이런 것이 없구나. 은하계가 그렇게 많고 우주가 그렇게 많아도 떠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 떠나고 하는 게 없이 헤어지고 떠나고, 이렇게 하면서 잘나잘나 화해 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자유스럽게 사는 거구나!' 하고 그럴 때는 내 생각도 많이 나시겠죠. 허허허….

그럼 감사합니다. 모두 여러분께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참 감사하기 짝이 없어요, 아주. 무식하니까 무식하게만 만날 말을 하죠. 그렇지만 무식하더라도 이해하시고 그대로 적응해 주신다면 그대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 법문은 1999년 10월 3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함이 없이 하라!
내가 한다는 말 없이 내가 산다는 말 없이
내가 죽는다 산다는 생각 없이 그냥 놓고 간다면
그것이 바로 벗어나는 길입니다!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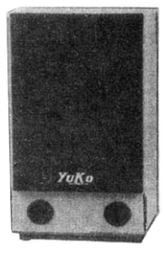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5,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오복증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이를 뽑고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대회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치아가 윤택을 내며 하얀 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온 나라를 핏빛으로 물들인 질투와 복수의 여인



9대 성종의 폐비 윤씨 회묘 (윤씨지묘→회릉→회묘)

"경들은 들으시오!"

성종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유언을 한다. 침전에 모인 대신들은 숨소리를 죽이며 유언을 듣는다. 펄펄한 서른여덟이건만 천명을 어길 수는 없는지라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왕은 말을 잇는다.

"명심, 또 명심들 하시오. 내가 죽고 난 후 100년까지는 폐비에 관한 일을 그 누구도 입에 올리지 마시오. 알겠소이까? 특히 세자의 귀에 폐비라는 말이 들어가서는 결코 아니되오."

신하들은 엎드려 "망극하여이다"를 합창한다. 성종의 가슴에 암덩어리처럼 담겨 있는 것이 폐비 윤씨 문제다. 그러나 그 당부는 오래가지 못한다.

사극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는 최고 순위 인물은 누굴까? 태종, 단종, 세조, 연산군, 숙종, 영조 등이 떠오른다. 그들과 엮인 양녕대군, 사육신, 한명회, 폐비 윤씨, 장희빈, 사도세자, 황진이 등의 이름도 거명된다.

폐비 윤씨의 무덤은 능이 아닌 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얽힌 사연이 많아 그녀의 묘를 찾아가지 않을 수 없다. 사랑과 증오, 시기와 질투, 모함과 복수, 성취와 상실, 인과응보가 한 덩어리로 뭉쳐진 역사의 중심에 윤씨가 있다. 비장하고 처참한 드라마의 중심에 윤씨가 있다.

월탄 박종화의 역사소설 <금삼의 피>는 폐비 윤씨가 중심인물이다. 사실과 허구적 상상력을 접목시켜 쓴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다.

윤비는 일개 궁궐 나인에 불과했으나, 원비 공혜왕후가 죽고, 그녀가 원자를 낳자 중전이 되었다. 원자를 낳아 기르는 동안 성종은 또 다른 후궁을 총애하기 시작한다. 후궁 정귀인은 중전 윤비 보다 더욱 아름다웠기 때문에 윤비와 갈등이 생긴다.

어느 날 윤비는 자신의 친잠(親蠶) 행사에 나오지 않는 정귀인을 잡아다 엄나무 가시를 등에 얹히는 등 하룻밤 동안 석고대죄를 시켰다. 이에 앙심을 품은 정귀인은 점쟁이와 의논하여 바늘을 꽂은 동자상을 동궁의 처소 부근에다 파묻어 동궁 '융'을 병들게 했다. 이 사실을 안 윤비는 정씨를 당장 없애려고 했으나 성종의 총애가 워낙 두터워 죽이지 못한다.

임금 얼굴 손톱으로 할퀸 죄로 사약
피눈물 금삼 아들에 전해달라 부탁
생모 恨 알게 된 연산군 폭정 휘둘러

오랜만에 왕이 윤비의 침소에 들었으나 그간 자신을 홀대한 앙심을 참지 못하고 악을 쓰며 대든다. 끝내 임금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버린다. 역사에 남은 빨간 손톱자국이다. 이 일을 계기로 윤비는 사약을 받는다. 사약을 받으면서 윤비는 자신의 피눈물이 묻은 한삼 소매 조각을 친정어머니 신씨에게 주면서 그것을 동궁에게 전해 줄 것을 부탁한다. 윤씨의 피눈물이 묻은 금삼(錦衫)은 신씨 손에 옮겨져 비밀히 간직된다. 그 후 동궁은 자신의 생모가 한때 왕비로 있다가 폐위된 후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어린 연산의 가슴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한다. 죄인의 아들, 폐비의 아들, 어머니 없는 외로운 자식이라는 생각은 그의 성격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던 차에 성종이 승하하고 연산이 왕위에 올랐다. 왕위에 오른 연산은 먼저 폐위된 생모 윤씨를 복위시켜 종묘에 안치하려 했다. 그러나 대왕대비와 조정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연산은 자신의 명을 거역한 조정의 신하들에게 강한 분노를 느낀다.

어느 날, 연산은 궁중 뜰에서 성종이 극진히 귀여워하던 사슴을 활로 쏘아 죽였다. 이 사건은 앞으로 연산의 폭정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전조였다.

그는 무오사화에 이어, 외조모 신씨와 임사홍이 폐위된 윤씨 사건을 들추어내자 생모 윤씨를 윤비로 복귀시켰다. 동시에 신씨로부터 자기 생모 윤씨의 폐비 사건의 전말을 듣고, 정귀인 일파와 사약을 내리는 데 방조했거나 이에 연루된 신하들에 대해 참혹한 징벌을 가하는 갑자사화를 일으킨다.

이 양대 사화로 인해 연산의 주위에는 충신이 제거되고 간신배들의 횡포가 극심해진다. 연산은 연일 황음방탕(荒淫放蕩)과 주색잡기에 빠져 백성의 고혈을 짜며 정사를 게을리 한다. 백성의 원성은 높아가고 뜻있는 선비들의 비판의 소리가 팔도에 자욱해진다.

마침내 군부를 장악하고 있던 박원종 일파가 연산 13년 9월 1일에 휘하 군대를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가 연산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리하여 새로 왕위에 오른 연산의 이복동생 중종은 전왕을 연산군으로 강봉하여 교동에 안치시킨다. 대하비극의 끝이다.


폐비 윤씨의 회묘를 밝히고 있는 장명등.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폐비 윤씨의 태실을 알리는 비석.

외떨어진 회묘, 서삼릉 능역 안으로

회묘는 성종의 둘째 부인이자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의 묘이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8-4 서삼릉 능역 안, 비공개 지역에 있다.

윤씨는 한미한 양반 판봉상시사 윤기견의 딸이다. 집안이 궁핍해지자 궁에 들어왔다. 성종보다 열두 살 연상이지만 빼어난 미모로 성종4년(1473) 숙의에 봉해지고 원비 공혜왕후가 승하하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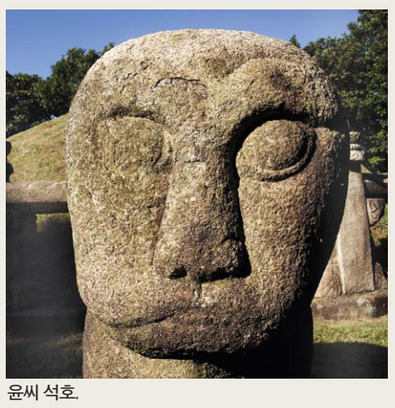
그해 연산군을 낳았으나 심한 투기와 모함으로 폐위되어 사약을 받았다. 연산군 즉위 후를 생각한 성종은 1489년 묘비조차 없던 윤씨 묘에 '윤씨지묘'라는 묘비를 세우도록 허락했다.

1494년 성종이 승하하고 국장기간에 연산군은 자신이 폐비 윤씨의 자식임을 알게 된다. 1504년 연산군은 윤씨의 묘를 능으로 격상시켜, 회묘에서 회릉으로 고쳤다. 능의 석물을 왕릉의 격식에 맞게 조성하고, 제향 절차를 종묘에 위패를 모신 역대 왕들의 제사 절차에 맞추도록 했다.

1506년 연산군이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자 회릉은 다시 회묘로 격하되지만 겉모습은 바꾸지 않는다. 회묘는 원래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었으나 1969년 10월 25일 경희대학교 공사 때 이곳으로 천묘했다.

회묘가 있던 자리는 현재 경희의료원이 있다. 외따로 있던 회묘가 조선 왕실의 묘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은, 당시 왕실 묘를 대규모로 옮겨버린 도시 개발 바람 덕분이다.

회묘(懷墓), 그 이름조차 심란하다. 회(懷)자는 품을 회, 돌이킬 회이다. 품을 것은 무엇이고, 돌이킬 것은 무엇인가. 덕이 부족했던 여인, 중전의 자리와 애정의 자리를 분간하지 못했던 여인, 공덕 쌓는 일에 소홀했던 한 여인으로 인해 온 나라에 피비린내가 자욱했다.


윤씨 석호.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신 수 비 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 름 대 사 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법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새는 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불자생활정보 | 23면

▷ **문의** : TEL 02)2004-8219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현대인의 건강을 위한
수련이 편안함과 회복이 강력함
선관단식
www.zenfast.com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남선원
055)834-1115
016-849-3858

한의 침구학 강의
정통체침, 오행침, 내경침 外
음양오행에 의한 학습으로 쉽게 물리를 터득함
매주 금요일 2시~5시
11월 9일 개강(공개강좌)
동묘역옆(1,6호선)3,4번 출구
도현사랑방
017-710-2420
02)2236-7852

역학개인지도 숙식제공
사주명리 관상학 구성학
풍수 음양택 성명학 체면확
빙의 전생 영가 치유 비법
보현사 학산철학원
054)383-4569
016-717-1592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6년)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주와불교교리-수양론강의
인과론,개운론,섭생론,
치유론,수양론,길흉론
3-6개월 과정.월20~50만원
내강010-3656-5687
기초가 있으신분만 강의합니다
단체및 개인출장지도
(스님 또는 포교원)

역학수강생 모집
기초반(무료),중급반,연구반
직장인을 위해 저녁반 운영함
역학30년 유명교수님:속성 완수
인천불광사
032)508-0381
019-9007-9746

보살선방
(1인1실-방1,주방,거실,욕실)
(부부실-방2,주방,거실,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며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 시주금 내시고 종신제)
불광사,불광대학
053)656-6766

빙 의
병원에 가도 병명없이 아픈 분
신병 · 무병 · 알콜중독 ·
우울증 · 컴퓨터오락중독
www.jijangsw.com
054)383-8553
(부처골 지장선원)

범음 범패 불공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49재, 천도재,
각종행사
천수바라, 사다라니다라,
승무작법
010-2570-3847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49재, 천도재,
각종행사, 천수바라,
사다라니, 승무작법
010-2570-3847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법당조성을 이루고자 하나 무소유의 시작으로 각 사찰 대덕 스님의 보시를 기다립니다
불보살님은 조성하고 있으나, 지장탱화, 신중탱화, 다기, 촛대등을 (목불가능) 갖추지 못하고 있어 혹, 보관중인 탱화 및 다기 촛대를 보시해 주시면 대덕스님의 큰 공덕으로 기도정진 하겠습니다
▷위치 :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223-1번지
무량암 관정스님 합장
010-6665-6990

주방일 맡아 하실
자애로운 보살님
모십니다
(청주 근처 호스피스
요양원 정토마을)
043)298-2258
011-9732-856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곤지암)
042)271-6249

조계종 소백산 국내제2
지장보궁에 기도하며 관리할
청정한 40~50대의
비구니스님과 아울러
후원을 맞아볼 40~50대의
신심있는 공양주를 구함
▷지장보궁 내원암(경북)
054)653-1180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주
010-9408-7447

기도 성불을 이룰 수 있는
청정한 약사여래
나반도량입니다
천일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보살님 모십니다
055)835-9450
011-9790-1779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합천
055)932-570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김포
010-9469-6625

가족처럼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5)883-8846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청원
043)297-8728
016-428-872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비구니스님 기도도량)
011-435-257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불암사)
043)271-624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북한산성입구
(50세~60세사이)
02)387-3216

기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칠곡 송림사)
054)976-811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남거제)
010-8813-6867

비구스님입니다
어려운 절에 모든 일
무료보시 해 드리겠습니다
경남지역 고요한
사찰이나 암자
043)742-5431

역 학 공 부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 사 주 초 급 : 11/12(월) 18:30 속성반:11/13(화)
● 전문가 과정 : 11/9(금) 18:30 이선종 교수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 자격증
사주 전과정 45만원 한국 역학협회
월간역학교육원 (02)2264-0258

금산 홍삼 액기스(금산수삼센터88)
당신도 병없이 오래살수 있다
● 게르마늄 탕기 구정구포 홍삼 24시간 숙성 6년근 원액-100ml×60포 11만원
● 대한축구협회 공식공급용 홍삼(오가피외 8가지 첨가) -70ml×60포 7만5천원
● 십전대보탕-100ml×60포 7만원
당뇨있는분 누에가루환 25일분 무료드림
KBS1,2,MBC,동아,조선,중앙일보 보도자료드림
010-2414-4984 입금계좌: 농협 187-02-274348(이양희)

사주운세 전화상담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02)826-5067 이 통화중 일때
02)574-3427 로 걸어주세요.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명리학 통달 [사주첩경 이석영 저]

이런 분 찾아오세요.
고질병으로 굿이나 영가천도해도 효과 없는 분
학업성적 부진, 가출, 아는 문제 잘 틀리는 학생,
부부간의 갈등, 혼사 지연, 부모자식간의 불화,
우울증, 알코올 중독, 사업 고민이 많으신 분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삼재 등이 있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하지만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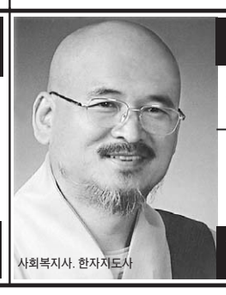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易) 정 통 命 理 學 (學
四柱 비법완성
命理를 완성코져 하는 분
"전문가 양성"
정통교재-命理學 비전,
命理學 비결
각권 30,000원
인천 明陽 명리학당
연락처 : 032)330-4684, 032)503-4684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사찰 행사 49재, 천도재, 불상점안, 산사음악회
(범음범패, 바라, 작법무, 화청, 전통무용)
영산회상 예술포교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겸합장)
문의 051)557-1130/011-482-2091
홈페이지 : www.천도재.kr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행자(예비스님) 모집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연령 : 50세이하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 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2007년 1학년 경전반 편입생 모집 - 반야심경, 금강경
● 회주 우학스님 특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기초에서 백법 까지 실전에
임할수 있도록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람에 일을 판단하는대는
옛부터 육임이 제일이라 했습니다.
720 국수에 담긴 비술만 터득하면
어떠한 점사도 가능한것이
육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함께
학문을 배우실분들을 원합니다.
◆ 직강수강료 : 100만원


처음할말 = 문서 시험은 후에는 길로된다
가정을 잘다스리고 화합하세요
그래도 가정이 제일입니다 나를 구해주고 의지할 곳은 가정입니다

육임 동영상 CD판매 판매가 100만원
거리가 멀어서 직강을 들을수 없는 분들은 동영상 CD와 교제로 육임을 공부하실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실 수 없어도 ID와 비밀번호만 치시면 고화질의 동영상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공부는 직강과 동일 합니다.

720 국수 CD 판매 판매가 100만원
육임에 진수인 "초사(왜 왔는가?, 하고자 하는 일은 될까 안될까?)"를 그날에 시간만으로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수 있는 육임만에 비법을 그날 시간만 택하여 국수만 찾으면 모든 점사가 명확히 수록된 CD입니다.
육임에 용어와 시간간택법, 보는 요령등을 CD에 담아 같이 보내드리며 직강이 가능한 분들은 4회 수강권을 같이드립니다.

※직강신청+육임동영상+720국수CD 구매시 **특별가(200만원)** 적용
공 념 학 당
■ 상담문의 : 02)793-7333 ■ 홈페이지 : www.saju79.com
■ 사 무 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 (예금주 : 박옥자)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보리정사
● 주 지 : 성해(박정현)
● 주 소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문명리 647-2

상기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7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大韓護國佛教 彌勒禪宗
종도모집안내

대한호국불교 미륵선종은 중국 숭산 소림사에서 禪의 初祖이신 達摩大師의 法脈을 **소림사 釋永信 방장으로부터 전법 수계받은 제34대 제자 釋延和 총무원장**께서 창종하신 종단으로 한국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종풍을 정정케하고 禪花를 꽃피우고자 분연히 일어선 종단입니다.

이에 뜻을 함께하실 종도들을 모집합니다.

총무원장 德山 釋延和


△총본산 용화사

달마문화축제 동참안내
11월 24일(음, 10월 15일)
소림사에서 열리는
달마문화축제행사와
수계법회에 종단을 초월하여
동참하실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총본산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 2리 산 247번지 미륵산 용화사
전 화 : 033)765-0122(스님), 761-7008
02)766-6800 / 011-285-6800
인터넷 : 용화세계 / www.yb108.com

효사육임복변집

▷ 250만원 ◁

온 시간, 전화한 시간으로만 판단 합니다.
정확합니다.

- 왜 왔는가?
- 어떤 정황인가?
- 무슨 귀신의 침범을 받고 있는가?
- 어떤 부정 빌미가 붙어 있는가?
- 누구의 산소에서 어떤 탈이 났는가?
- 시험 · 승진 · 당선 · 취직이 되는가?
- 부귀빈천
- 현재운세, 금년운세, 12년간 운세
- 1년 월별 신수
- 초사
- 육임 직지 요결
- 가정 사정
- 묻는 목적사 항목별답
- 각 일별, 시간별 길일, 길시, 길방

이상 모두 써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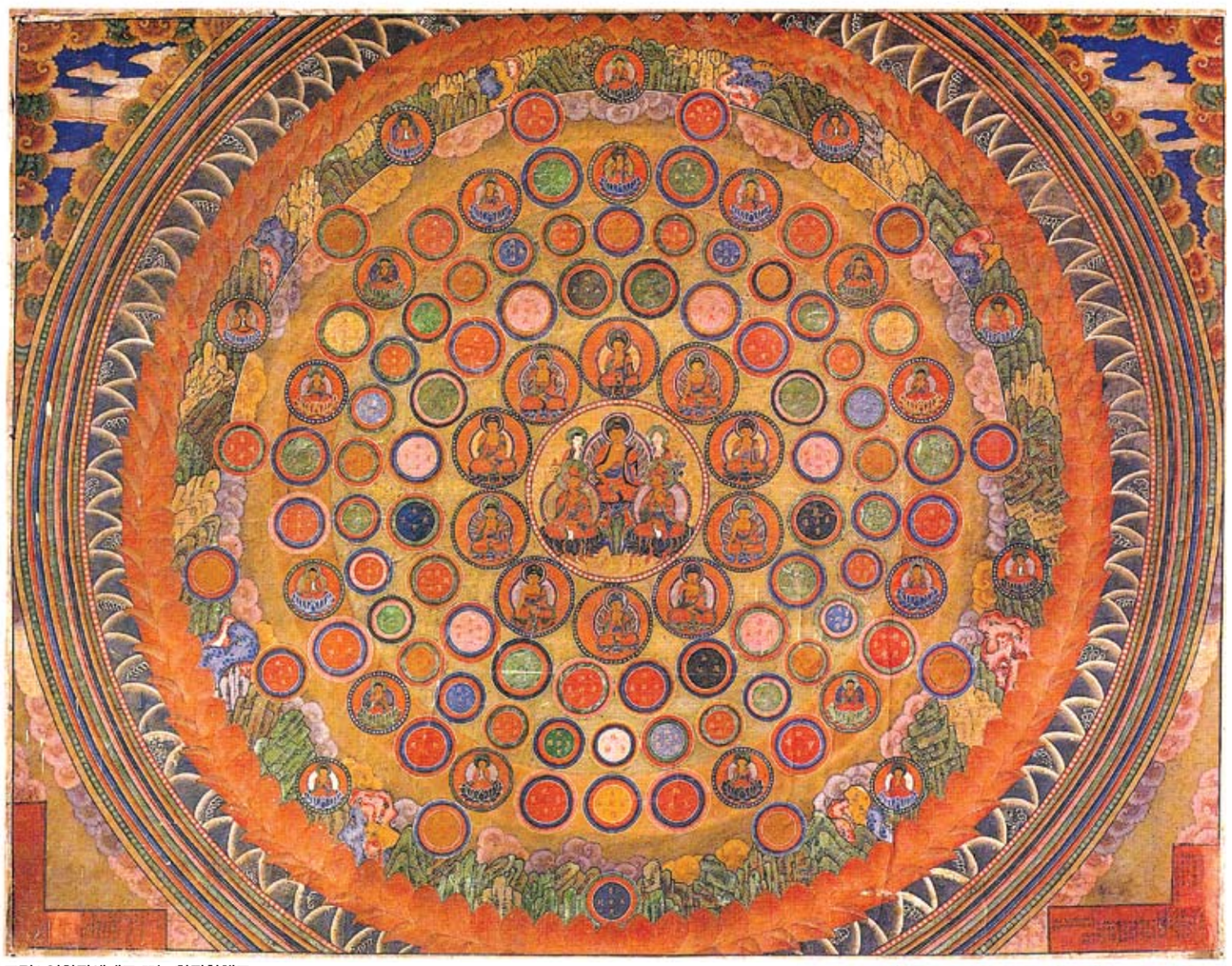
육 임 나 라 (주) 02)993-8680
www.taoetmple.net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0-951487 <육임나라>
농협은행 170338-56-155880<김나형>

만개한 연꽃 속에 알알이 박힌 광대무변한 세계

불화 속의 명장면 (36)

연화장세계(하) : 연꽃 씨방 속의 세상



-19세기후반 경북 용문사 '연화장세계도' 마본에 채색 230x297cm

그림1:연화장세계도 또는 화장찰해도.

주변 일체의 모든 것은 비로자나의 화현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비로자나, 다시 말하자면 비로자나라는 진리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한다. 지하철 안에서 <화엄경>의 이 대목을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무표정한 사람들의 얼굴이 들어온다. 이들을 포함한 나까지 모두 비로자나의 화현이란 말인가. <화엄경>에서는 현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진리로 보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포함한 이 우주에는 이러한 진리가 무궁무진하게 가득하여 망망한 법성의 바다(法性海)를 이룬다고 한다. 물론 이 진리 자체를 비로자나라 하는데 이는 불성(佛性), 법성(法性), 법계(法界) 등으로도 일컬어진다. 그런데 이 개개의 법성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물처럼 얽혀 연결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저 타인들도 모두 나와 연관되어 있다는 말인가.

<화엄경>에는 화장세계품(또는 연화장세계품) 뿐만 아니라 세주묘엄품, 여래현상품, 비로자나품 등 방대한 양의 품(品)에서 비로자나의 장엄한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찬송을 찾아볼 수 있다. 온갖 형용사들이 총동원되어 묘사되고 있는 이 웅장한 대서사시와 같은 망망한 어휘의 바다 속을 한참 표류하다 보면 그 요지는 대략 다음 두 가지로 모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비로자나의 세계가 무수하다는 것, 그 무수한 세계 속의 부처(또는 법성) 또한 무한하다는 것이다. 이는 다함이 없는 법계는 '법계무진(法界無盡)'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법계연기(法界緣起)'라는 원리로 표현된다.

먼저 층층이 중첩되어 다함이 없는 중중무진(重重無盡) '법계무진'의 비로자나 세계는 큰 바다에서 피어오르는 커다란 연꽃에 비유되는데 이를 일컬어 연화장세계라 한다. <화엄경>의 '화장세계품'에는 그 표현 불가능한 광대무변의 세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향수의 바다에 피어난 커다란 연꽃의 연꽃잎은 거대한 철위산과 같은데, 그 안의 화탁(씨방을 감싸 후에 열매가 되는 꽃턱)은 다이아몬드의 대지와 같다. 이 대지에는 무수한 구멍이 있다. 어디든 향수의 바닷물이 넘쳐나고 있는데, 각 구멍에는 각각 한 개씩의 세계종(世界種)이라는 씨앗이 들어있다. 이 세계종의 가운데에는 상하로 20개의 세계가 있고 각 세계의 주변에는 또 다른 무수한 세계가 둘러싸고 있다. 이 중첩되는 20개의 세계 중 밑에서 13번째가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이다. 이러한 연화장세계와 같은 세계해는 또한 무수히 존재한다.'

비로자나의 영겁에 걸친 공덕과 수행으로 탄생하게 된 무수한 세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원천은 '물(향수해)에서 피어오른 연꽃'이다. 그리고 거기서 또 무수하게 파생되어 생성되는 세계를 연꽃 씨방 속에 담겨있는 씨앗의 생명력에 비유하여 '세계종(世界種)'이라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연꽃 속에 품어져있는, 함장(含藏)되어있는 세상이 '연화장세계'이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 '연화장세계도(또는 화장찰해도)'이다. (그림1,2)

커다란 둥근 원 안의 가장 가운데 중심원 안에는 비로자나부처님과 문수보살, 보현보살, 비로자나삼존이 있다. 그리고 석가모니의 제자를 대표하는 아난과 가섭이 추가되어 그려져 있다. 이 협시들은 비로자나가 석가모니임을 암시하는데, 비로자나가 곧 석가모니라는 불이(不二)의 논리를 조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연화장세계는 곧 사바세계라는 사실에 귀결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중심원 밖으로는 시방세계의 부처님을 대표하듯 다시 10개의 원이 있고 그 안에는 부처님이 앉아 있다.



그림2:연화장세계도 또는 화장찰해도.

이 10개의 원 밖으로 다시 각 10개씩의 크고 작은 원이 퍼져나가듯 배치되어 있다. 이 원들은 마치 회전하며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를 늘여가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준다. 불교에서 10이란 숫자는 무진(無盡)을 상징한다.

화탁의 대지 안의 원들에는 111개에 해당하는 세계종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다. 이 대지를 녹색과 황색의 암석 준봉이 열을 지어 빙 둘러있는데, 이는 연꽃대 주변 사방으로 둘러있다는 금강륜위산이다. 이 금강산과 그 안쪽의 화탁 속 111개의 세계종은 다시 보드라운 붉은 연꽃잎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이 연꽃잎 밖으로는 마치 톱니바퀴 문양처럼 보이는 향수해의 파도 작은 포말을 일으키며 다시 그 둘레를 두르고 있다. 마치 만개한 연꽃 안의 씨방석을 들여다보는 느낌이다. 이 씨방석안에 알알이 박힌 연꽃 열매인 연밥(蓮實)이 바로 세계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계종은 서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20중으로 중첩된 광대 세계를 중심으로 다시 111개의 세계가 있고, 다시 티끌 수만큼 많은 세계가 그 주위를 둘렀는데, 이는 제석천의 그물(인드라망)처럼 서로 얽어져 있고 그 가운데에서 무수한 부처가 출현하여 중생들 속에 충만하다'고 한다.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드리는 오분향례 예불문 속의 '시방삼세(十方三世) 제망찰해(帝網刹海)'라는 구절을 익히 접해보았을 것이다. 풀이하자면 '모든 장소(시방)와 모든 시간(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에 제석천의 그물처럼 모두 연결되어 존재하는 광대한 바다'란 뜻인데, 이 짧은 글귀에는 화엄의 세계가 아주 잘 압축되어 표현되어 있다. 제망(帝網), 제석천의 그물은 인드라망(또는 세계망)으로 일컬어진다. 이 끝간데 없이 펼쳐지는 그물의 수많은 그물눈에는 투명 구슬이 달려 있는데, 이 구슬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 끊임없는 투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세상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모두 독립된 개체로 보이지만 사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생성되고 또 존재한다는 '법계연기'의 원리를 '인드라망'에 비유하는 것이다.

나를 비롯한 모든 중생, 아니 세상 만물 모든 것에는 불성(佛性)이 존재하고, 또 이 불성은 서로 비추어 존재한다는 사실, 법계무진과 법계연기! 연꽃 속 세상을 들여다보며, 다시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과연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되돌아보게 된다.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법계무진' 한 비로자나의 장엄 세계에 대한 찬미 드러나

'모든 존재는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법계연기 논리 표현

불자정보 652호

▷접수처
TEL 02) 2004-8215
732-1522(直)
FAX 02) 737-0696

포교당 임대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 건평 40평(3층건물중 2층)
- 가액 : 8천만원 (전세 5천만원, 시설비3천만원)
- 현재 법회가 열리고 있으며, 사정상 양도하고자 함

053)759-0108
011-506-2282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대가면
- 대지 : 130평
- 건평 : 약20평
- 칠봉산 기도처로 유명하며 전원주택용으로도 용이함
- 가액 : 3천 5백만원

016-533-5100

사 찰 안 내
- 위치 : 영덕 강구 회센타(옆)
- 대지 43평, 건물 40평
- 법당, 요사채, 산신당 총평수 225평
- 계곡 공유부지 200평 계곡있는사찰
- 동해바다가 보이고 강구항과 관광객이 모이는 곳
- 가액 : 1억5천만원(전세 5천만원) 몸만오시면 됩니다

011-556-5507

사찰 전세 안내
- 위치 : 전남 장흥
- 대지 : 350평, 법당 : 20평 요사채, 삼성각, 공양실 등 총 건물 5동
- 전체 기와단청, 석불, 거대 바위산 밑 위치, 교통편리
- 전세 3천만원 양도가 : 협의후 절충가능

018-603-1456

도심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부근 (동묘역 앞)
- 평수 30평, 3층건물 2층 법당1, 방2, 보일러 및 주방 시설 완비
- 현재 포교원으로 사용중이나 일반 점포로도 사용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100만원)

011-310-0361
02)2236-0361

천하명당 절터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 읍내
- 대지 : 300평
- 건평 : 2동 80평
- 준농지(관리지역) : 2000평
- 가액 : 4억7천만원

017-531-2888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74-7외 4건
- 평수 : 2,100평
- 가액 : 1억2천만원(절충가능)
- 포장도로 접함, 토목 석축 완료
- 풍수적 최고의 명당터

011-9837-8668
061)362-9863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내에서 5분거리
- 대지 : 470평
- 법당 30평, 산신각 2평, 요사채 30평, 10평
- 심야전기, 조경이 되어있고 앞에는 계곡
- 가액 : 3억원

016-274-317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대연동
- 평수 : 72평 (아파트 약4천세대 상가 5층)분양받았음
- 모든시설 최상급, 산사와 같은 포교원 주변 자연경관수려, 교통편리, 주차편리 포교에 원력있는 스님 최상의 조건
- 가액 : 농협융자 3천만원 안고 1억 3천만원

016-9878-1282

임법당 주택안내
- 위치 : 부산 구포동 구포시장 위
- 대지 : 40평 1층 슬라브 30평(법당 15평) 2층 신축법당 허가 有
- 8m 도로 주택지 사거리 코너 향후 재개발 예정지
- 가액 : 1억5천5백만원

010-2563-5550

사찰(터)안내
- 위치 : 충남 천안 병천
- 부지 : 780평, 요사채 40평
- 대웅전 18평, 지상전 20평
- 공사 70%완성 진행중
- 가액 : 4억원

011-339-1946
011-294-8497

사찰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내원사 입구
- 보증금 : 1천만원, 월세 20만원 시설비(시설 및 모든비품)2천만원
- 방3, 거실, 화장실- 실내2개, 옥외1개
- 평수 170평, 건평50평
- 모든 시설완비, 법회가능

010-4573-0480
055)375-437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
- 특징 : 3불 부처님, 탱화
- 평수 : 10평
- 모든소지품, 타종 인수하실분
- 보증금 200만원/월20만원 시설비 : 300만원 (창원 스님이면 더욱 좋습니다)

055)237-0032
(저녁에 통화 가능)

복지추모사업을 위한 "절"
- 위치 : 경북 고령 국도변대구에서 30여분
- 대지 약800평, 건평 약80평 (임 2천평 유입가능)
- 법당 25평, 방 9개, 주차장 약500평
- 요양원 및 추모(사리불 안치) 사업 진행중
- 동참 및 운영할 분 요망
- 인수가 : 2억1천만원 (9700만원 융자 안고)

017-501-2315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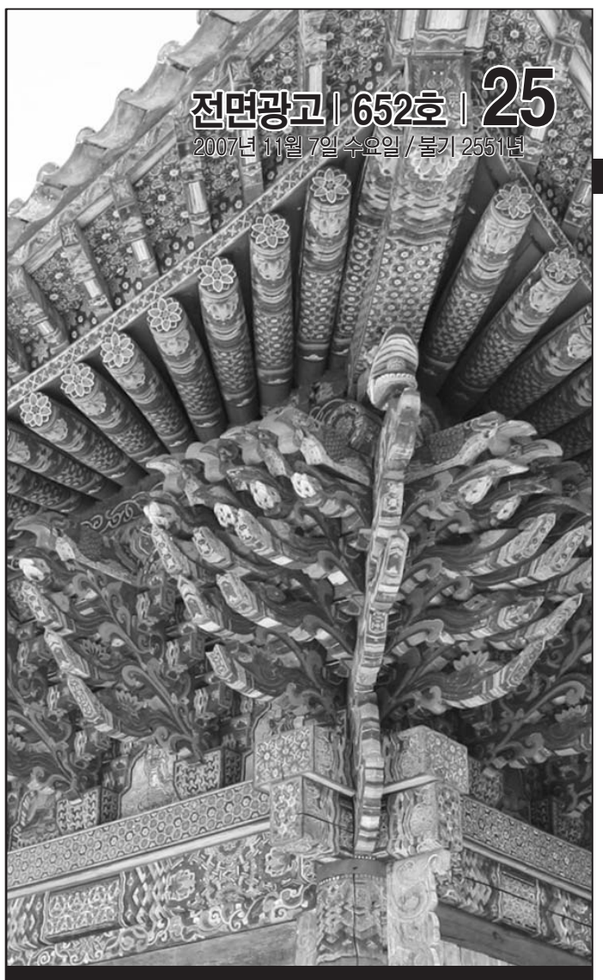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 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현대불교 buddhanews.com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 위치 : 남쪽 바닷가 거제도
● 부지 : 8,000평(100% 관리지역 사용가능)
● 법당 : 목조 50평(5포 7포)
● 목조건물 8동 기타 대종각
해수관세음보살 15자(연못 200평)
● 부산~거제간(30분 소요)대교 공사중
주변경관 바다전망 최고 정남향
30년 전통 사찰 최고의 도량
● 가액 : 45억

임법당 안내(30년생)
● 위치 : 부산 범일동
● 평수 : 120평(시유지)
● 건물 스라브 약 30평(등기필)
● 법당 12평, 요사 방 3칸
주방 및 욕실 최신시설
● 정남향 전망최고 뒷산 접
● 가액 : 9, 500만원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근교 낙동강이 보이는 사찰 터 27,000평(당 1만원) "급"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
● 법당 : 60평
● 요사 : 90평
● 부지 : 1,300평
● 가액 : 16억5천

● 위치 : 제주도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억7천

● 위치 : 마산지역
● 법당 : 24평
● 요사 : 120평
● 명부전 : 200평
● 부지 : 1,200평 외
국유지 1,500평 사용
● 가액 : 2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위치 : 경주시 감포읍
● 총 1000평(대지 300평)법당 30평, 요사 40평, 산신각 1동
● 연못, 해수관음상,목불 삼불, 동불 2불
● 감포 앞바다가 한눈에 내다보이며 장엄한 일출, 제2의 보리암
● 홈페이지 참조 www.wonhaesa.com
● 시설일체 완비, 몸만오시면 됩니다 ● 편션도 가능
● 가액 : 5억원(융자 5천포함)
010-4783-007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거제1동 246-2 (자비사)
국제신문사 뒤편 교육대학 바로 옆
● 대지 : 104평, 건평 : 196평
● 지하 : 52평 (주택 및 철학관)
● 1층 : 52평 (주택 및 점포), ● 2층 : 52평 (요사채)
● 3층 : 40평 (법당)
● 삼중스님께서 주석하시는 곳 자비사
● 가액 : 8억 5천 (은행대출 5억 가능)
011-863-3557

사찰(급)안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마산,진주,고성,통영,함안
30분거리
● 가액 : 융자1억 3천가능
010-4583-2035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2층 40평내 법당1, 큰방2,
스님서재방1
● 부처님 삼세불 4자3치,
후불목탱 순금조성 14자6치
신중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칠성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 완벽하고 깔끔한 사찰, 즉시입주
● 전세 6천만원, 월세가능, 주차확실
● 비구니스님도량으로 완벽함
● 주인 직거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010-6411-288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중심지 산밑
● 대지 : 약 80평
● 건물 : 법당 20평 슬라브
● 요사 40평 슬라브
● 가액 : 2억 6천만원
018-554-6198

도심 포교원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2층 양옥
● 대지 170평, 건평 6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삼존불 시설비 1,500만원
010-7104-4849
010-4527-4849

사찰(급)안내
● 위치 : 양산시 원동면
(배내골 입구)
불사한지 3개월 된 신축사찰
● 대지 : 약 100평
● 대웅전 약30평,요사채1,2층 20평
● 산세수려, 기도도량, 지하수 사용
연못 조경 완벽, 야외 산신각
● 스님 건강상 급 양도
저렴한 적정금액 매각
● 천연염색 체험장으로도 적합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9-245-8929

명당(터)안내
● 위치 : 고흥 남쪽 끝
한적한 바닷가
● 평수 : 총 550평(관리지역)
● 용도 : 암자, 토굴, 팬션, 별장지
● 특징 : 정남향 뒤쪽 산, 앞 바다,
2차선 도로접
● 가액 : 사정상 4800만원
061)835-4988
017-626-4988

포교원안내
● 위치 : 원주 시립박물관 옆
● 평수 : 40평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800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0-9940-0312
010-2456-8630

처음 시작하는 스님, 법사님, 보살님께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상가주택
2층 건물 중 1층 20평
● 법당1, 방2, 도시가스, 욕실,
살림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세 26만원
시설비 250만원
● 보시는 분 요지, 현 운영중
010-6411-288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평수 : 108평(건물 3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 삼존불, 약사불, 후불탱화,
약사관음탱화, 신중탱화,
지장호신불 78불, 각 에어컨2대
● 스님서재방 1, 종무실 1,
대중공양실 1, 방사 2, 후원(5평)
● 각 방마다 전기판넬 설비, 시설무 모두 A급
● 현재 불교대학 운영중
시설비 5천만, 보증금절충가능
문의전화 010-2039-5288

청송 토굴 안내
● 국도접, 물흐르고
대지 370평
● 요사 32평, 법당 5평, 창고
● 가액 : 1억 3천만원
010-3131-6533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 땅 1천평 중
종교용지 450평
법당 20평, 요사채 60평
● 바다가 잘 보이는 수행도량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7109-6074
054)293-20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총평수 : 790평
법당 20평, 요사채2, 방4,
창고, 반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기도처 명당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2억3천만원
010-3138-48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
● 3층 건물에 3층, 재래식
큰 시장 안
● 50평, 1,000만원에 30만원
시설 A급 시설비는 답사후 결정
011-574-3303

대형 포교원 안내(불교회관)
● 위치 : 경기도 75만 신도시
대단지아파트 중심상가
● 5층건물중 3층160평,
4층 160평
● 불교대학 운영중
● 보증금 1억, 월250만원
(전세가능), 시설비 절충
010-7700-7682

토 굴 안 내
● 위치 : 성주군 대가면 대천리
● 347㎡(약107평)
● 비구니에게 적합
● 가액 : 2천 2백만원
053)942-3478

명산토굴안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 대지 90평, 밭 590평
● 진입로 포장, 심야보일러
농어촌 전기, 조립주택 28평
미타삼존불탱화, 방4, 입식부엌
● 구획 외 지역으로 건축이 자유롭다
● 1년내내 기도객이 끊어지지
않는 명산토굴
● 가액 : 8,700만원
017-407-0021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중산리 방면
● 대웅전, 산신각, 용왕당,
요사채, 친견실
● 가액 : 2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1-863-062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남산동
● 평수 : 50평
● 도시가스사용,
시설완비(시설최상급)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 스님 개인사정으로 급안내
016-271-2545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
● 평수 : 대지 176평
밭 790평
● 건물 시골 촌집 폐가
전기수도 차량진입 할 수있음
● 산세 좋고 경관수려
● 가액 : 1억 500만원
011-594-1526

임 법 당 안 내
● 위치 : 주문진읍 바닷가
3분거리
● 해수욕장, 해상공원 인접,
대지 : 74평, 건평 25평
● 주차가능 텃밭있음.
삼존불 소불 108불 모셔져 있음
● 보증금 1천만원, 월15만원
011-402-1669

포교원안내
● 위치 : 용산구 후암시장
(서울역에서 도보로 5분)
● 평수 12평(살림가능)
역학원 적지
● 보증금 5백만원, 월30만원
시설비 350만원
02)755-2388

사찰(급)안내
(전통사찰 등록)
● 위치 : 충남 연기군 세종도시부근
● 법당,요사채,신도실,미륵불, 주차장
● 가액 : 답사 후 결정
사정상 전세 또는 양도 가능
011-498-6544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시내
● 평수 : 종교용지 438평
법당 8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칠성각
● 약수 사용, 심야보일러
● 조계종 비구니 암자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개인사찰
● 조계종 승려 원합
● 가액 : 2억 7천만원
011-9581-6044

사찰 전세(월세) 임대
● 위치 : 전남 장흥
● 대지 : 350평, 법당 : 20평
● 요사채, 삼성각, 공양실 등
총 건물 5동
● 전체 기와단청 되어있음
● 석불, 거대 바위산 밑 위치교통 편리
● 전세 3천만원(월세는 협의)
● 수행포교 최적지임
010-7109-9107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문현동
포교원 하실분 연락주세요
● 시설일체완비
● 몸만오시면 됩니다
051)623-8414
010-5570-8414

포교당 안 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 총평수 47평
● 보증금 2천만원, 월11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8-321-244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
(대구, 마산, 창원 인접)
● 평수 : 1,350여평
법당, 용왕당(연못있음)
칠성각, 요사채,
총 100평정도
● 가액 : 3억 5천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0-2592-1523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속초 중앙동
● 4층 건물중 3층,
건평 60평
● 내부시설 황토로 되어있고
전통 좌욕 쑥뜸시설완비, 삼존불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환자 치료하시는 스님이나
역학을 보시는 스님이면 최고입지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9092-9972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내에서 5분거리
● 평수 : 450평
● 대웅전, 미타전,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방4개
● 가액 : 답사 후 절충
● 산세수려, 수행처로 적합
010-9870-1080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두류4거리
● 평수 : 45평(4층건물 4층)
● 삼존불, 각 탱화, 산신각,
방 3개
● 보증금 3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0-2882-9690

사 찰 안 내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평수 : 약250평
● 대웅전 25평, 삼성각 6평
● 요사 30평,
주지실 종무소 6평
● 전세 4천만원, 월 30만원
055)674-5978
011-864-6696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 한옥암자
도심속 위치좋음
● 삼존불, 시설일체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3억 5천만원
(답사후 결정)
010-5169-0108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산호동
산호시장앞
● 건평 : 30평
● 모든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055)243-3758
055)232-7151
010-4001-8476

포교당안내
● 위치 : 청량리역 2분거리
● 약 30평
● 전세 800만원,
월65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8674-3306

사 찰 중 개
● 위치 : 경기
● 부지 : 430평
● 법당 : 35평 목조
● 요사 : 90평
● 가액 : 9억(급양도)

● 위치 : 마산 근교
● 국유지 : 1200평
● 법당 : 15평
● 요사 : 30평
● 가액 : 4억(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급)양도
● 위치 : 경남 합천
● 부지 : 410여평, 하천부지 : 510여평(현재 사용중)
● 대웅전 : 목조단청(21평)
요사 : 한옥 기와 2채(32평)
● 경내 : 범종각, 8층 석탑, 약사여래석불,
관음석불, 산신 용왕단
● 특징 : 사찰역사 약 50년, 전문지관이
극찬한 천하명당
● 양도가 : 2억3천만원
010-6834-8868
사중집기 일체 양도, 몸만 오시면 됩니다

별장식 토굴안내
● 위치 : 춘천시 강촌근교
● 건물 : 한옥식 휴식공간
● 평수 : 130평
(종중땅:도지는 묘지벌초로 대체)
● 내용 : 건축물 등기 완비
(방3,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정원)
● 가액 : 6천만원(절충가능)
※망중한을 즐길 수 있는 아란야
010-6312-86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1206㎡, 임야 130㎡,
요사 198㎡, 대웅전 109㎡,
삼성각 30㎡, 7층 석탑
● 실 사용평수 약 600평 ● 정남향
● 산세수려, 진입로 포장
● 가액 : 보신 후 협의 요
011-9143-0098

30년 서울도심 포교당
● 서울 중심에서 30여년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인연을 찾습니다
● 4층 건물의 3-4층 (각 60평)
● 시설 최고 (진신사리 봉안)
● 보증금, 시설비 포함 4억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7339-8688

포교당안내
● 위치 : 전남 광주시 월산동
● 대지 52평, 1, 2층 건물
● 가액 : 1억7천만원 (전세 7천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7-602-9779

대형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포교의 중심지
아파트 밀집지역
(대도로옆, 전철역 입구)
● 평수 : 150평
● 법당, 요사, 주방 등 현대식
최신식 최상급시설
냉,난방 등 일체 시설 완비
● 보증금 1억 / 월 200만원 / 시설비 9천만원
● 신축불사 관계로 급 안내함
011-594-1526

포교원안내
● 위치 : 노원구 상계역 부근(4호선)
● 평수 : 34평
● 2층 : 법당, 주지실,
3층 : 방3, 주방, 세면실
● 보증금 11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1-888-0130

'가을香'의 진한 유혹



☑ 건강에 좋은 유자·모과 활용법

쌀쌀한 날씨에웅크리며 길을 걷는 요즘, 따뜻한 차 한잔이 그리운 계절이다. 한여름 무더위에 몸이 허해진 때 과일은 더할 나위 없는 영양의 보고다. 결실의 계절답게 가을에는 사과 · 감 등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과일이 많다. 향까지 좋은 과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을 향기 가득한 유자와 모과로 감기도 예방하고 기운도 복돋아 보자.

유자 감기·숙취에 효과 茶·과즙으로 섭취

유자에는 레몬의 3배, 바나나의 10배, 참다래의 3배에 달하는 비타민C가 들어 있다. 특히 서늘한 성질을 가진 유자는 해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초기 감기를 다스리거나 예방하는 데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다. 또 신맛은 간기능을 도와 근육을 튼튼히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므로 온몸이 욱신욱신 쑤시는 몸살감기에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고 떫은맛 때문에 그냥 먹기는 어렵다. 설탕이나 꿀에 재어 차로 마시거나 술이나 과즙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기침에는 유자술=기침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겐 유자술이 좋다. 깨끗하게 씻은 유자를 껍질째 썰어 병에 넣고 2~3배 분량의 소주를 부은 후 밀봉한다. 서늘한 곳에 두세 달 두었다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소주잔으로 반 잔 정도 마시면 된다.

▲통증에는 유자즙=신경통이나 근육통으로 아픈 부위에 유자즙을 바르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유자즙 대신 구운 유자씨를 가루 내어 발라도 좋다.

▲셀프메이드 유자화장수=유자를 화장수로 만들어 바르면 가을철 건조해지기 쉬운 피부를 촉촉하고 매끈하게 가꿀 수 있다. 만드는 방법은 유자를 얇게 저며 소주를 붓고 하룻밤 재두었다가 그 즙을 바른다. 과즙을 짜고 난 유자는 그냥 버리지 말고 그물망이나 베주머니에 넣어서 유자목욕을 해보자. 유자 속에 함유된 정유 성분 덕분에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피부도 한결 고와진다.

▲숙취에 좋은 유자=소화불량으로 속이 자주 불편하거나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사람, 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도 유자는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 있다. <동의보감>에 "유자는 위 속의 나쁜 기운을 없애고, 술독을 풀어주며 술 마신 사람의 입냄새를 없애 준다"고 했고 <본초강목>에서는 "유자를 먹으면 답답한 기운이 가시고 정신이 맑아지며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이 길어진다"고 전한다.

모과 위장병·설사에 효과 익혀 먹거나 약재로

'나무에 나는 참외'라는 뜻으로 '목과'라고도 불리는 모과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다. 과당, 칼슘, 철분, 비타민B와 C, 유기산 등이 함유돼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시켜 준다.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거나 더부룩할 때 먹으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숙취를 빨리 풀어주고 가래를 없애 한방에서는 감기나 기관지염, 폐렴 등으로 고생할 경우 약으로 쓰기도 한다.

모과는 과육이 딱딱하기 때문에 생것으로는 먹을 수 없다. 때문에 모과는 식용보다는 약으로 주로 사용됐고 얇게 저며서 술이나 차를 만들어 먹었다. 하지만 모과는 익히면 훌륭한 음식이 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과정과=껍질을 벗겨 푹 삶은 후 꿀에 담가 삭히면 모과숙이 되고, 삶은 모과를 으깨 체에 받친 다음 꿀과 물을 타서 걸쭉하게 끓이면 모과정과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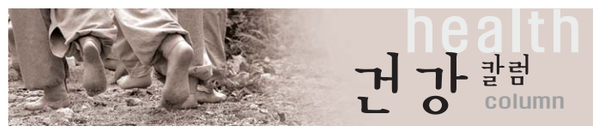
▲가을철 별미 모과죽=모과를 말려서 곱게 가루 내어 좁쌀이나 찹쌀 뜨물에 넣고 쑨 후에 생강즙을 섞으면 맛있는 모과죽을 먹을 수 있다.

▲컵 가득 향기 담은 모과차=모과를 살짝 삶아서 꿀이나 설탕에 절여두었다가 끓일 때 유자를 띄우면 맛이 더욱 좋아진다.

모과를 어떻게 먹든 되도록 껍질째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졌을 때 끈끈한 것은 정유 성분 때문인데 이것이 향과 효능을 배가해주기 때문이다.

<동의보감>에는 모과의 효능에 대해 "갑자기 토하고 설사하면서 배가 아픈 위장병에 좋으며 소화를 잘 시키고 설사 뒤에 오는 갈증을 멎게 한다. 또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다리와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낫게 한다"고 적혀 있다. <본초강목>에는 "주독을 풀고 가래를 없애며 구워 먹으면 설사에 효과가 있고 기름에 적셔 머리를 빗으면 백발을 고쳐준다"고 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많은 양의 모과를 먹으면 소변보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동섭 기자



8.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관절염은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다. 회사원 김은정(42)씨는 얼마 전 등산을 하고 무릎이 시큰거림을 느껴 내원했다. 이영화(51) 주부는 엎드려 집안일을 할 때 손목과 무릎의 통증으로 내원했다. 이들 모두 퇴행성관절염 때문이다.

이는 관절 부위 연골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그 원인은 첫 번째로 노쇠현상을 들 수 있다. 나이가 들면 관절과 관절을 이어주는 연골조직이 얇아져서 뼈가 서로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관절이 퇴행되면 꺼칠꺼칠해져 윤기도 없고 탄력도 없어지며 금이 가고 헐고 얇아진다. 그러면서 연골 가장자리는 작은 뼈가 생겨 그 뼈와 관절 조직이 부딪쳐서 관절염이 생긴다. 그 외에 유전적 요인, 비만, 외상, 관절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습관, 질병 및 기형 등 많은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



노화·비만·스트레스 등 원인
수영·사이클링 등 운동 꾸준히

퇴행성관절염의 증상은 ▲무릎의 통증으로 걷기가 어렵다 ▲팔이나 다리의 관절 부위가 부어오른다 ▲관절 부위에 열이 난다 ▲관절 부위가 혹처럼 불거져 나온다 ▲엄지발가락의 밑 부분이 아프다 ▲자고 난 뒤에 발이나 팔의 관절 부위가 뻣뻣해진다 ▲앉았다가 일어설 때에 무릎에 통증이 온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팔, 다리, 허리가 쑤시고 저린다 등이다.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퇴행성관절염의 주요 증상은 통증이다. 초기에는 장거리 보행을 하면 다리가 아프고 붓는 현상이 있으나 휴식하고 안정하면 부은 것이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없어진다. 관절에 강직감이 생겨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는 쉬었다가 걸을 때 관절이 뻣뻣해 어느 정도 지나야 풀려서 잘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기계가 기름이 말라 녹슨 것에 비유하기도 한다.

이 증상이 점차 진행이 되면 통증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느끼게 된다.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있고, 쉬어도 잘 없어지지 않으며, 밤에 자다가 아파서 자주 깨게 된다.

퇴행성관절염의 예방을 위한 운동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체중이 실리지 않는, 사이클링이나 수영, 무릎 굽혔다 펴기 등이 적합하다.

운동과 함께 식사요법으로는 뼈에 좋은 생선회, 멸치, 우유와 같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햇빛에 노출을 많이 시켜 칼슘과 비타민D를 보충해야 골다공증과 관절염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술, 짠 음식 등을 피하고 영양 부족이나 영양과다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며 소식을 하는 것도 좋다. 면역력을 높이는 참깨, 녹차, 버섯류, 허브류, 해조류, 녹황색 채소류 등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 밖에도 간단하게는 숙면을 취한다거나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근육 통증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이 있고 냉온찜질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경직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다. 온찜질은 긴장된 근육과 관절에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냉찜질은 혈액순환을 감소시켜 염증을 감소시키고 붓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퇴행성관절염의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 증상에 따른 처방의 치료탕약 복용과 필요에 따라 침, 뜸, 물리치료, 부항 등의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한방에서는 한습(寒濕)이나 습열(濕熱)이 습(膝)에 정체 되어 또는 간신(肝腎)이 허해서 관절염이 발생한다고 진단한다. 치료탕약으로는 증손활혈탕, 대강활탕, 삼기음 등을, 침구혈은 슬안, 독비, 양릉천, 음릉천에 시술한다

■ 여동현(소중한몸한의원 원장)
(WWW.1075LOVE.COM)

투자전문가 우승택의 투·자·강·좌 3



'格外道理'… 이치를 초월한 도리를 알라

투자전문가 우승택(삼성증권 자산클리닉센터장)씨의 '투자는 아무나 하나, 유식(唯識)으로 하는 투자학' 의 세 번째 강좌 '윌리엄 오닐의 투자 비법' 내용을 요약 · 정리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예를 물리학에서 찾아보자. 공원에 누워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사람의 손을 현미경으로 확대하다보면 미시의 세계가 보인다. 10^{-9}까지 가면 물리학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공의 세계다. 이때 세포처럼 혹은 점처럼 보이는 것들이 격(格: 틀)이다. 확대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핵이 둥그렇게 뭉쳐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바로 유식에서 말하는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 때문이다. 중중무진화엄세계까지가 물리학으로 확인된 세계이며 1/10억만이 격을 갖고 나머지 99…/10억은 격이 없다.(格外)

반대로 공원에 누워 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아웃을 반복하다보면 그가 위치한 공원→ 도시→ 나라→ 대륙→ 행성→ 태양계 등 거시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은 어느 순간 전자의 사람 몸에서 찾은 원자의 핵과 똑같은 모양이 된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인 반야의 세계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체득해야 한다.

말과 글로 논의 될 수 없는 이치를 초월한 도리라고 알고 있는 것이 격외도리가 아니고 1/10억을 제외한 나머지 99…/10억의 도리가 격외도리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출격(出格)대장부라 하지 않는가? 내 몸, 내 생각이라는 상에 갇혀 있는 1/10억의 격을 벗어나면 99…/10억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 정보를 얻을 힘이 생긴다. 갇혀있느냐 벗어났느냐의 차이가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한 소유의 삶(having mode)과 존재의 삶(being mode)이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다. 주식은 개를 끌고 산책을 하는 사람과 같다. 사람은 그 주식의 가치를, 개는 시세를 뜻한다. 개는 줄에 묶여 앞서거니 뒷서거니(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람은 못보고 개만 본다. 사람을 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바로 불교다. 주가는 기업의 그림자다. 오후 7시부터 밤이라는 사람이 있고, 0시가 밤이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생각을 하는 사람은 0시 1분이 낮의 시작이라는 것을 안다. 보통 사람들은 해가 뜨는 것을 봐야 낮이라 생각하고, 바보는 자기가 일어나야 낮이라 한다. 정말 바보는 해가 중천에 떠야 낮인 줄 안다. 이것이 바로 경제이고 주식이다.

애널리스트 윌리엄 오닐은 캔슬림(CANSLIM) 법칙으로 유명하다. 그가 말하는 캔슬림은 ▲C: 이익 ▲A: 성장률 ▲N: 신제품 ▲S: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힘의 세기 ▲L: 선도주 혹은 소외주 ▲I: 큰손, 투자자들, 기관 ▲M: 트렌드로 요약된다. 그의 법칙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모두 알고 있지만 활용을 못한다.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는 부처님 말씀에 있다.

정리=조동섭 기자

"사찰난방
저렴하고 강력한 한열나무보일러가 최고입니다"

초대형 나무보일러는
역시 한열테크가 가능합니다



● 수평형이며 연도가 3패스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옆으로 긴형태의 보일러로써 나무를 태운열기가 앞-뒤,뒤-앞, 다시 앞-뒤로 열기 3번돌아 열효율이 높습니다.

● 룸 스위치가 있어 온도조절이 쉽습니다.
방안의 스위치로 온도조절이 가능하므로 대단히 편리합니다.

● 화실이 크고 사용하기 편합니다.
화실이 크기때문에 길고 굵은 나무를 넣을 수 있어 난방이 편리합니다.

● 대형사찰, 복지시설등 200평이상 난방 및 온수가 가능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200평이상의 대형 공간에도 난방 및 온수 사용이 가능한 검증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 연도구조 청소가 쉽습니다.
나무를 태우면서 생기는 목초액이 연통에 붙어 연도를 막히게 하지만 연도 구조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청소가 쉽습니다.

2004Korea Consumer Best Awards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스포츠부문 1위브선정 2004년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2005년 히트상품&서비스경영대상

A/s안내
무상서비스
-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의 보일러 본체의 부품불량 및 문제 발생시 무상수리 및 무상교환 가능합니다.
유상서비스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
- 전기사용 잘못으로 인한 고장
- 동파로 인한 고장
- 모타 펌프 이상으로 인한 고장
- 본사의 설치도면을 어기고 개인 설비업자의 임의 설치로 인한 고장
서비스 신청요령
- 매매계약서 보관
- 보일러에 이상이 있을시 설치 대리점으로 문의

대한민국 업계 최초 발명특허, 실용신안, 국제표준,
기술평가 결정서를 획득한 기업은 한열나무보일러가 유일합니다.



주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432-29번지
전화 054-482-3339 / 휴대전화 016-255-5191
공장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 382번지
전화 054-333-5191 / 팩스 054-338-1006
www.hnboiler.co.kr

www.msdfarm.co.kr

"늘 피곤하고 몸이 천근만근"

"마늘 좋은 줄 알면서 냄새 때문에?"



◆1박스(30팩) ₩45,000
◆2박스(60팩) ₩90,000
※2박스 구입시 숙성흑마늘 (판매가 ₩18000) 2×6팩 증정

밀양 신지식인 제1호 이용주가 개발한 흑마늘 진액은 가문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 했다.
수십종의 건강 식품을 연구 개발하였지만 이처럼 자기 이름을 내건 배짱은 제품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꼼보약방가 제조 공법도 매우 색다른 방법이다. 자연에서 아무런 첨가물 없이 전통 옹기에서 21일간 숙성한 흑마늘은 냄새없고 흡수가 빠르고 그만큼 느낌도 빠르다.

흑마늘 숙성 과정



"숙성 흑마늘"이란? 토종 흑마늘을 자연 숙성 시킴으로서 마늘 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고, 마늘 본래의 유효성을 손상시키는 일 없이, 생마늘에 비해 항산 화력이 거의 10배로 상승하며, 콜레스테롤의 산화 및 활성 산소 발생을 억제 예방하는 폴리페놀의 함유량이 대폭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꼼보약방가 흑마늘" 이래서 믿음이 간다
◆대한민국 토종 흑마늘로 까다로운 미국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일체의 첨가물없이 자기발효시킨 무가당, 무방부제, 무색소!!
◆전통방식의 숙성비법으로 마늘 특유의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

"이것저것 먹어봐도 별로였다"



산삼 흑산고 黑蒜膏
◆1kg(5개월분) ₩398,000

늘 피곤하고 천근만근한 몸으로 무슨 일을 해내겠는가?
내 몸을 위해 딱히 믿고 먹을만한 건강식품의 선택이 쉽지는 않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당신의 몸을 위해 만든 건강 식품이 있다. 바로 배양근 산삼, 녹용, 천마, 토종흑마늘로 100일 동안 숙성 발효한 산삼 흑산고이다.

"간편하고 먹기좋은 "이용주 흑마늘 환"



이용주 흑마늘환 세트
◆4개월분 ₩89,000

흑마늘, 검은깨, 흑미, 검은 콩으로 천연숙성한 먹기 좋고 간편한 "환"으로 안토시 아닌과 베타카로틴 등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해외로 수출되는 "황제 흑마늘"



황제 숙성 흑마늘
◆1개월분(2×15팩) ₩45,000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시장을 개척한 황제 흑마늘은 전통 방식 옹기 숙성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꼼보약방가 100년 정성으로 엄격한 검수를 거치는 3단계 품질 관리시스템을 적용한 웰빙 식품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100년 전통 100년 정성
명세당 (꼼보약방가)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35-1
☎ 055)353-5001
농협 946-12-362513(예금주:최경란)
판매문의 : 금강선원 명명스님 017-587-7193
무료전화로 제품신청
080-353-5000



불자 세상보기

한 주 영
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장

바람직한 부부

최근에 연예인 이혼 문제와 부부 스와핑 조직 적발 등으로 바람직한 부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부간의 성문제와 같은 사적 영역의 것을 사회적으로 다룬다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어려운 면이 있다. 9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이혼율로 인해 가족해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혼율 세계 1위 기록을 세우며 증가하던 이혼율이 2003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통계가 발표되어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혼율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고 각 지자체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정문제에 정부가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이사업이 지금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혼의 원인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성격차이, 배우자의 외도, 경제적 이유 등이 주된 사유가 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보면 급격한 사회변화와 불안정한 고용환경, 퇴폐향락문화 등이 가정의 위기를 부추긴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가족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가정의 핵심은 부부다.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좋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불안정하면 가정이 편안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부부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뢰는 성실성, 배려 등 일상에서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쌓아진다.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을 흔히 성격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평상시에 의사소통이나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의 결과이다.

성인이 된 남녀가 함께 만났을 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이 다름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부부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다름을 다룰 때에는 있는 그대로 보기가 중요하며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되 부족한 점은 배우고 보충하는 자세로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하다보면 다름을 통해 보다 성숙하고 완성된 인격을 쌓아가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다름에 대해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자신이 익숙한 방식으로 교정하려고 할 때 문제는 심각해진다.

불교 수행의 출발은 있는 그대로 보기에 있다. 사성제의 고성제는 우리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지고 대화를 함으로써 서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실마리는 풀린다고 본다.

부처님께서 재가자에게 말씀하신 오계를 보면 그 가운데 불사음(不邪淫)이 있다. 아무리 돈독한 부부관계라도 이 불사음의 계가 깨지면 오랫동안 쌓인 신뢰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고,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만 충실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순간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 행복한 가정을 깨뜨리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의 하나가 '인연'이라는 말이다. 이 세상의 수많은 남성과 여성 가운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사람과 만나서 혼인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깊은 인연이 있어서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은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인연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서로 불법을 닦고 인격을 완성해 가는데 좋은 도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정을 일군 재가불자의 바람직한 부부관계라고 생각한다.

'종교자유' 칼럼 34. 대통령의 종교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사회통합 위해 종교문화적 편협성 벗어나야"

국가 최고지도자의 의식구조는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통령이 종교색깔을 분명히 하는 경우 더 이상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1993년 2월 문민정부의 첫 개각에서 개신교 13명, 가톨릭 4명에 비해 불교는 겨우 2명을 끼워 넣어 생색만 내는 편중 인사를 함으로써 일생을 통해 일관되고 소신 있게 '내 종교만 소중하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종교편향은 본색을 드러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 황산성 환경부 장관은 청사 내 식당에서 근무시간에 예배 또는 기도모임을 가졌는가 하면, 법당을 폐쇄하고 불상을 뒷산에 버린 '17사단 훼불사건'으로 문책 해임되었던 국방부 장관 권영해 장로는 그 후 안기부장에 임명되어 '국방부 예배사건'을 주도하더니, 청와대 대변인 윤여준 장로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교회를 찾아 예배를 볼 것"이라며 장로 대통령에서 전도사 대통령으로까지 만들 배짱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1995년 4월 개신교인 김숙희 교육부 장관은 '고입 · 대입 검정고시 일자가 부활절과 겹친다'는 기독교계의 민원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장 김광일 장로의 권고에 따라 시험 일자를 5월 5일로 변경하였다. 이미 국민에게 발표한 공식 시험일마저 기독교 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시행 12일 전에, 그것도 온 국민이 일 년 중 하루 아이들과 함께 쉬게 되어 있는 어린이날로 변경하다니. 어처구니없게도 그 해 초파일(5월 7일)에 수십 가지의 국가자격시험이 실시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육군교회 예배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 내외.

1996년 12월 총무처 장관 김한규 장로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평일에 치른다고 발표하고,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에 임용된 것은 복음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며, 기독교인들의 숙원사업인 성수주일을 관철시키겠다"며 의기양양했다고 한다.

'선교도구로 전락한 김영삼 정권' 당시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였지만, 결국 최종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국민들은 순진하게도 "나의 종교가 소중한 만큼 남의 종교도 소중하다"는 그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다.

기독교 국가를 꿈꾸던 이승만 대통령도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임시의장으로 추대된 그는 "대한민국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운을 뗀 뒤,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목사) 나오셔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식순에도 없는 횡포를 부리더니, 이어진 개회사에서도 감사할 대상 중 첫째로 '하나님'을 꼽아 온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어느 분의 지적처럼 비신자로서 '한국기독교역사 시대'에 2등 국민으로 낙오자가 되는 모멸감을 느끼게 해준 순간이었다.

한편 군승제도 도입(1968년),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1975년), 불교방송 개국(1990년)이 군목(1948년 창군 시), 크리스마스(1949년 공휴일 규정), 기독교 방송(1954년)에 비해 각각 20년, 26년, 36년이나 뒤처진 것도 건국 초기부터 친기독교로 일관한 파행적 정책 때문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대통령의 종교가 문제가 된 것은 주로 이승만 · 김영삼 두 대통령 시절이었지만, 김대중 前 대통령도 종교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다.

전두환씨에 의해 미국으로 출국 당했던 1981년도에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당시 MIT 연구원이었던 필자도 참석했는데, 1980년 광주항쟁 직전 정치인들이 대중연설 등을 통해 모처럼 '정치적 봄'을 만끽하던 수개월 동안 유독 김대중씨가 강연할 때마다 '예수형님'이란 말을 쓰는 것을 의아해했고, '육체적 · 정치적 생명을 로마교황청이나 미국 기독교 세력에 의탁하고파 필요 이상으로 예수를 파는 것 아니냐'고 직접 묻고 싶던 차였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어느 여교수가 먼저 "기독교 전통이 아닌 한국에서 정치지도자들이 기독교를 앞세우며 이용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질문을 하지 않는가. 갑작스런 질문에 엉겁결에 해방신학을 끌어들여 그럴싸하게 답을 했지만,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가톨릭 신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개신교 신자인 이희호 여사의 영향 아래 청와대와 내각, 그리고 행정부와 군 · 경 등의 고위 임명직에 불교인을 소외시키고 기독교 일색으로 채워왔다는 불만도 많았다. 각종 위원회에 기독교 인사(현직 목사 포함)가 50~60%인데 반해 불교 인사는 10%에도 못 미치는 등 국민정부가 문민정부 때보다 더 심하다는 보고도 있었다. 국무총리 지명자였던 장상씨는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의 참된 도구가 되겠다"며 종교색 짙은 발언을 하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 대통령이 종교적으로 편협한 경우 사회적 갈등의 뿌리가 깊어지게 마련이다. 종교문화적 편협성이 없는 통합형 대통령의 선출을 기대해 본다.

불자의 눈

수계법회 '제대로 된 틀' 기대

불자와 비불자를 구분하는 잣대는 무엇일까? 수계(受戒)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행하는 불자의 삶은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음주 등 다섯 가지를 경계하는 계율(五戒)을 기본으로 한다.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는 부처님의 '명령'인 계를 받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재가 불자들이 받아 지니는 기본 계가 바로 5계다. 5계를 받은 사람은 불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비불자이거나 비불자다.

불자의 표상인 5계, 조계종은 아직 이 5계와 관련된 의례와 계목(戒目:계의 항목들)을 통일화 하지 못했다. 수계 법회의 절차와 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구분은 물론 계목의 문구도 각각이다. 특히 계목을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문제와 관련 표현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종교는 허례가 아닌 위엄 있는 의식을 통해 그 가르침의 본질을 더욱 값지게 하는 측면이 강하다. 수계법회는 성불이라는 궁극에 이르기 위해 경계해야 할 기본 사항들을 목숨처럼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의식인 만큼 매우 엄숙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찰마다 각각의 형태로 수계법회를 치른다거나 의식마다 차이가 나는 계목으로 지계의 삶을 다짐한다면 종교적 엄숙과 숭고함이 결여되는 것은 물론 수계자의 신심도 약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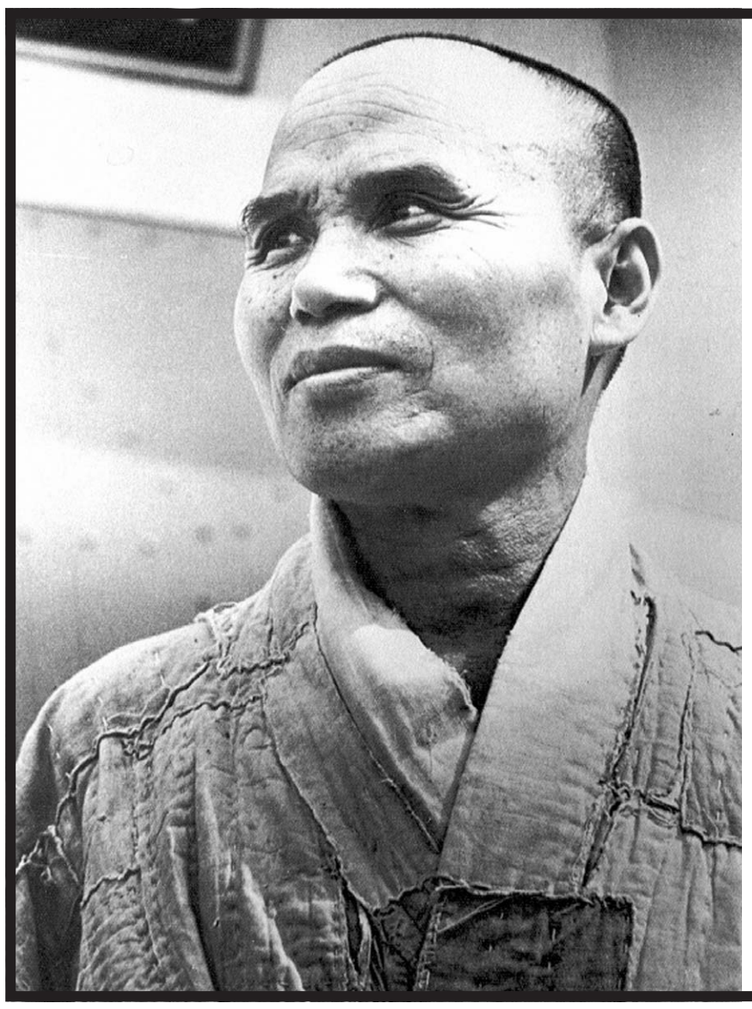
최근 조계종 포교원이 '재가불자 수계법회 정립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일차적으로 계목의 통일을 위한 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반갑고 중요한 일이다. 이 워크숍을 통해 불자로서의 삶, 사부대중의 일원으로서의 근본을 견고하게 다지는 수계법회가 제대로 된 틀을 갖추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종립대 관리 원점에서 점검을

조계종 종립대학인 동국대가 긴 안개의 터널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학교 뿐 아니라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신정아 사건'의 출발점이 되어버린 이사회가 어물쩍 책임을 방기하는 사이, 학교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는 숨을 죽였고 학내 구성원들의 원성은 켜켜이 쌓였다. 이사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계의 목소리들이 높은 가운데 급기야 학생들도 '책임과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오늘의 동국대 상황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하고 누가 새로운 비전을 내세울 것인가?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책임지고 그렇지 않은 인사들이 새로운 비전을 만든다는 '단순공식'은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 보다 근원적인데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땜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원은 어디인가? 종립대학의 근원은 종단이다. 조계종이다. 현재 종단과 동국대를 잇는 통로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종관위)'다. 그러나 알다시피 종관위는 지극히 정치적인 기구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동국대 불행의 출발점일지도 모른다. 지금 동국대를 '관리'하는 종단의 입장은 근원적인 데서부터 변해야 한다. 백년대계를 위해 선지식들이 일군 대학을 정치와 권력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설립이념을 구현하는데 전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구성해 진정한 종립대학을 가꿔야 한다.



성철스님 열반 14주기 추모 학술회의

성철스님의 일상의례와 선 : 삶 속에서 내 마음을 밝히다

2007년은 봉암사결사가 시작된 지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성철스님은 청담스님, 자운스님 등과 함께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기치 아래
1947년 문경 봉암사에서 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전쟁 때문에 결사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현재 조계종의 의례를 확립시킨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특히 봉암사결사에서는 총림의 예법을 따라
능엄주 독송과 백팔예참문을 강조하였는데
이후 백련암을 대표하는 의례로 정형화되었습니다.
이에 봉암사결사 60주년을 맞이하고 성철스님 열반 14주기를 맞이하여
능엄주 독송과 백팔예참문의 연원과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두 의례가 총림의 의례 중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지,
성철스님이 이런 의례를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아울러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수행이
실제로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하여 봉암사결사의 의례가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는 모습과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21세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결사의 일단을 모색해 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 일 시 | 2007년 11월 21일(수요일) 오후 1시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 주 관 |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선사상연구원
● 후 원 | 문화관광부

【 일 정 】

1:00~1:20 개회
발제 _ 원택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1:20~2:00 초청발표 성철스님 불탄법어 독송의 정신치유 효과
발표 _ 박진생(박진생 신경정신과 의원 원장)

2:00~3:00 제1발표 선종 총림 의례와 능엄주 독송
발표 _ 석길암(한국불교연구원 전임연구원)

3:00~4:00 제2발표 성철스님 일상 참법의 연원과 의미
발표 _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구원)

4:00~5:00 종합토론

| 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파빌리온 1232호
전화 02) 2198-5372 / 팩스 02) 2198-5374 / 이메일 academy@songchol.net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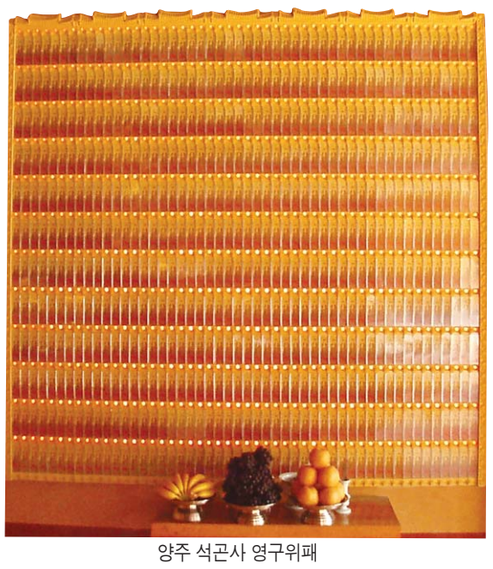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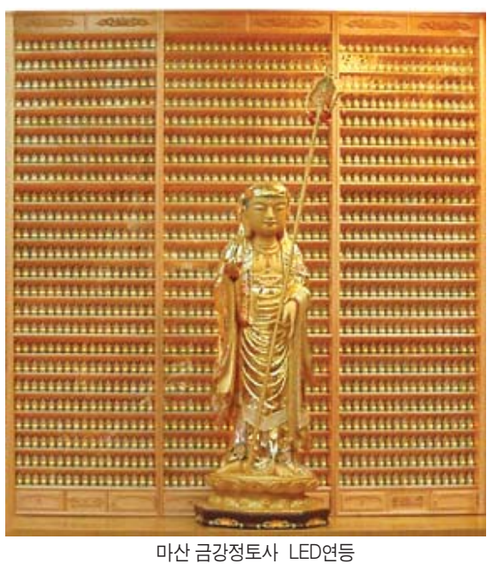
팔각봉축접등 청사초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종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양주 석곤사 영구위패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연등 작업 현장

※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자설치 작업


▷신갈 대덕사 연등 설치 모습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바닥에서시공하여 올리기 전 모습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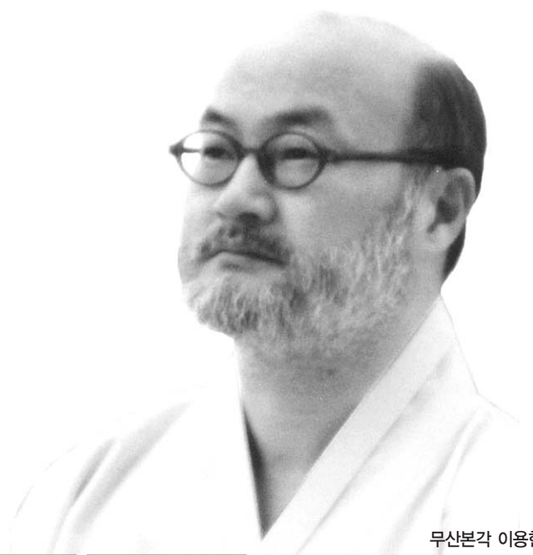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2,600년 만에 완벽하게 복원한 붓다의 6단계 정통 수행법

깨달음에 이르는 붓다의 수행법



누구든지 이 길을 따라가면 붓다의 경지에 이른다

《불설대안반수의경》에는 수數 · 수隨 · 지止 · 관觀 · 환還 · 정淨의 여섯 가지 수행 관문이 체계적으로 시설되어 있다. '유일한 길' 혹은 '성스러운 길'이라 부르는 이 붓다의 정통 수행법은 오랜 세월 속에서 파편화되어 오늘날 북방 대승불교권에서는 싸마타를, 남방 근본불교권에서는 위빠싸나를 위주로 한 수행법이 정착하게 되었다. 이 책은 붓다 입멸 후 흩어지거나 잊혀졌던 수행법들을 다시 모으고 복원하여 일관되고 완벽한 수행 시스템으로 재해석, 재조직한 것이다. 이로써 인류가 문자를 만들어 책을 펴내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붓다의 수행법이 온전하게 복원되기에 이르렀고, 한국 불교 1,6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정통적인 붓다의 수행법이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깨달음에 이르는 붓다의 수행법》은 2,600년 불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저작으로 꼽히는 붓다고사의 《청정도론》에도 언급되지 않은 싸마디(삼매)를 성취하는 수행법, 싸마타와 위빠싸나를 함께 닦는 지관병수 수행법, 깨달음에 이르는 '도道의 명지明知'를 성취하는 방법 등을 실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붓다의 여섯 단계 수행법 중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환還'과 '정淨'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수행법을 밝혀놓았을 뿐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이론체계를 정립함으로써 불교 수행법을 완벽한 시스템으로 재탄생시켰다.


무산본각 지음 | 전 2권(각권 18,000원)

무산본각 이용현

(주)선경 테헤란 지사장과 주駐이란 한국상사협의회장을 역임한 저자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무렵 테헤란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귀국하여 수행자가 되었다. 어느 날 새벽 '야반삼경목계성夜半三更木鷄聲'이라는 말에 문득 공안을 타파하였으나, 곧 참된 경계가 아님을 깨닫고 재발심하여 호흡 공부부터 다시 수행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싸마타와 위빠싸나를 함께 닦는 정통적인 붓다의 지관쌍운 수행법을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온전하게 복원하고 체계화한 그는 현재 목포의 마음닦기선원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전수하고 있다.

tel 02) 3143-0383 · 0338 fax 02) 3143-0378 유토피아